

R 919 | 2020. 12. |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1/10차년도)

A Panel Survey for Rural Villages (Year 1 of 10)

송미령 성주인 한이철 민경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919 | 2020. 12. |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1/10차년도)

A Panel Survey for Rural Villages (Year 1 of 10)

송미령 성주인 한이철 민경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송미령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성주인 | 선임연구위원 | 제5장 집필

한이철 | 부연구위원 | 제2, 4장 집필

민경찬 | 연구원 | 제3~4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 R919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1/10차년도)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 | 979-11-6149-444-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최근 농산어촌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으며 변화의 양상은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다.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국토공간의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인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어촌 마을 대상의 패널 자료 구축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여 매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이다. 패널조사 첫해인 올해에는 농산어촌 마을의 유형과 공간적 분포를 고려해 대표 패널 마을을 선정하고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조사 설계 및 기초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기초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방분권 이후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및 자문에 참여해 주신 시도연구원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패널 마을 주민들과 마을 대표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2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요 약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넬로 선정하여 매년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을 중심으로 하지만 농산어촌의 현재 모습의 특징과 변화의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 방법

- 전국적으로 다양한 마을이 포함되도록 도당 평균 10여 개 마을을 할당하여 102개 마을을 패넬로 선정하였다. 패넬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대표자 102명, 마을당 약 20%에 해당하는 주민 2,15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를 하고, 8개 마을은 방문 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주민 표본은 마을당 10명씩 선배분하고 마을 전체 가구 규모 구간별로 5~25명까지 차등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특히 조사 대상 마을 주민의 연령, 성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 농산어촌 마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귀농·귀촌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마을의 기능 분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2지역 거주 및 관계인구의 등장은 최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농산어촌의 뚜렷한 변화이다.
- 농산어촌에서 농림어업 비중은 과거보다는 축소되었지만, 일반적인 농산어촌 마을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농림어업이 지배적인 경제활동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과거보다는 시설농업이 증가하였으며, 공동 농작업보다는 개별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력 감소와 세대교체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 이외에 경제활동 다각화 경향이 원격 마을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농산어촌 전체에서 보편화된 양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 공동체 활동은 과거 전통적인 사회조직에 비해 조직의 수나 참여 정도 측면에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의 사회조직이 작동하고 있다. 대부분 마을이 부동산과 현금 형태의 마을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식사, 취약계층 돌봄 등의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 등장하였다. 다만, 귀농·귀촌한 이들은 연령 및 학력 등 창조계층으로서의 특징이 있음에도 기존 농산어촌 주민에 비해 공동체 활동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바, 이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 촉진은 향후 농산어촌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의 정책사업 시행 마을에서 취약계층 돌봄과 같은 자조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등 마을 공동체의 재활성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마을 봉사조직과 같은 자율적 조직이 활동하는 마을에서 그러한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사업 지원과 더불어 전통사회에서부터 마을이 지녀온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이어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노후주택 및 공·폐가가 모든 농산어촌 마을에 존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축사, 태양광발전시설 등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요소들이 증가했다. 다만, 주민들은 축사 이외에 태양광발전시설이나 공장, 창고 등을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요소라고 인식하는 편은 아니다. 농산어촌 마을에 보전할 가치

가 있는 자원은 있으나 대체로 보전, 관리,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마을 공동체 약화, 교통망 확충과 기동성 향상으로 마을 기능의 상당 부분이 상위 중심지로 이전된다는 진단이 과거 제기되었다. 하지만 읍·면 및 시·군청 소재지 등 주요 중심지 방문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고령층 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 계층은 생필품 구매, 교통 서비스 등과 같이 기초 중심지와 배후 마을 연계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다. 젊은 층의 경우는 인근 소재지의 문화·여가 기능 확충을 요구하는 등 주민 계층별 차별화된 서비스 수요가 존재한다.

정책 제언

-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2020년부터 중앙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마을 대상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따라서 농산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 실증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전국적인 농산어촌 마을 상황 진단 및 표본 마을의 정주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변화의 방향성을 읽고 그에 적합한 정책의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역할과 기능은 대부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고령층, 취약계층에게 있어 마을은 일상생활의 무대로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마을에 효과적인 기초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검토되어야 한다.

- 농산어촌 마을과 더불어 농산어촌 중심지의 기능 또한 중요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책적으로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중심지 활성화 이외에 농산어촌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심지를 거주지로서도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농산어촌 정주체계 변화의 국면에서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민 구성원 간의 공동체 활성화와 새로운 구성원 확보를 위한 난개발 완화 등이 관건이다. 특히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소규모 농산어촌 정책사업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난개발 완화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마을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환경·경관 훼손 시설 입지를 막는 방식의 정책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귀농·귀촌자, 2지역 거주자, 관계인구 등과 같은 거주 패턴 등장이나 인구 유입은 농산어촌에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인구는 기존 주민에 비하여 연령 및 학력 등의 측면에서 이른바 창조계층(creative class)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는바, 이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A Panel Survey for Rural Villages (Year 1 of 10)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select rural villages representing Korea's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communities for a panel survey to observe annual changes and conduct in-depth research on specific topics. Although the main target of the panel survey is the analysis of changes in rural villages, we can get an insight into the current state and transformations of rural Korea as a whole using the survey result. Accordingly,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preparing data for developing rural policies in the mid to long term.

Research Methodology

- To cover various types of villages, we selected ten for each province, totaling 102 villages for the panel survey. Then we interviewed 102 representatives and 20% of residents per each village (total 2,151 residents) using a questionnaire paper. We also visited eight villages for a survey. Ten residents per village were pre-selected for a minimum sample and 5-25 per village were added following the total size of households. In particular, we evenly reflected residents' ages and genders in the panels.

Key Findings

- Population is declining and the aging population is getting worse in rural areas. However, the nationwide trend of urban-to-rural migration is diversifying village functions. There are distinct changes in recent rural villages such as households their members live in multiple locations, and the related-population who interact with rural areas.
- Although industries in rural areas such a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have reduced, about half of the people are still engaged in those industries. Concerning agriculture, controlled farming in facilities has increased and individual farm households produce their own rather than pursuing co-work. The labor force is declining, and generational changes are showing up. Economic activities in the non-agriculture industry have become diverse in remote villages, but the phenomenon cannot be considered a nationwide trend.
- Group activities have weakened in terms of the number of organizations or participation of members. However, various clubs work still for village communication, e.g., the elderly, or women work. Most villages hold joint properties(e.g., including cash and real estate), and have emerged new communal activities for dining and care for the underprivileged. However, new faces who migrated from urban for rural life or farming are much less interested in community activities than other local people, although they are mostly young and educated. So encouraging their participation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vitalizing rural areas.

- Facilities damaging the rural landscape and environment such as obsolete or empty houses, cattle sheds, and solar power facilities have increased. Local people are aware of cattle sheds' negative impacts on the landscape and environment but think differently about others, such as solar power facilities, plants, and storages. Although rural villages hold valuable resources to preserve, they do not have platforms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olicy Suggestions

- Most development projects for rural villages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in 2020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decentralization. Thus, the policy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oward rural village need to be changed. Also, local governments consistently supervise and monitor them.
- There should be in-depth endeavors to monitor rural villages nationwide and changes in settlement conditions in the sample villages based on empirical statistical data. The government needs to read the direction for transformation and plan adequate policies.
- Despite the population decline in rural villages, our survey shows that their roles and functions are still useful. For the elderly and underprivileged, their communities should provide necessary daily servic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programs to raise access to daily livelihood services.
-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function of both the central area and village in rural areas are still crucial. It is important to foster their role

in services. Besides, we believ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 strategy to connect the hub area and surrounding villages and make the center attractive for residence amid the trans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is essential to secure sustainability in rural villages. New village members' active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and the eradication of reckless development are the keys to ensure their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we can get implications from the fact the government's small-scale village projects wer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gulatory framework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and lead residents to participate in preserving valuable resources in their communities. Meanwhile,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program to prohibit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harming the rural landscape and environment.
- Demographic changes and the population influx through urban-to-rural migration, households living in multiple areas, and the related-population in rural area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new types of communities. In particular, new faces moving to rural villag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ve class in terms of age and education levels. Therefore, there should be measures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communal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regional communities.

Researchers: Song Miryung, Seong Joo-in, Han Icheol, Min Kyungchan

Research period: 2020. 1. ~ 2020. 12.

E-mail address: mrso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6
3. 주요 연구 내용	8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패널 조사의 의의	15
1. 선행연구 검토	15
2. 국내외 패널 조사 의의와 특징	23
제3장 마을 패널 조사 설계	31
1. 농산어촌 마을의 일반 현황	31
2. 패널 조사 대상 마을 선정	34
3. 조사 관점 및 조사 설계	39
제4장 농산어촌 마을의 현황과 특징	49
1. 조사 개요	49
2. 마을 대표자 조사 결과	52
3. 마을 주민조사 결과	74
4. 요약 및 소결	90
제5장 농산어촌 마을의 기능 변화	95
1. 인구 유입에 따른 농산어촌 마을 분화	95
2. 마을 공동체 기능 변화	109
3. 마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요구 대두	117
4. 시사점	121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25
-----------------------------	------------

1. 연구의 요약	125
2. 향후 과제	129

부록

1. 농산어촌 패널 마을 리스트	133
2. 마을 대표자(이장)조사 설문조사표	136
3. 마을 주민조사 설문조사표	146

참고문헌	155
-------------------	------------

표 차례

제2장

〈표 2-1〉 조사 범위에 따른 패널 종류	25
〈표 2-2〉 국내의 패널 조사 사례	25
〈표 2-3〉 패널 표본 추출 방법	27
〈표 2-4〉 이탈 패널 처리 방법	27

제3장

〈표 3-1〉 농촌 지자체(시·군) 유형 분류 기준	36
〈표 3-2〉 마을 패널 조사 대상 지자체 현황	37
〈표 3-3〉 패널 마을의 일반 현황	38
〈표 3-4〉 선행연구의 마을 조사항목	41
〈표 3-5〉 마을 관련 공식통계 조사 항목	42
〈표 3-6〉 마을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종합	45
〈표 3-7〉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주제(안)	46

제4장

〈표 4-1〉 응답자 현황(마을 대표자 조사)	50
〈표 4-2〉 응답자 현황(마을 주민 조사)	50
〈표 4-3〉 현장조사 마을 특성	51
〈표 4-4〉 패널 마을의 가구 규모	52
〈표 4-5〉 패널 마을의 평균 가구, 인구수(상주, 비상주)	53
〈표 4-6〉 기간별 인구수 변화	54
〈표 4-7〉 지난 5년(2015~2020) 인구 변화	54
〈표 4-8〉 지난 10년 이내 귀농어·귀촌 가구 현황	55
〈표 4-9〉 마을 내 취약계층 현황	55
〈표 4-10〉 관계인구 및 도농교류 활동	56
〈표 4-11〉 농어가 현황	58

〈표 4-12〉 최근 10년간 농어가 변화	58
〈표 4-13〉 경제다각화활동 참여 가구 현황	59
〈표 4-14〉 최근 10년간 경제다각화활동 참여 가구 변화	60
〈표 4-15〉 비농가 경제활동(복수응답)	60
〈표 4-16〉 마을 공동경제활동 주민 참여 정도	63
〈표 4-17〉 타 마을 연계 공동경제활동 여부	63
〈표 4-18〉 마을 공동소유 재산	63
〈표 4-19〉 마을 내 사회조직 활성화 정도	65
〈표 4-20〉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65
〈표 4-21〉 마을 내 주택 현황	67
〈표 4-22〉 최근 5년간 마을 내 주택 변화	68
〈표 4-23〉 마을 내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70
〈표 4-24〉 마을 내 보전가치가 있는 자원 여부	72
〈표 4-25〉 시·군 및 마을 유형별 조사 주민수와 비중	75
〈표 4-26〉 동거가족 현황	75
〈표 4-27〉 시·군 마을 유형별 귀농·귀촌인 비율	76
〈표 4-28〉 거주 이유에 따른 연령별 주민 비율	76
〈표 4-29〉 귀농·귀촌자의 학력 및 연령대	77
〈표 4-30〉 거주지 유형별 현재 거주지로 이주한 이유	78
〈표 4-31〉 거주 기간별 종사 직업	79
〈표 4-32〉 거주지 유형별 주민의 직업	79
〈표 4-33〉 연령대별 농림어업 종사자 중 작목 비중(중복선택)	80
〈표 4-34〉 연령대별 5년간 영농(어장) 면적 변화	81
〈표 4-35〉 연령대별 농경지·어장 위치 현황	81
〈표 4-36〉 주민 유형별 참여 경제조직 현황(중복응답)	83
〈표 4-37〉 주민 유형별 마을활동 참여 비율과 참여 정도(5점 척도)	84
〈표 4-38〉 생활서비스별 주요 서비스 이용 지역	85
〈표 4-39〉 연령대별 친목모임과 문화/여가/취미 서비스의 이용 지역	86

〈표 4-40〉 소재지별 방문 횟수	86
〈표 4-41〉 마을 주민들의 주택 비율	87
〈표 4-42〉 최근 5년 동안 마을의 정주 환경 변화(5점 척도)	88
〈표 4-43〉 주민 유형별 삶의 만족도(10점 척도)	89

제5장

〈표 5-1〉 가구 규모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추이	96
〈표 5-2〉 소재지 접근성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추이	96
〈표 5-3〉 농가 비율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추이 비교	98
〈표 5-4〉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1, 2순위) 비교	99
〈표 5-5〉 마을 유형별 경제 다각화 활동 참여 가구 변화 추이	100
〈표 5-6〉 이주 응답자 유형별 농산어촌 이주 이유(마을 거주 기간 기준)	102
〈표 5-7〉 마을 유형별 농산어촌 이주 이유(마을 인구 변화 추이 기준)	103
〈표 5-8〉 마을 유형별 농산어촌 이주 이유(마을 입지 조건 기준)	103
〈표 5-9〉 경제활동 목적 이주 응답자 세부 분류(마을 거주 기간별 비교)	105
〈표 5-10〉 현재 마을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복수 응답)	105
〈표 5-11〉 마을 유형별 난개발 확산 추이(주민조사)	107
〈표 5-12〉 마을 유형별 난개발 확산 추이(이장조사)	107
〈표 5-13〉 주민 유형별 마을의 주요 공동체 활동 참여 현황	109
〈표 5-14〉 마을의 인구 변화 추세와 공동체 활동 특성 비교	112
〈표 5-15〉 마을 공동체 활동 수준과 경제 다각화 참여도	113
〈표 5-16〉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마을 비율(마을 유형 간 비교)	114
〈표 5-17〉 거주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시설	120

제6장

〈표 6-1〉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요약	128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11
-------------------------	----

제3장

〈그림 3-1〉 시·도별 농산어촌 마을 현황	32
〈그림 3-2〉 가구 규모별 마을 비율	32
〈그림 3-3〉 인구 증감 마을 비율 변화	33
〈그림 3-4〉 패널 대상 마을 선정 절차	35
〈그림 3-5〉 패널 대상 마을 분포 현황	38

제4장

〈그림 4-1〉 마을의 인구 구성(연령대, 성별)	55
〈그림 4-2〉 마을 내 경제조직 보유 비율	62
〈그림 4-3〉 마을 내 사회조직 보유 비율	64
〈그림 4-4〉 패널 마을의 주택 현황	67
〈그림 4-5〉 패널 마을의 공동시설 활용 사례	68
〈그림 4-6〉 농산어촌 마을의 물리적 변화의 예	69
〈그림 4-7〉 마을 내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수용 가능 여부	70
〈그림 4-8〉 최근 20년 이내 지원사업 현황	73
〈그림 4-9〉 주민 유형별 참여 사회조직 현황(중복응답)	82
〈그림 4-10〉 농산어촌 마을의 물리적 환경 변화의 예	88

제5장

〈그림 5-1〉 마을 유형별 전출·입 인구(5년) 및 귀농·귀촌 가구수	97
〈그림 5-2〉 마을 농가 규모별 전출·입 인구 및 귀농·귀촌 가구수	98
〈그림 5-3〉 농산어촌 이주 목적에 따른 마을 이주 응답자 분류	101

〈그림 5-4〉 경제활동 목적으로 이주한 응답자 세부 분류	104
〈그림 5-5〉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 분포 정도와 인구 변화 추이	108
〈그림 5-6〉 마을 활동 수준 및 주민참여도에 따른 사례 마을 분포도	110
〈그림 5-7〉 공동체 활동 기준 마을 유형화 개념	111
〈그림 5-8〉 정부 사업 시행 여부와 마을의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비율	115
〈그림 5-9〉 마을 공동생활홈 사례(충남 보령시 성주4리 사례)	115
〈그림 5-10〉 마을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비율(조직 유무에 따른 비교)	117
〈그림 5-11〉 주민 유형별 기초 서비스 이용 성향(연령 비교)	118
〈그림 5-12〉 과거 대비 중심지 방문 빈도 감소 주민 비율(소득 및 연령 비교)	119

제6장

〈그림 6-1〉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종합 요약도	130
-------------------------------------	-----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농산어촌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양상은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오랜 기간 전국적으로 두드러졌던 이촌향도(離村向都) 경향이 약화되면서 최근에는 농산어촌에 순 인구 유입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인 편차가 커서 장래 농산어촌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진단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 농산어촌은 매년 50여만 명 전후에 달하는 귀농·귀촌인 유입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을 비롯한 첨단농업의 진전과 함께 농식품 제조·가공, 생태자원·자연경관 등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전통적인 농림어업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및 경제 기회가 출현하는 등 변화의 기운이 뚜렷하다.

반면에 일부 농산어촌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어 인구·산업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소멸’ 논의와 함께 농촌이 ‘무거주 지역화’된다는 진단까지도 제기된다.

그런데 농산어촌의 장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 판단을 뒷받침할 누적된 근거 자료는 충분치 못하다. 농산어촌 변화에 대한 실증적 지식과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국가적 정책 방향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통계나 사례에 근거한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례로 과소화 마을의 정비를 포함한 장래 농산어촌 발전 전략에 대해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그룹 모두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이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현실에서 더 이상 마을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을은 유효한 정책 단위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농산어촌 정책의 초점 역시 공간적 차원에서는 중심지 활성화, 한계마을 정비, 일반 농산어촌 마을의 유지관리 등과 같이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할당해야 타당한지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농산어촌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귀농·귀촌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태 고찰을 통한 진단이 요구된다.¹⁾

장래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미시적인 변화 실태 고찰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주체계에서 마을의 위상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농산어촌 변화 현상의 실질적 분석 단위로서 마을은 여전히 유효한 단위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생활양식 변화, 주민 생활권 확대, 마을 공동체 쇠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에서 마을은 여전히 주민 활동을 조직하는 기본 단위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공간 단위가 형성되는 사례도 흔치 않다. 특히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산어촌에서 마을은 분명한 물리적 형태를 갖는 공간적 실체로서 농산어촌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공간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이자 농산어촌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

1) 최근 귀농·귀촌 통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남양주시, 화성시, 달성군, 아산시 등과 같이 대도시 주변 읍·면 지역의 신규 아파트 거주자가 귀촌인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2020.10.17., “나도 모르게 귀촌인? 농촌 인구 감소 외면한 귀촌 통계”).

에서 제기된 농산어촌을 둘러싼 기회 및 위협 요인들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마을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장래 농산어촌 변화에 대응해갈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지방분권 확대 이후 마을 대상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지던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을 통한 마을 관리 방식은 실효성이 다소 약화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실시해온 정책 사업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할 근거도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산어촌 주민들이 정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적 단위가 마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여전히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가 실효적인 관리를 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한 정도의 삶의 질을 확보하도록 중앙정부가 국가 최저 수준(national minimum)을 충족할 책무가 요구되는바, 마을 단위의 정주 여건 모니터링은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책무이기도 하다.

농산어촌 변화 상황을 연속적·동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마을 대상의 패널 자료 구축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단발적인 농산어촌 조사는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산업화 시대(1980~90년대) 농산어촌의 변화를 조사한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이후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연구는 일회적, 부분적인 연구에 그쳤다.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탐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증거에 기반한 농산어촌 정책을 기획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다양한 농산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비용과 자원이 요구되어 국책연구원 이외에 대학 등 타 기관 연구자가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대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여 매년 마을의 변화를 조사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통계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도별 기초조사 및 심층연구를 통해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관찰하여 시사점을 얻고,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 마을의 유형과 공간적 분포를 고려해 대표 패널 마을을 선정하고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기본 구상하에 조사·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패널 조사 자료에 근거한 마을 실태 조사 및 변화 분석과 함께 특정 어젠다에 대해서는 심층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농산어촌 정책에 심화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 마을과 마을 주민의 삶의 변화 모습에 대하여 가독성 높은 도서 발간 등을 할 예정이다. (가칭)“한국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시리즈 발간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농산어촌에 긍정적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어촌 마을이 잊혀져가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 또한 이 연구의 부수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범위

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이다. 매년 기본 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심층연구의 주제별로 심화된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시간적 범위는 사안에 따라 탄

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마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정점 인구를 지난 시점은 마을마다 다를 것이며, 귀농·귀촌 인구를 파악함에도 행정통계에서 정의한 1년 이내 동에서 읍·면으로 들어온 인구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인지하는 5년, 10년 이내에 들어온 인구 등의 정의를 반영코자 한다. 특히 마을 공동체 구성·활동, 경제 활동 등과 같은 농산어촌 마을 변화에 대해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하는 경우는 30년 전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활용한 마을 모습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자료 구득이 가능한 10년 전과의 비교 등을 시도할 수 있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농산어촌 마을이다. 여기서 농산어촌은 읍·면 지역을 의미하고, 마을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한다.²⁾ 다양한 유형의 농산어촌 마을을 포괄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 도 단위에서 골고루 패널 조사 대상을 선정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마을³⁾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농산어촌 마을은 외부와 구분되는 지리적 영역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무엇보다 행정리를 단위로 조직되어 구성원의 경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자립적인 정주 단위(이상문 1998)로 규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을을 본 패널 조사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만,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은 행정리 내 자연부락을 ‘마을’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역시 향후 심층연구의 주제 중 일 부라 할 수 있다.

2) 마을 이장이 대표하는 행정리를 기본 연구 단위로 하되, 마을에 따라 복수의 자연마을이 분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패널 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제3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3) ‘마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정의된다(표준국어대사전).

3. 주요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이다. 특히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산어촌 마을을 관찰했던 연구들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집중해야 할 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제2장에 정리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패널 조사 지역 및 대상 마을 선정 등 패널 조사의 기본 설계를 하였다. 패널 마을 선정에는 마을의 지리적 분포, 마을 규모, 대도시와의 접근성, 마을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농산어촌 마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변화를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을 우선 고려하여 변화의 역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별 마을 연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위 생활권, 마을 간 상호작용 등을 고찰하기 위해 단일 시·군 및 읍·면에 분포하는 복수 마을들을 패널 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마을이라는 프레임즘을 통해 농산어촌 전체를 볼 수 있는 틀로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패널 마을 조사·분석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패널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대표를 통한 기본 조사와 마을 주민 대상 조사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일부 패널 마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을 대표 조사에서는 마을의 인구 변화 등 일반사항,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해 마을 대표자 대상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마을 인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의 답변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을 통해 대조 확인하였다. 마을 주민 조사는 패널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약 20% 규모를 추출해 귀농·귀촌 여부, 경제 및 공동체 활동, 사회관계, 공간소비 형태 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패널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어떤 특성을 가진 마을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마을의 지속가능성 유지 조건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경제활동과 공동체 활동의 상관성, 마을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 농산어촌 주민들의 공간 소비 행태의 특징과

마을 및 중심지 등의 기능 유지 정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마을 패널 조사 자료가 누적된 후에는 시계열별로 더욱 촘촘하게 미세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며, 연도별로 선정한 심화 주제에 대한 마을 실태 분석 및 심층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태 분석과 더불어 필요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마을 패널 조사 사업의 1차년도에 해당하는 해로 이 보고서 이외에 마을 패널 조사 자료집이 별도로 제공된다. 자료집을 통해 조사 내용 및 분석에 활용된 주요 기초 데이터 등이 제시된다.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 방법은 크게 선행연구 검토, 패널 구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패널 마을 대표자 대상 조사, 마을 패널 내의 거주 주민 대상 조사, 패널 마을 방문 사례 조사 등이다. 연속적 사업으로 추진하며 협동연구 형태로 추진한다.

첫째, 선행연구는 비교적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변화를 보고자 하였던 연구들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내 패널 조사들을 다수 검토하여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를 설계하는 데 참고하였다. 일본 집락 조사 및 과소화 마을 대상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패널 조사를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얻는 한편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구조화된 조사표를 토대로 한 마을 대표 조사 및 마을 주민 조사를 수행하였다. 마을 대표 조사는 주로 마을 이장을 통하여 마을의 기초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인구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선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필요한 경우, 패널 마을의 약 10% 정도에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마을의 현안에 대해 인터뷰 하는 한편 물리적 변화 등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보

완하였다. 마을 주민 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102개의 모든 마을당 최소 10가구 이상의 샘플을 확보하되 인구수에 비례로 약 20% 규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확한 층화추출은 아니나, 연령대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 다문화가구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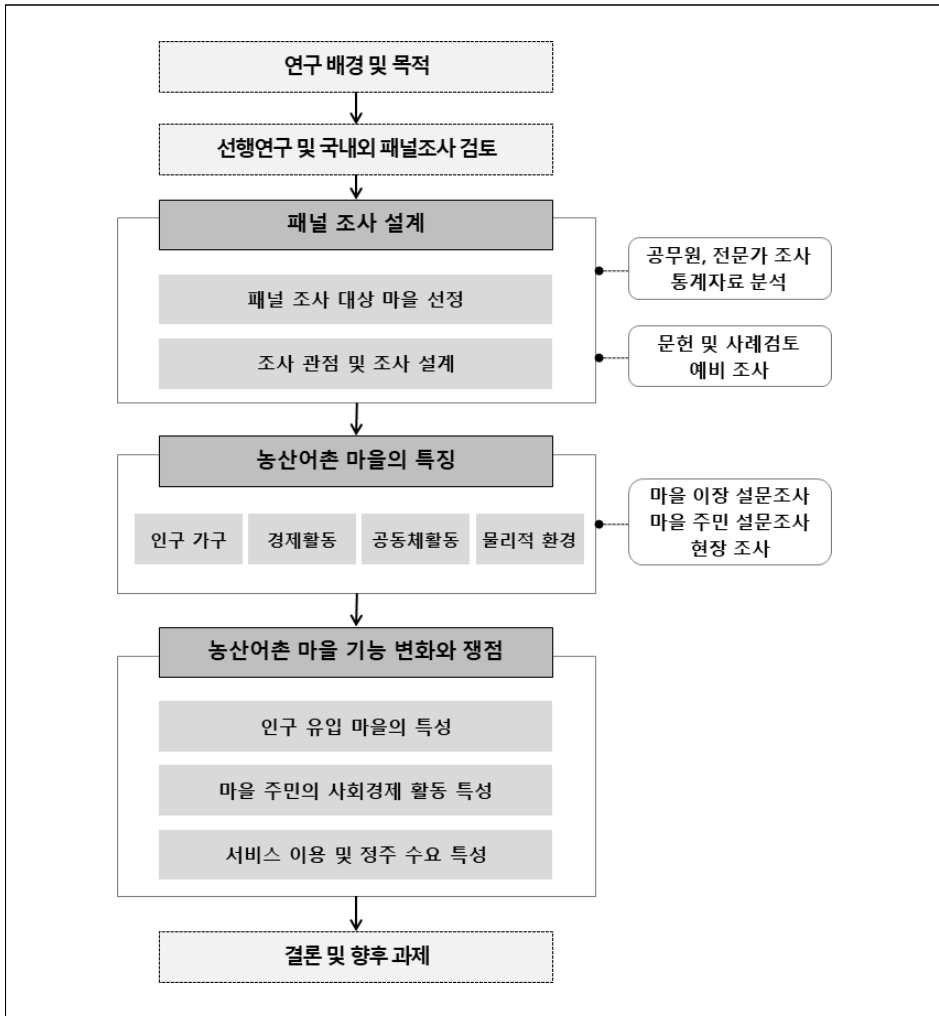
셋째, 동일 패널을 대상으로 연속적 조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시계열로 농산어촌 마을 변화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고찰을 할 수 있도록 연속 연구 사업으로 추진한다. 패널로 선정된 마을의 연도별 정주 여건 변화 상황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연도별 심층연구 주제에 대한 조사·분석도 병행 추진한다.

넷째, 대내외 협업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패널 마을 선정 시부터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패널 조사 사업을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위상을 정립한다.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사례 마을이 속한 지자체(시·군, 읍·면)와 행정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끝으로, 학회 및 도 연구원 등과도 협동연구 체제를 갖추어 추진한다. 매 연도별로 도 연구원, 유관 학회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별 일부 마을 패널에 대한 조사 분담 및 심층연구 주제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의뢰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확보한다.⁴⁾

4) 원내·외 관련 전문가들로 '농산어촌 마을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해 연구에 대한 대외적 관심 제고,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올해는 이를 운영하지 못하였다. 차년도부터는 이를 병행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패널 조사의 의의

선행연구 검토 및 패널 조사의 의의

1. 선행연구 검토

1.1. 농산어촌 마을 관련 연구 동향

농산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0년대 이전 산업화 시기와 2000년대 이후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200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농산어촌 마을의 특징적 변화에 대해 영농 활동에 바탕을 둔 전통 농산어촌 사회의 해체 및 마을의 공동체성 약화 현상을 주로 논의하였다.

근대화·도시화에 따른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최양부·오내원(1986)의 연구와⁵⁾ 농촌진흥청(2004)의 연구가⁶⁾ 대표적이다. 최양부·오내원(1986)의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마을 4곳을 사회·경제·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농업 위상의 축소와 소농 해체, 전통 사회조직 붕괴 등을 진단하였다. 또한 산업화 시기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동, 사회조직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5) 최양부·오내원. 1986.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6)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편). 2004. 『농촌생활 장기변화 연구: 대구·낙동강 권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1993~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양부(1985)는 과거 마을 차원의 공동 영농활동이 개별 농가 단위 영농으로 변화되면서 농업 기반의 자족적 생활양식은 해체되었다고 진단하였고, 정명채 외(1995)는 농산어촌 마을에서 탈농과 비농가의 증가로 인해 농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윤원근·이상문(1995)은 농업 기반 마을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마을금고와 수리계, 쌀계 등 상호부조형 경제조직이 상당수 퇴조되었음을 밝혀내었고, 김일철(1999)은 과거 대동계, 향약 등 마을 전통조직이 마을회의와 마을총회 등 근대 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혈연성을 탈피하여 학연 등 사회적 이해가 증시되는 조직으로 변화함에 주목하였다.

〈참고〉 산업화 시기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오내원 외 2001)

- 4개 사례 마을 모두 인구 가구가 감소하였고, 특히 생활여건이 불리한 산간마을의 가구 감소가 가장 크다.
- 가구 감소보다 인구 감소가 더 심한 핵가족화 경향이 나타나며, 20대를 중심으로 이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비농가 및 겸업농이 증가하고 농촌지역의 혼주화가 진행되는 한편,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기계화가 확대되고 있다.
- 전체적 마을의 사회집단 수가 감소하였고, 혈연집단이나 지역집단의 활동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 마을 내 공동공간의 이용이 줄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개인 주거공간의 기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근교와 평야마을은 주택의 신개축이 늘어나는 반면,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공·폐가가 다수 증가하고 있다.
- 도로 포장과 교통수단의 개선으로 교육 및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요 도로 중심으로 마을 공간이 재편되고 있다.
- 유교적인 권위 의식과 가족주의적 성향은 점차 감소하고, 마을 공동체로서 소속감과 집단 의식도 약화되면서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 마을 유지 등 토착적 지도력 중심에서 이장과 같은 공식적 지도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까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농산어촌 마을 유형을 비교·분석하는 실증 연구는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 과소화, 정주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 특정 이슈에 대응한 실천적 활동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조영재 외(2015)는 일본의 한계촌락 대응 정책을 참조하여, 한계마을에 대해 복수 마을을 연계한 커뮤니티형 재편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였고, 양병찬(2008)은 흥동면의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통해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정기석(2017)은 인적, 물적, 조직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 발전 방안 및 사회적 자본 플랫폼 구축을 농촌공동체 재생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을정비의 세부적인 수법이나 물리적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되는 연구들도 상당수 추진된 바 있다. 마을에 대한 정부 투자가 집중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정부 사업이 추진되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 계획 수립 역시 마을 개발에 관련한 논의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2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 추진 마을로 선정된 바 있는 강원도 양양군 송촌리와 충북 보은군 구병리에 대한 마을 단위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였는데(박시현 외 2002; 송미령 외 2002), 이 이후로 이러한 마을 단위 개발 계획이 정부의 마을 단위 사업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특정 마을의 자연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수요를 조사하여 마을 개발의 테마를 설정해 적합한 시설,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을의 물리적 정비나 개발사업 계획과 조금 다른 축으로 접근한 마을 연구로는 농촌 개발에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마을을 대상으로 실증한 송미령·성주인(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마을 개발사업이 투입된 20개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와 주민 참여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내생적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와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장기간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로는 5개년 동안 진행된 성주인 외(2015; 2016; 2018; 2019)와 박시현 외(2017)가 있다. 성주인 외(2019)는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20개 사례 마을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최근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이끈 요인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거와 달리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면서 활성화되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 마을의 기능과 조직, 물리적 환경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밝히내었다.

한편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충남, 전북 등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농산어촌 마을 과소화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둔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임승현 외(2019)는 전라북도의 농촌 과소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 단위 기초통계를 공간 DB로 구축하고, 과소화 지표 및 소멸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여 소멸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영재·윤정미(2018)는 과소지역 농촌 마을의 공간적 재편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사례 고찰을 토대로 충남지역 과소 마을의 재편 방향으로 복수마을을 연계한 광역화된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하였다.

〈참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최근 농산어촌 마을의 주요 변화 (성주인 외 2019)

- 귀농·귀촌 유입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는 마을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한다.
- 교통 발달 등에 따라 도시 접근성이 농산어촌 마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어 경관이 우수하고 비농업 경제활동 여건이 나은 원격지역에서 인구 증가 마을이 나타난다. 반면, 농업 의존도가 높은 일반 농촌 마을들 다수는 인구 과소화가 계속 심화된다.
- 귀농·귀촌 유입뿐 아니라 도시 주민의 2지역 거주 또는 기존 주민의 일시적인 마을 거주 현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주 양상이 농산어촌 마을에서 나타나면서 마을의 구성원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 전통적 사회·경제 조직들이 수행하던 공동체 기능은 대부분 마을에서 쇠퇴한다.
- 마을에서 주로 두드러지는 조직 활동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 또는 정부 정책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 일부 마을들의 주민 조직 활동이다.
- 상당수 기존 마을들은 공·폐가 증가로 정주환경이 저하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마을 외곽 분산 개발이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가 높은 근교 농촌 지역에서 난개발 및 혼주화가 두드러지는 등 지역 유형에 따라 마을의 물리적 환경 변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마을’과 지리적 영역 및 구성·운영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집락’에 관한 접근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0년대 과소집락과 한계집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2000년대부터 농촌집락 및 과소집락에 대한 농업집락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과 함께, 집락의 실태, 기능 변화, 소멸여부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계집락과 관련한 논의가 2000년 중반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주로 재생과 재편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조영재 외 2018). 이때 재생은 열악한 집락의 기능을 일정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재편은 마을의 기능이나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재편은 행정구역의 재편, 초등학교 통학군과 자치회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집락의 기능적 재편, 마을의 집단이주,⁷⁾ 시설정비, 공간 및 시설의 집약화 등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재편을 포함한다.

일본은 농산어촌 집락의 한계화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집락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생활권 재편을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집락재생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계 집락의 문제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계 집락 투자의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참고〉 일본의 집락조사와 주요 내용⁸⁾

- 2005 한계집락의 집락기능 실태 등에 관한 조사(농촌개발위원회)
 - 전국 14만여 농업 집락 조사
 - 조사대상 전체 시정촌 57,016개 집락 중 향후 10년 이내에 소멸이 예상되는 집락은 218개,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무거주화가 진행된 집락은 68개로 조사됨.
 - 총 농가호수가 9세대 이하이면서 비농가를 포함한 총 호수도 9호 이하인 집락은 4,849개(약 3.4%)로 조사됨.

7) 집단이전은 댐 건설 등 공공공사와 재해로 인한 집락의 집단이전을 의미한다.

8) 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위탁연구인 조영재. 2020. “일본 한계마을(집락) 정책 및 집락조사 동향.” 내용 중 발췌하였다.

- 2006 국토형성계획책정을 위한 집락 상황에 관한 현황파악 조사(국토교통성·총무성)
 - 이전 조사(과소지역 등 집락재편성의 새로운 방법에 관한 조사, 2000)로부터 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당시 '10년 이내 소멸'로 예상된 집락 중 실제로 소멸된 집락은 15% 정도로 예상보다 소멸되지 않음.
 - 과소지역 등의 집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는 60% 이상의 시정촌에서 경작포기지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외에 빈집의 증가, 산림의 황폐화, 쓰레기 불법투기의 증가, 야생동물 피해 및 병충해 발생 등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집락기능의 유지가 곤란한 집락에 대한 시정촌의 집락대책사업 내용으로는 생활기반의 유지나 주민생활 지원에 관한 시책이 가장 많음.
- 2010 과소지역 등 집락 상황에 관한 현황파악 조사(총무성)
 - 2010년 기준 과소지역의 집락수는 총 64,954개이며, 인구·세대수는 전국의 약 90% 점유
 -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주변의 기초집락 간의 상호보완 또는 중심·중추집락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재 집락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집락기능의 유지·재편성을 고려하고 있는 시정촌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과소지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70% 이상의 시정촌에서 일자리 감소와 휴경지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빈집의 증가, 야생동물 및 병해충의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2015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집락 현황파악 조사(국토 교통성)
 - 조건불리지역의 집락은 총 75,662개 집락이고,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인구는 15,383명, 세대수는 6,378,938명임.
 - 관공서까지의 거리가 5km 미만의 집락의 경우 31.1%(23,551개 집락)로 가장 많고, 10km 미만의 집락은 전체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집락의 기능 유지와 관련하여 전체의 80.1%(60,643개) 집락에서 기능유지가 양호하고, 17.6%(13,333개) 집락에서 기능저하 또는 기능유지가 곤란함.
- 2019 과소지역 집락 상황에 관한 현황파악 조사(총무성)
 - 과소지역의 집락수는 63,237개 집락으로 집락인구는 10,357,584명, 과소지역 1개 집락당 평균인구는 약 164명임.
 - 소멸(무인화)이 우려되는 과소지역 집락은 당분간 존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집락에 비해 대부분 생활서비스 기능의 입지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상점, 마트의 입지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낮음.

1.2. 기존 연구의 한계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일회적, 단기적 연구만으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농산어촌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 속에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관찰이 바탕이 될 때 변화의 방향, 요인, 대응 등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대다수 연구들은 성주인 외(2019)를 제외하고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일회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농산어촌 마을의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변화를 진단하기에는 미흡하다.

농산어촌 마을 연구가 일회적·단기적 연구에 그치다보니 연구 주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마을의 변화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제한된 시간과 주제에 따라 어느 한 측면만을 살펴봄으로써 농산어촌 정책에 내놓을 수 있는 시사점도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마을의 과소화, 고령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지배적이라 향후 농산어촌 정책, 마을 정책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연구 기간 및 예산의 한계로 다수의 마을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장기적 변화를 고찰한 연구들은 연간 4~20여 개 마을 조사에 그치고 있어 전국 농산어촌의 다양한 마을을 대표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마을을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일반적인 변화 경향인지, 특정한 지역의 변화 모습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마을의 조사 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식통계는 5년 단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가 유일하나, 정책수립 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자료 특성상 제약이 많다. 현재 시행되는 지역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질문지로 행정조사 및 마을 이장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형적인 현황 파악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방식 등 내부적 변화를 보는 것이 어려우며, 이장이 마을의 실태를 정확히 모르거나 마을이 아닌 본인 기준으로 응답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지역조사는 마을단위 인구·가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농산어촌 마을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⁹⁾

마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정책 기획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일회적인 연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책과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정 정책사업 개선을 위해 수행된 연구의 경우도 일회적이고 단편적이다보니 그 결과를 확정하여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농촌어메니티자원(농촌다움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1,203개 읍·면에 36만여 건의 자원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웹서비스 제공, 농촌개발 연구, 정책수립, 컨설팅, 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물리적 자원 파악에 그친데다 데이터 품질 관리, 재조사,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 활용이 미비하였다.

1.3. 마을 패널 조사의 필요성

기존 농산어촌 마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보다 많은 수의 마을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패널 조사 방식의 연구를 통해 하나의 대상이 변화하는 궤적을 탐구해 가는 방식이 유용하다.

먼저 연구 기간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친 패널 조사를 통해 시간적으로 변모하는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주제는 마을의 다양한 변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정책에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 규모 면에서는 농산어촌 마을 변화를 진단하여 유형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사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례 마을을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방법 측면에서는 농산어촌 마을 변화와 주민들의

9) 성주인 외(2019)는 시·군 통계연보를 통해 구득 가능한 1만여 개 마을의 인구·가구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제한적 분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생활방식과 삶의 변화를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장기간의 조사 결과를 누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 발표와 정책 개발을 유도하여 마을 패널 조사 자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심층연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패널 조사 방식으로 다양한 농산어촌 마을을 장기 관찰하되, 마을의 어떠한 측면을 살펴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중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나, 어떤 특징을 가진 마을이 어떻게 다양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마을의 인구 구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물리적 변화까지를 관찰해야 하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아가 마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그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마을의 피상적 변화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구성, 그들의 삶의 질과 생활방식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마을 이외에 농산어촌 중심지 등의 소비 방식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살펴보아야 농산어촌 정책에서 마을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산어촌 마을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국내외 패널 조사 의의와 특징

2.1. 패널 조사의 의의와 사례

패널 조사는 장기간 동일 표본을 반복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 방법을 의미한다. 패널 조사는 조사 단위 간 차이와 조사 단위 내에서의 동향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 조사나 시계열 조사에 비해 강점을 가

진다. 조사 단위 대상의 보다 복잡한 행동적 가설을 검증할 수 있고, 비관찰 혹은 생략된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동일 표본을 장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정부 시책, 사회현상 등으로 인한 순 변화(net change)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설정된 조사 목표와 단기적으로 소요되는 자원의 차이와 표본 집단의 변화로 인해 조사의 계획과 관리가 어렵다. 동일한 표본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연구 예산 및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설계가 한번 이루어지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표본 추출 및 설문 구성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패널을 통해 얻는 정보의 유연성이 적다. 동일한 패널에 대해 동일한 항목을 반복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초기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표본 이탈로 장기간 동일 표본을 유지하기 어렵고, 무응답이 있는 경우 동일 표본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본 관리 노력이 중요하며 표본 탈락 시 표본 확대나 개편이 필요하다.

패널 조사는 조사 단위, 조사 범위, 운영 패널의 수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이 구분된다. 조사 단위에 따라 개인패널, 가구패널, 사업체패널, 지역패널 등으로 구분되고, 조사 범위에 따라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일반형)하거나, 특정 연령대(코호트¹⁰⁾)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를 조사한다. 패널의 수에 따라서는 단일 패널, 복수 패널로 구분되는데, 코호트 패널의 경우 복수의 패널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10) 코호트는 고대 로마 군대의 한 단위를 가리키던 단어로,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한다.

〈표 2-1〉 조사 범위에 따른 패널 종류

구분	패널명
표본 프레임	전국단위 센서스, 학생집단, 특정지역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표본선택방법	대표패널: 모집단 특성을 반영
	코호트 패널: 동일한 속성(연령, 특정 경험 등)을 공유하는 집단
	지역패널: 특정지역에 사는 거주자

자료: 저자 작성.

패널 조사는 교육, 노동, 여성, 의료 등 주로 사회 분야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존 패널 조사는 특정 수요 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단위 패널은 그 사례가 많지 않은데, 마을 단위 패널 조사로는 일본의 농업집락조사가 유일하며, 지역 단위 패널 조사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3종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는 표본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유사 패널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표 2-2〉 국내의 패널 조사 사례

분류	패널명
가계/복지/가족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정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교육/노동	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패널,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아동/청소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패널
보건/의료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보험 표본연구DB,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기업/산업	사업체패널조사, 인적자본기업패널,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농식품 소비자패널 조사

자료: 저자 작성.

〈참고〉 지역 단위 패널 조사

○ 일본 농업집락조사(일본 농림수산성)

- 전국의 약 11만 개 농업집락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집락활동, 농업분야의 공동활동, 집락 생활환경 등을 조사한다.
- 농업에 의해 형성된 농촌집락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집락은 자연발생적으로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지역사회로 지연적, 혈연적 관계 및 각종 집단, 사회관계를 형성해 온 사회생활의 기초적 단위를 의미한다.
- 총 10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주기는 5년으로 계속되고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영유아, 아동, 가임기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기반 및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조사하였다.
- 조사 표본은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해 운영한다. 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구분하고,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서울 정릉3동, 충주 소태면, 익산 영동2동).
-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당 300가구, 총 900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하며 개인조사는 그 가구 내에 거주하는 미혼자(20~49세), 기혼여성(15~49세), 중고령자(50세 이상)를 조사하였다.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조사하였다.

자료: 김용렬·김경덕(2008); 오영희 외(2015).

2.2. 국내외 패널 조사의 시사점

패널 표본의 선정 방법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사례로 살펴본 지역패널 조사의 경우는 엄밀하게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조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지역별 사례조사 형태를 보인다.

농산어촌 마을 패널 표본은 한국의 농산어촌 마을의 특징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마을패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별, 마을 유형별, 이슈별로 마을패널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패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농산어촌 마을패널의 경우는 엄밀하게는 지역패널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 살고 있는 주민 조사가 병행되도록 설

제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마을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삶의 질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산어촌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원격 마을 등과 같이 특정한 성격을 갖는 마을은 과대 표집하여 조사·분석하도록 한다.

〈표 2-3〉 패널 표본 추출 방법

패널 종류	패널 표본 추출 방법
가구 패널	인구총조사 23만 개 조사구 중 층화 확률 비례 또는 확률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구 추출 추출된 조사구에서 조사목적에 맞는 가구 추출 특정소수집단(저소득 층, 장애인 가구 등)은 실제 분포보다 과대 표집
개인 패널	추출된 가구에서 조사 목적에 맞는 개인 패널 선정 타 조사자료(고용구조조사, 의료보험통계, 장애인 등록 명부 등)에서 조사목적에 맞는 샘플을 층화확률비례 혹은 무작위 추출
지역 패널	시도별 지역배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과 지자체의 규모, 지속적인 조사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정 선정된 지자체 읍면동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패널 표본 지역 선정

자료: 저자 작성.

패널 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유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탈락 패널 규모가 유의미한 경우,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표본을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재정패널조사와 같이 매년 이탈 규모만큼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 패널 규모를 유지할 수 있고,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이탈한 규모의 표본을 일괄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표 2-4〉 이탈 패널 처리 방법

패널명	이탈 패널 처리 방법
재정패널조사	- 매년 이탈한 표본 만큼 추가 추출하여 전체 패널 규모 유지
한국복지패널조사	- 7차 조사(2012년)에서 약 1,800가구를 추가하여 1차 조사 당시의 패널 규모를 유지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2013년 5차 본조사(2005년 조사 시작) 때 50~59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1,201가구 추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2014년 기본4차 조사(2006년 조사 시작) 때 신규패널 1,005명 추가
한국노동패널조사	- 2009년 1,414가구를 추가 표본 추출(총 5,001가구)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 패널이 타 읍면동으로 이주한 경우, 그 거처에서 이사 온 가구를 신규 조사가구로 투입하여 조사지역별 300가구 표본수 유지

자료: 저자 작성.

농산어촌 마을 패널의 경우는 표본 탈락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탈락이 있을 경우 유사한 특징을 반영하는 신규 표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을 주민 조사의 경우 표본 탈락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본 조사는 주민 패널을 고정하지 않고, 주민 조사 시 마을 내 거주자 중 20~30% 규모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민 표본의 변화에 따른 조사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패널 조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1~2년을 주기로 조사하지만, 복수 패널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표본 탈락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표본유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지역추적조사의 경우, 기본조사는 매년, 부가조사와 심층조사는 격년 주기로 조사한다.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는 마을 기초조사와 부가(심층)조사로 분리하고, 기초조사는 매년, 부가(심층)조사는 매년 다른 주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제3장

마을 패널 조사 설계

마을 패널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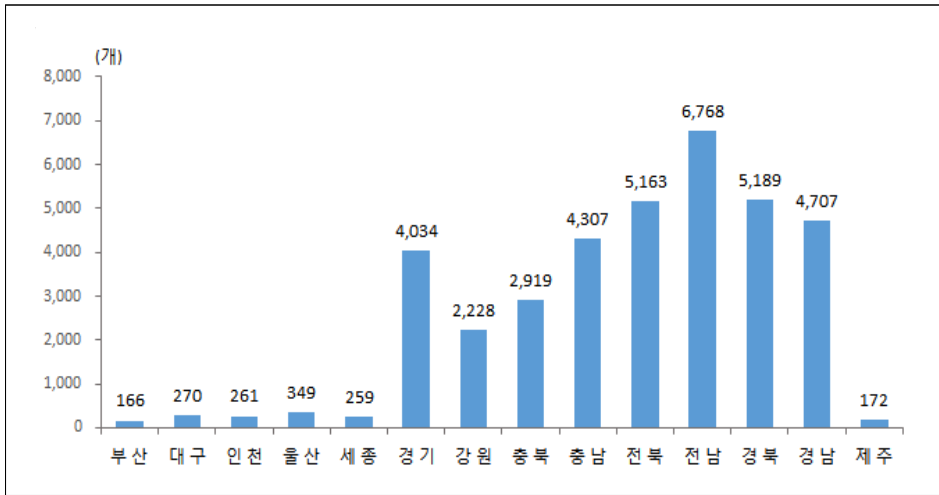
1. 농산어촌 마을의 일반 현황

1.1. 전국 농산어촌 마을의 현황

패널 마을 선정을 위해 행정리 단위 공식 통계자료인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토대로 농산어촌 마을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5년 기준 전국의 농산어촌 마을은 36,792개로 2010년 기준 36,498개보다 294개(0.8%)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동안 읍부에서는 486개 마을이 증가하여 8,698개 마을이 있으며 면부는 192개 감소한 28,094개의 마을이 분포한다. 비율로는 읍부 23.6%, 면부 76.4%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전남에 있는 마을이 6,768개(18.4%)로 가장 많으며 경북 5,189개(14.1%), 전북 5,163개(14.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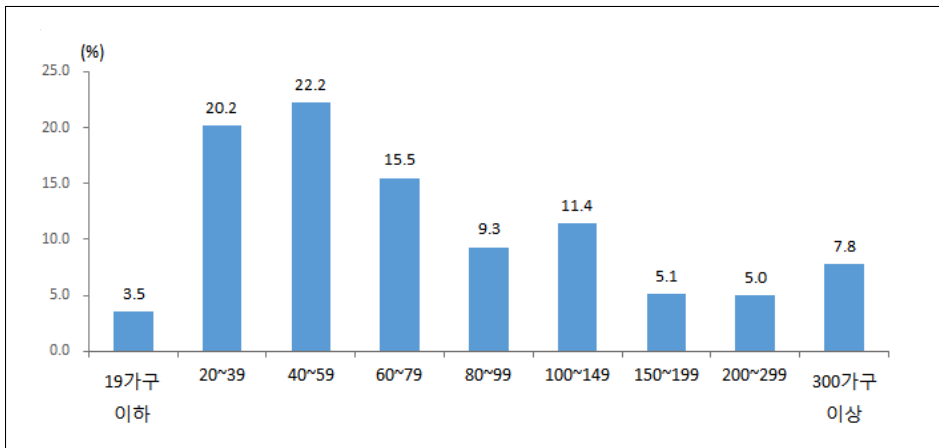
가구수를 기준으로 농산어촌 마을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5년 마을 가구 규모가 40~59호 되는 마을이 22.2%로 가장 많으며, 20~39호(20.2%), 60~79호(15.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2>. 2015년 중위가구수는 64호로 2010년의 49호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3-1〉 시·도별 농산어촌 마을 현황



자료: 통계청(2016).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부문 집계 결과.

〈그림 3-2〉 가구 규모별 마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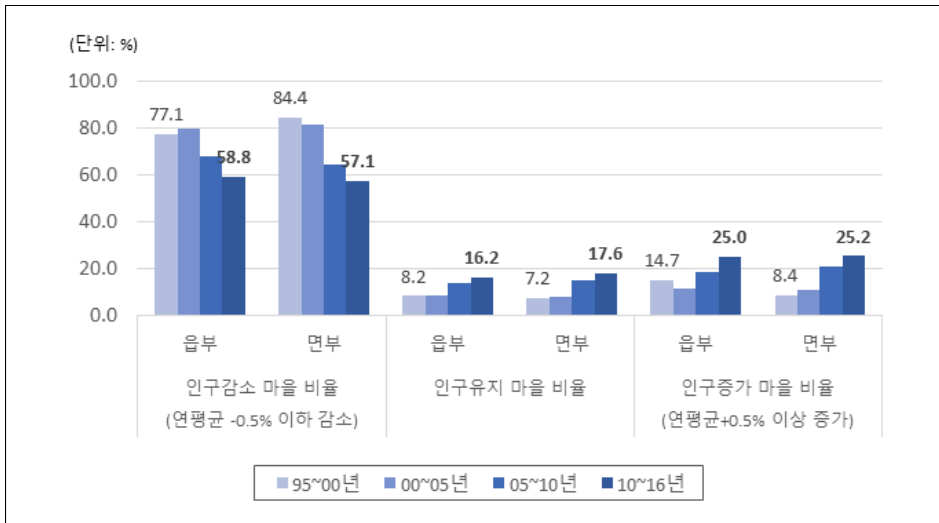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부문 집계 결과.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로 분석 가능한 전국 7천여 개 행정리의 인구수 변화를 시기별로 읍부, 면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가 연평균 -0.5% 이하로 감소한 ‘인구 감소 마을’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으나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2010~2016년 기준 읍부의 58.8%, 면부의

57.1% 마을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

다행히 최근일수록 인구 감소 마을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마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95년부터 2000년 사이 인구 증가 마을은 읍부 14.7%, 면부 8.4%에 불과했으나,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25.0%, 25.2%로 각각 1.7배, 3배가량 증가하였다<그림 3-3>.

〈그림 3-3〉 인구 증감 마을 비율 변화



주: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7,288개 행정리 원자료 분석 결과.

한편, 농산어촌 마을은 인구 특성 이외에도 지대 및 지리적 위치, 산업 특성 등 마을의 고유 특성별로 세분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산촌은 「산림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되는데 총 109개 시·군, 466개 읍·면을 산촌으로 정의하고 있다(2014년 기준). 어촌은 별도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어촌계 조직이 구성된 읍·면을 어촌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총 59개 시·군, 284개 읍·면, 1,780개 마을을 어촌으로 볼 수 있다(2018년 기준). 다만, 산촌이나 어촌이 명확히 농촌과 분리된다기보다는 농촌이면서 산촌이고, 농촌이면서 어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최양부·오내원(1986) 등과 같이 200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마

을을 주로 지대(地帶)에 따라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로 구분하였으며, 최근에는 대도시 및 소재지 접근성에 따라 근교, 일반, 원격 마을이나 소재지권 또는 배후 마을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밖에 해당 마을만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도농교류 마을, 귀농·귀촌 마을, 정부지원사업 추진마을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한국 농산어촌 마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패널 마을 선정 시 상기와 같은 유형을 골고루 선정하고자 하였다.

2. 패널 조사 대상 마을 선정

2.1.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대상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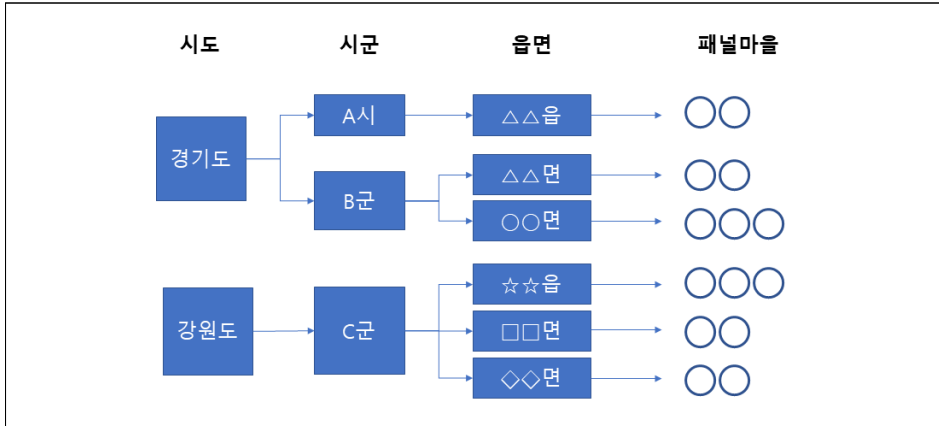
패널 마을을 선정하는 데 전국적으로 다양한 마을이 포함되도록 도당 10여 개 마을을 할당¹¹⁾하여 100여 개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는 것을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 연구원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을 통해 도별로 2배수 마을을 후보군(약 200개 마을)으로 추천받았고, 이 중 102개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도별 후보 패널 마을 선정은 시·군, 읍·면, 행정리 순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전문가 협의 및 자문을 거쳐 해당 도의 특성을 대표하는 3~4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한 시·군 내에서 2~3개 이내 읍·면을 선정하고, 해당 읍·면별로 특징적인 마을을 2~3개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그림 3-4>.

〈참고〉 패널 마을 선정 산식

○ 도별 2~3개 시·군 / 시·군별 1~2개 읍·면 / 읍·면별 3개 내외 마을
: 2.5 (시·군) × 1.5 (읍·면) × 3 (마을) × 9 (도) = 101.25

11) 단, 제주도는 도의 규모를 고려해 5개 전후의 마을을 할당하였다.

〈그림 3-4〉 패널 대상 마을 선정 절차



자료: 저자 작성.

구체적인 시·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도시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시·군 유형을 근교, 일반, 원격 농산어촌으로 구분하였다<표 3-1>. 이때 일률적으로 해당 유형별 시·군을 1개소씩 선정하기 보다는 각 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시·군을 선별하였다. 전국적인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분포 비율(대략 1 : 1.5)을 반영하되, 도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하였다.

타 지역과 구별되는 각 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다음 기준들을 고려하였다. ① 산간지역이 많은 강원, 경북은 산촌 읍·면 구성 비율이 높은 시·군을 포함한다. ② 도서·어촌지역이 다수 분포하는 전남, 경남은 어촌계가 다수 조직되어 있는 시·군을 포함한다. ③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교외화 현상(난개발, 도시민 전원주거지역 형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군을 선정한다. ④ 인구 과소화가 심화되는 지역(전남북, 경북 등)에서는 과소화 마을이 다수 분포하는 시·군을 포함한다. ⑤ 경기도 및 강원도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을 포함한다.

이후 조사 대상 읍·면 선정 시에도 중심지 계층, 생활권 등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군청 소재지 및 1계층 중심지, 거점 기능 면, 일반 면 등을 고려하였고, 시·군 특성에 따라 산촌 읍·면, 어촌 읍·면 등을 포함하였다.

〈표 3-1〉 농촌 지자체(시·군) 유형 분류 기준

지역 유형	분류 기준	개수
근교	- 대도시 30분권 (단, 수도권은 교통시간을 고려, 40분권으로 설정) * 대도시는 특·광역시 및 인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기준으로 함(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분류되지만, 대도시에서는 제외) - 자체 인구 규모가 50만 명 이상인 시·군	29
일반	- 근교 및 원격지에 해당하는 않는 도농복합시 및 군	72
원격	- 지역거점도시(인구 약 20만 명 기준) 45분권 외 권역에 속한 시·군 * 단, 지역거점도시 45분권 밖에 있는 시·군이라도 자체 인구 10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일반 농산어촌으로 분류 (45분 기준은 각 시·군별로 거점도시 도달 시간 평균치에 해당) - 행정구역 내에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 읍·면이 다수 포함된 시·군	38

주 1) 농산어촌 지역: 광역시 내 군, 도농통합시 포함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2)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구역 지위가 다르지만, 편의상 도농통합시로 분류.

3) 시간거리 측정 기준점은 편의상 각 지자체별 시·군청으로 설정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대상 패널 마을은 행정리 단위로 하며,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마을들이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참고〉 패널 마을 선정 시 고려 요소

- (경제 여건) 전통적 농업 기반 마을 / 경제활동 다각화 마을 등
- (인구 특성) 기존 주민 위주 마을(동족 마을 포함) / 귀농인 또는 귀촌인 거주 마을 / 도시 주변 혼주화 마을 등
- (공동체 활동)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동이 활발(또는 침체)한 마을 / 정부 지원 사업 추진 마을 등
- (지리적 특성) 근교 / 평야 / 산간 / 도서 / 어촌 마을 등
- (마을 위치) 소재지 마을 / 일반 마을 / 원격 마을 등
- (기타) 각 도별, 시·군별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마을

2.2. 사례 마을 선정 결과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대상 지자체들은 아래 <표 3-2>와 같으며 일반 현황은 <표 3-3>에 제시하였다. 전국 29개 시·군, 57개 읍·면에서 102개 패널 조사 대상 마을을 선정하였다. 시·군 유형별로는 근교·일반·원격 농산어촌이 각각 8개, 12개, 9개 시·군으로 구성되며, 조사 대상 마을은 유형별로 각각 28개, 41개, 33개 마을이 분포한다. <그림 3-5>에서는 전국적인 마을 패널 분포 현황을 지도상으로 표현하였다. 자세한 패널 마을 선정 목록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표 3-2> 마을 패널 조사 대상 지자체 현황

시·도	대상 지역	유형별 대상 마을 선정 내역		
		근교	일반	원격
경기	시·군 4 / 읍·면 7	양평(단월, 서종)	이천(모가) 포천(내촌, 관인)	연천(왕징, 신서)
강원	시·군 4 / 읍·면 7	-	양양(현북, 현남, 강현) 홍천(서면, 내면) 화천(상서)	양구(방산)
충북	시·군 3 / 읍·면 8	청주(강내, 북이, 옥산)	진천(초평, 이월)	단양(매포, 적성, 가곡)
충남	시·군 3 / 읍·면 6	천안(목천, 입장)	논산(채운, 상월)	태안(안면, 고남)
전북	시·군 3 / 읍·면 6	완주(봉동, 비봉)	김제(만경, 금구)	장수(장수, 산서)
전남	시·군 4 / 읍·면 8	나주(남평, 봉황) 화순(화순, 한천)	곡성(곡성, 고달)	완도(신지, 약산)
경북	시·군 3 / 읍·면 5	칠곡(지천)	의성(안계, 안사)	봉화(봉화, 소천)
경남	시·군 3 / 읍·면 6	김해(대동, 생림)	-	남해(남면, 미조) 함양(휴천, 안의)
제주	시·군 2 / 읍·면 4	-	제주(구좌, 한경) 서귀포(남원, 안덕)	-
전국	시·군 29 / 읍·면 57	8개 시·군 / 28개 마을	12개 시·군 / 41개 마을	9개 시·군 / 33개 마을

주: 괄호 안은 읍·면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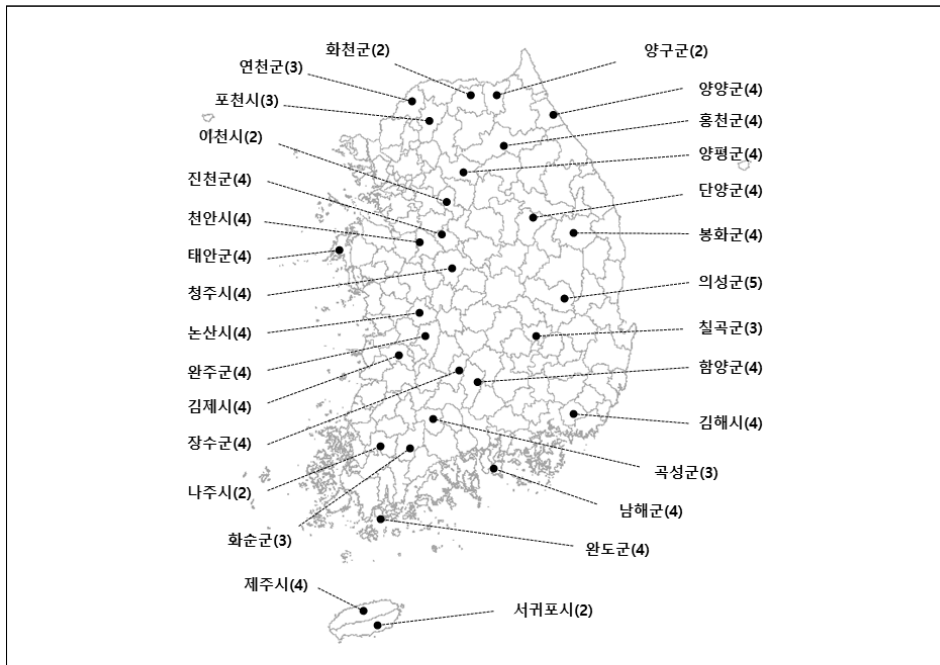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표 3-3〉 패널 마을의 일반 현황

구 분		개수(개)	비율(%)
총합계		102	100.0
시·군 구분	도농복합시	33	32.4
	군	69	67.6
읍·면 구분	읍부	19	18.6
	면부	83	81.4
지대 특성	평야지	29	28.4
	중간지	35	34.3
	산간지(산촌)	24	23.5
	도서·여촌	14	13.7
읍·면소재지 접근성	소재지 마을	17	16.7
	일반 마을	58	56.9
	원격 마을(15분초과)	27	26.5
산업 특성	농림어업 중심	56	54.9
	경제다각화 발달(농외취업, 가공, 관광, 상업 등)	46	45.1
정부지원 여부	권역사업 등 다수 수행	21	20.6
	마을사업 일부 수행	38	37.3
	지원받지 않음	33	32.4
	모름	10	9.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5〉 패널 대상 마을 분포 현황



자료: 저자 작성.

3. 조사 관점 및 조사 설계

3.1. 마을을 보는 관점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마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을 갖고 조사 항목을 설계하였다. 첫째, 마을의 장래 지속가능성 및 구체적인 미래 모습이다. 현재 농산어촌 마을의 과소화·고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미래 농산어촌 마을은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분화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에 거주하는 주요 구성원의 현황과 변화 양상이다. 본 조사를 통해 농산어촌 마을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그들이 바라보는 마을의 범주는 어떠한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셋째,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활동(Social Network)이다. 마을 기능의 변화 측면에서 농산어촌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농림어업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마을의 물리적인 측면, 즉 주거 및 생활환경과 마을을 포함한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체계를 살펴본다. 중심지와 마을 간의 관계, 실질 생활권의 범주와 주민의 활동 종류별 공간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농촌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마을 자원의 유형과 분포와 농산어촌 마을 내부·외부의 정책 수요 등을 검토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3.2. 조사 항목 설계

조사 항목 설계에 앞서 기존 선행연구와 공식통계상의 조사 항목을 검토하였다. 2000년 이전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조사는 주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마을과 주민 생활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양부·오내원(1986)에서는 개별 가구의 전입·전출 변화, 마을 내 도로 교통 및 농지의 변화 등 이촌향도에 따른 마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주민 의식, 생활환경, 농가비율 등 비교적 변화가 적은 항목은 3년 조사를, 가구 구성, 경제규모, 자산 등 변화 요인과 결과를 추적해야 하는 항목은 1년 주기로 조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농촌진흥청의 연구(2004)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상 변화를 추적해서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선행연구에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에 덧붙여 귀농·귀촌 증가로 인한 인구 구성 변화,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마을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주인 외(2015; 2016; 2018; 2019), 박시현 외(2017)의 연구에서는 마을 내 사회·경제 조직과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두고 마을 단위 정주 기능 변화를 진단하였다. 특히 공·폐가 및 2지역 거주 증가, 생활권 및 공동체 범위 확대 등 최근 농산어촌 마을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종합하면 과거에는 소수 마을의 개별 가구에 집중하여 매우 미시적인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특성의 비교적 다수 마을을 대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하여 이장 및 대표자에 대한 기초 조사와 개별 가구 대상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마을의 범주가 20여 개의 마을이다 보니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매년 기본 조사가 누적되지 않다보니 현상은 발견했으나 그 인과성이나 전망 등에 대해서는 분석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표 3-4〉 선행연구의 마을 조사항목

구분	조사 항목
최양부·오내원 (1986)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① 자연조건: 지형 및 지세, 기후, 토양 ② 마을의 역사: 마을의 형성시기와 유래, 지명의 유래, 마을의 주요 역사 ③ 인구 및 가구: 가구수, 농가/비농가, 인구수, 인구구성, 동족구성, 가구 간 인척관계, 전출가구(이유/지역/직업,소유토지), 전입가구(전입전 직업/지역, 전입 시 경지소유), 과거 전출입 추이 ④ 도로 및 교통: 주요 도시와의 연결도로, 대중교통수단, 마을 출입로, 전기, TV, 전화보유 ⑤ 농업기반: 경지정리, 수리시설, 야산개발, 농로정비 ⑥ 인문지도 작성: 주택, 도로, 경지, 농로 등 지도 작성 ⑦ 생활권: 학구, 의료권, 시장권 ⑧ 인접주요도시: 인구증감, 산업구조, 취업 가능한 공간 ⑨ 조직: 사회조직의 형성과 기능, 마을 공동재산 및 기금, 마을금고, 공동행사(세시풍속), 마을 규약 및 제재, 품앗이 조직, 기타 경제조직, 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4) “농촌생활 장기변화 연구- 대구낙동강권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① 마을 및 가구의 일반사항: 마을 위치, 지리적 여건, 가구 및 시설 배치상황, 농업현황, 교통 통신여건, 가구 구성, 직업 및 영농상황, 소득상황, 가족구조 ② 식생활: 식품섭취상황, 영양섭취상황, 식습관, 식품조리 및 가공 ③ 의생활: 피복계획, 피복관리, 피복착용, 피부관리 ④ 주생활: 주택의 물리적 특성, 옥외 주거공간 이용, 주거공간 활용, 마을생활환경, 주거환경 기반시설 ⑤ 노동생활: 노동정도, 노동환경 ⑥ 건강생활: 건강정도, 위생환경, 생활습관 ⑦ 경제생활: 가계소득구조, 가계소비, 소비행태, 가계관리 ⑧ 교육생활: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⑨ 여가생활: 취미, 오락, 교양 ⑩ 의례생활: 혼례의식, 상례의식, 기타의식
성주인 외 (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① 인구 및 가구: 자연마을별 가구, 공폐가, 인구, 독거가구, 귀농귀촌가구 ② 경제활동: 농가/비농가, 비농가 종사 현황, 도농교류 활동, 경제활동 조직 ③ 공동체 활동: 마을 공동행사(활발, 귀농귀촌 참여, 쇠퇴), 마을공동시설 ④ 생활권: 물품구입 장소 ⑤ 귀농귀촌: 귀농귀촌 변화(긍정/부정적, 거주지), 귀농귀촌 유지 노력 ⑥ 정주여건: 상수도, 하수처리, 도시가스, 쓰레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집 ⑦ 기타: 홈페이지 운영 여부, 마을 발전 과제, 마을 변화 전망
성주인 외 (2015; 2016; 2018; 2019). 박시현 외 (2017)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① 인구 특성: 인구/가구수, 65세 이상 인구, 독거 가구수, 다문화가구, 2지역 가구, 기초생활보장가구, 마을 인구 변화(과거, 미래), 귀농/귀촌가구수 ② 경제활동: 농가/비농가 수, 비농업부문 종사 현황, 경제활동 조직(유무, 쇠퇴, 활성화, 범위), 주민 6차산업 참여 여부, 주요 소득작물, 농업활동 변화, 경지면적, 마을공동경제활동, 가구별 경제활동(전수) ③ 공동체: 사회 조직(유무, 쇠퇴, 활성화, 범위), 마을 공동체 활동(유무, 쇠퇴, 활성화, 범위) ④ 물리적 환경: 공폐가 현황(현재, 미래), 주택 현황(슬레이트, 신축/개축 등), 마을 내 업체 수(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마을 내 공동시설(유무, 시설 상태) ⑤ 귀농귀촌: 귀농귀촌 관련(거주지, 역할, 참여도, 인식) ⑥ 생활권: 주민 서비스별 이용권, 경제활동권 ⑦ 기타: 정부지원사업 현황, 자연마을 개수 및 가구수, 마을 발전 과제, 마을 자원(자연, 역사문화, 경제, 기타)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통계청에서는 2005년부터 5년 주기로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조사에서는 전국 36,000여 개 농산어촌 마을(행정리)을 대상으로 기초 현황과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행정리별 서비스 전달을 고려한 각종 시설과의 접근성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유사한 방식의 통계조사인 일본 농림업센서스 농업집락조사에서는 마을 내 집회 및 지역활동 현황 등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자원의 보전에 큰 관심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표 3-5〉 마을 관련 공식통계 조사 항목

구분	조사 항목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시범조사 (2020)	① 기본사항: (면)사무소 소재지, 자연마을(부락), 가구 및 인구, 빈집, 폐교 현황 ② 교통편의시설: 대중교통 이용, 시내(군내마을) 버스 정류장, 생활 편의시설, 생활 기반시설 ③ 생산기반시설: 농림업 관련 시설, 어업 관련 시설 ④ 경제활동: 농어업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 도농교류 ⑤ 공동체, 쓰레기 처리: 마을공동체 활용, 쓰레기 처리 ⑥ 논 관리: 논벼 경작 여부, 모내기 준비기 물 관리, 논벼 성장기 물 관리, 수확 이후 논 관리, 논벼 벗짚 처리
일본 농림업 센서스 농산촌지역조사 농업집락용 (2020)	① 집회의 개요와 지역활동의 실행 현황: 집회 횟수, 집회 의제(농업생산 관련 사항, 농지 및 배수로, 공유재산, 환경미화, 마을행사, 마을복지후생, 정주추진, 그린투어리즘, 6차산업화, 재생에너지, 기타), 활동 방식(마을단독/마을공동, 도농교류/NPO/학교, 기업교류) ② 지역자원의 보전: 지역 자원 유무(농지, 농업용배수로, 산림, 하천 및 수로, 저수지 및 호수), 위치(마을단독/공동), 보전 방식(도시주민연합, NPO/학교/기업 연계) ③ 실행 조합의 유무: 지역 내 연락, 조정, 활동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실행조합의 유무

자료: 저자 작성.

선행연구의 조사항목과 최근 농산어촌 마을 주요 변화 등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마을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인구 및 가구 측면, 경제활동 측면, 공동체 활동 측면, 물리적 정주 환경 측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구 및 가구 측면에서는 상주 및 비상주 가구, 연령별 인구수 등을 조사하여 현재 마을의 인구 구성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자 했다. 또한 귀농귀촌 가구, 다문화 가구, 취약계층 가구 등 최근 다변화되는 마을 주민 구성을 파악코자 했

다. 추가적으로 관계인구¹²⁾ 및 도농교류 활동 현황 등을 검토하여 마을의 확장 가능성 및 귀농·귀촌 확대 여건을 검토하고자 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마을의 농림어업 특성과 경제다각화 활동, 비농가 경제활동 등을 검토하여 마을의 경제적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마을 내 경제조직 및 사회조직의 구성 변화와 공동체 활동 현황을 과거와 비교하여,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마을 내 주택 현황과 공동시설 및 환경·경관 유해시설 등의 유무를 파악하여 정주공간으로서 마을의 물리적 여건을 진단코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별 일정 비율의 주민을 선정하여 주민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마을 주민을 선정하고, 가구원의 상황까지 같이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가구원 경제활동(직업, 직장 위치, 소득원 등) 변화, 정주의식 및 만족도 등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으며,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민 생활에서 경제·사회적 활동, 물리적 정주 환경과 생활권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소비 패턴을 함께 조사하고자 했다.

조사 항목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은 산업화, 탈산업화 등 당시 거시적 변화에 따른 농산어촌 마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향후 인구·가구 변화 및 물리적 환경 변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했다.

3.3. 조사 방법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행정 자료 및 공식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인구 및 가구 관련 기초 통계와 기존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마을에 대

12) 일본 지방창생정책에서 유래한 관계인구란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지역과 관계(緣)를 맺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지칭한다(차미숙 2020).

한 1차 현황 파악 후 이장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매년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한다.

둘째, 패널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지며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구조화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전문 면접원이 마을에 방문하여 대표자(이장) 및 주민 대상 면접 조사를 수행한다. 이장조사는 102개 마을의 현 이장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 물리적 환경 등을 조사한다. 필요시 마을의 실태를 잘 아는 전 이장 및 노인회장 등에 물어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한다. 주민 조사는 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가구의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 표본은 마을당 10명씩 선배분하고 마을 전체 가구 구간별로 5~25명까지 차등하여 배분한다. 마을당 15~35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특히 조사 대상 마을 주민의 연령, 성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였다.

셋째, 패널 마을 현장 방문조사이다. 직접 마을에 방문하여 공간구조와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고, 대표자 인터뷰를 토대로 최근의 변화 양상과 설문조사 결과를 재검토하였다. 또한 위성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표 3-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조사 항목은 기본조사로서 매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조사는 이장 등 마을 대표자 조사가 바탕이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보완조사에 해당한다. 다만, 주택 및 마을 공간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는 매년 추적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확인하고자 한다.

〈표 3-6〉 마을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종합

분류	조사항목	주기	조사방법	비고
인구/가구	-자연마을 별 가구수(상주/비상주) -연령별(성별) 인구수 -인구 변화 추이(자연증감, 전입전출) -가구 특성(다문화, 독거, 조손, 기초생활수급) -관계인구 및 도농교류 현황 -귀농귀촌 가구수, 가구 구성 -특성(이주지역, 연령, 직업, 고향 여부 등)	매년	이장조사 +행정조사	필요시 별도 심층조사 추진
경제활동 (마을)	-농어가 특성 및 변화 -농어가의 경제다각화활동 참여 -비농가의 경제활동 -농업 노동력 및 외국인노동자 활용 -마을 내 경제조직(유무, 구성원, 범위, 주요활동)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마을사업 등 공동경제활동 현황 -마을 공동재산(기금, 토지)	매년	조직대표 및 이장조사	주민조사로 보완
공동체 활동	-마을내 사회조직(유무, 구성원, 범위, 주요활동) *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동호회 등 -마을 행사 및 축제 등 공동체 활동 현황 -광역단위 공동체 활동	매년	조직대표 및 이장조사	주민조사로 보완
물리적 환경	-주택 현황(공폐가, 노후주택, 신축) -공동시설 현황(유무, 활용도) -환경·경관 유해시설 현황(유무, 저해정도) -기초 인프라(상하수도, 난방방식, 교통)	3년	이장조사 현장조사	인공위성 영상 활용
일반현황	-자연조건(지형지세, 면적, 기후, 경관 등) -마을 유래 및 역사문화 자원 -경지비율/ 임야비율 -토지이용(용도지구, 생태등급, 이용규제 등) -자연마을 현황(분포, 변화) -교통 여건(소재지 접근성, 대중교통) -생활편의시설(유무, 접근성) -정부지원사업 현황	매년	문헌조사 이장조사	변경시 수정

자료: 저자 작성.

매년 기본조사와 별도로 차년도부터는 심층조사를 추진코자 한다. 심층조사의 주제는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농산어촌 마을에서의 삶의 만족도,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농산어촌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등을 영역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기능 변화, 한계마을과 과소화마을, 농산어촌 정책 사업의 성과 등의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표 3-7>. 이를 미리 정하지는 않되, 농산어촌 마을연구포럼 논의 및 정책 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 추진코자 한다.

〈표 3-7〉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주제(안)

영역	연구 주제(안)
농산어촌 마을 삶의 만족도	- 농산어촌 마을의 주거 실태와 개선 과제 - 농산어촌 정주생활권 변화 실태와 정책 과제 - 농산어촌 마을의 공동시설 현황 및 활용 실태 - 주민 변화에 따른 농산어촌 마을의 새로운 기능과 시설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 농산어촌 마을의 유지 가능성 -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의 범주 - 농산어촌 과소화 마을 변화 실태와 전방, 한계마을 대상의 정책 방향 -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정책사업의 영향
농산어촌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 농산어촌 마을 사회조직 및 공동체 현황 - 농산어촌 사회 연계망의 특징 비교연구 - 사회적 관계망과 주거생활, 삶의 질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농산어촌 마을의 현황과 특징

농산어촌 마을의 현황과 특징

1. 조사 개요

앞서 밝힌대로 패널 조사는 패널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마을 대표자 설문조사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다. 대표자 조사를 통해 마을의 인구·가구 현황,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 물리적 환경 등 전반적인 마을의 현황을 매년 추적 조사한다. 주민 조사는 패널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 구성, 가구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 참여, 생활권 이용 및 정주 환경 등을 조사한다. 조사 개요와 응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패널 마을의 일반적 현황 및 마을 거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변화
- 조사대상:
 - 마을 대표자: 전국 102개 농산어촌 마을 이장
 - 마을 주민: 거주 주민 2,151명 (1가구에 1명씩 마을당 평균 21가구 조사)
- 조사일정:
 - 예비조사: 2020. 7. 13. ~ 2020. 7. 19. (일주일)
 - 본조사: 2020. 8. 24. ~ 2020. 9. 25. (1개월)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

〈표 4-1〉 응답자 현황(마을 대표자 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전체		102	100.0
성별	남자	92	90.2
	여자	10	9.8
연령	40대 이하	4	3.9
	50대	26	25.5
	60대	59	57.8
	70대 이상	13	12.8
마을 거주기간	10년 미만	6	5.9
	10~29년	17	16.7
	30~49년	22	21.5
	50년 이상	57	55.9

〈표 4-2〉 응답자 현황(마을 주민 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전체		2,151	100.0
성별	남자	954	44.4
	여자	1,197	55.6
연령	30대 이하	52	2.4
	40대	132	6.1
	50대	318	14.8
	60대	591	27.5
	70대 이상	1,058	49.2
직업	농업/임업/어업	1,196	55.6
	자영업	215	10.0
	사무/ 전문직	42	2.0
	생산/기능/노무직	78	3.6
	판매/영업/서비스직	48	2.2
	전문기술직	22	1.0
	주부	236	11.0
	퇴직/ 무직	314	14.6
귀농귀촌 여부 (10년 내)	아니오	1,857	86.3
	예	294	13.7

설문조사 이외에 패널 마을의 다양한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하기 위해 일부 패널 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패널 마을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최근 변화 실태 진단 및 미래 모습을 전망해보고자 했다. 조사 대상은 강원, 경기, 전남, 제주 지역의 총 8개 패널 마을로 마

을 대표자 심층 면접 및 현지 조사를 추진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최근 5년 동안 마을의 가장 큰 마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다. 또한 귀농·귀촌 등 마을 주민 구성 변화, 마을 내 자체적인 활동 현황 및 주체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그밖에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여건 및 정주 여건 및 개선 방향 등을 파악하였다.

〈표 4-3〉 현장조사 마을 특성

마을명	조사일자	마을 유형 및 특성
양구군 방산면 송현1리	9.10.	-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인근 원격 농산어촌 마을 - 군부대 재편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상권 쇠퇴 현상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	9.11.	- 체험마을 활동이 활발한 근교 농산어촌 마을 - 귀촌인 중심 전원주택지 형성 등 자연마을 간 분화 현상
홍천군 서면 팔봉2리	9.11.	- 대명리조트가 인접한 상업 중심 원격 농산어촌 마을 - 추진위원장 주도의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
이천시 모가면 서경1리	9.12.	- 장류 체험마을로 성공한 농업 중심 일반 농산어촌 마을 - 체험객 감소 및 인근 택지개발에 따른 외부 여건 변화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9.17.	- 연륙으로 이어진 반농반어 어촌 마을 - 고령화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경제 활동 쇠퇴
나주시 남평읍 남석3리	9.25.	- 집성촌 특성을 유지한 농업 중심 근교 농산어촌 마을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활동 추진
화순군 화순읍 벽라1리	9.25.	- 소재지에 위치한 도시와 농촌 중간적 성격의 근교 농산어촌 마을 - 노인 중심 마을에서 신규 주민들의 외곽 거주지로 변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1.12.	-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관광 성격의 반농반어 어촌 마을 - 해안과 연접하여 도시민 대상 신규 시설 증가 및 기존 공동시설의 기능 변화

주: 현장조사 마을은 마을 유형과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최근 변화가 두드러지거나 이장 협조가 용이한 마을 중에서 선정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2. 마을 대표자 조사 결과

2.1. 패널 마을의 인구·가구 특성

102개 패널 마을을 실제 상주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50~99호 마을이 45.1%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근교 농산어촌에서 100호 이상의 마을이 32.2%로 가장 많고, 일반 및 원격 농산어촌은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마을이 다수 포함되었다<표 4-4>.

〈표 4-4〉 패널 마을의 가구 규모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전체 (n=102)
		근교 농산어촌 (n=28)	일반 농산어촌 (n=41)	원격 농산어촌 (n=33)	
가구수 (상주)	50호 미만	28.5	<u>31.7</u>	<u>27.3</u>	29.4
	50~99호	39.3	41.5	<u>54.5</u>	<u>45.1</u>
	100~149호	<u>17.9</u>	2.4	12.1	9.8
	150호 이상	<u>14.3</u>	24.4	6.1	1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일반 농산어촌에 150호 이상 마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반 농산어촌에 속하는 제주도의 패널 마을 6곳의 가구수가 평균 421호로 매우 크기 때문임. 제주도를 제외하면 11.4%에 불과함.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마을 대표자 조사 결과, 현재 102개 패널 마을에는 평균 102호, 218명이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당 가구원 수는 평균 2.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일반 농산어촌에서 평균 124.5호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며 원격 농산어촌에는 77.7호로 규모가 작은 마을 비율이 높다<표 4-5>.

가구 특성 중 특징적인 점은 주말 또는 계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거주하는 비상주 가구가 약 12.8호로 열 가구 중 한 가구가 비상주 가구라는 점이다. 현지 조사 결과, 특히 수도권 근교 농산어촌 마을에서 주중 또는 주말에만 마을에 머무는 2지역 거주 가구가 다수 존재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수와 실거주 가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마을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표 4-5〉 패널 마을의 평균 가구, 인구수(상주, 비상주)

단위: 호, %

구분	시군 유형			전체
	근교 농산어촌	일반 농산어촌	원격 농산어촌	
전체 가구수	111.8	142.1	84.5	115.2
상주 가구수	98.3	124.5	77.7	102.2
상주 인구수	217.7	266.9	158.6	218.4
비상주 가구수	13.5	17.1	6.8	12.8
비상주 가구 비율(%)	12.1	12.0	8.0	11.1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참고〉 패널 마을의 2지역 거주 사례

- 이천시 모가면 서경1리는 220세대 중 약 20세대 정도가 4도3촌(4都3村), 5촌2도(5村2都) 등 다양한 형태로 마을에 거주한다. 주중에만 마을에 머물거나 혹은 주말에 마을에 와서 살고 있는 형태이다.
-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는 주민등록상(2019년) 21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거주 주민은 3분의1 수준인 70~80가구에 불과하다. 마을 주민 중에는 비상주 귀촌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 홍천군 서면 팔봉2리는 주민등록상(2019년) 218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거주는 60호에 불과하다. 마을 안에 대명리조트 직원 숙소가 있어 마을과 무관하게 가구수가 과대 집계되고 있다.

전체 패널 마을의 지난 20년간의 인구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과거 10년(2000~2010년)보다 최근 10년(2010~2020년) 사이 인구 감소 마을과 증가 마을 모두 증가하였다. 과거에 비해 최근 마을 간 분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근교 및 원격 농산어촌 마을에서 인구 증감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6>.

〈표 4-6〉 기간별 인구수 변화

단위: %

구분		감소 추세	변화 없음	증가 추세	계
2000~ 2010년	전체	44.1	28.4	27.5	100.0
	근교	42.9	21.4	35.7	100.0
	일반	39.0	26.8	34.1	100.0
	원격	51.5	36.4	12.1	100.0
2010~ 2020년	전체	52.0	11.8	36.3	100.0
	근교	53.6	3.6	42.9	100.0
	일반	41.5	22.0	36.6	100.0
	원격	63.6	6.1	30.3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을 살펴보면, 인구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는 반면, 사회적 인구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패널 마을에서 평균 7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는 전입 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근교 농산어촌으로의 5년간 평균 전입이 32명으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1.8명이 출생한 데 반해 8.1명의 인구가 사망하는 등 마을 인구의 자연감소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표 4-7>.

〈표 4-7〉 지난 5년(2015~2020)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합계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출생	사망	전입	전출
전체(명)	7.1	<u>1.8</u>	<u>△8.1</u>	19.9	△6.5
근교 농산어촌	13.4	3.3	△10.4	31.9	△11.4
일반 농산어촌	8.5	1.5	△8.1	21.8	△6.7
원격 농산어촌	0.0	0.9	△6.1	7.2	△2.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전체 패널 마을의 귀농어·귀촌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85.3%의 마을에 10년 이내 이주한 귀농어·귀촌 가구가 1가구 이상 있다. 평균적으로 마을에 10가구 정도(귀농어 4가구, 귀촌 12가구)의 귀농어·귀촌 가구가 살고 있다. 유형별로는 근교와 원격 농산어촌에 귀촌가구가 많이 분포하며 일반 농산어촌에 평균 6호 정도의 귀농가구가 있다. 귀어가구는 3.9%의 마을에 약 2.5호가량 살고 있다<표 4-8>.

〈표 4-8〉 지난 10년 이내 귀농어·귀촌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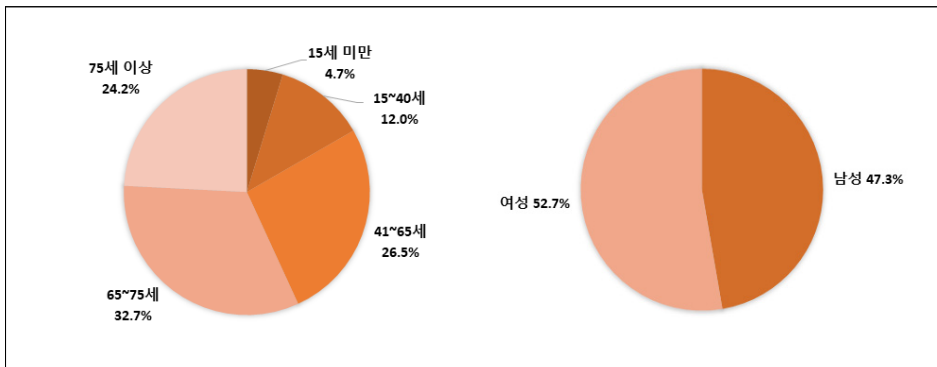
단위: %, 호

구분	마을 내 있음 (%)	평균 귀농어·귀촌 가구수(호)			
		근교 농산어촌	일반 농산어촌	원격 농산어촌	전체
귀농가구	55.9	3.4	5.9	2.9	4.4
귀촌가구	60.8	19.8	8.6	9.6	12.1
귀어가구	3.9	-	-	2.5	2.5
전체	85.3	14.3	9.8	6.2	9.9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패널 마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6.9%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다<그림 4-1>. 7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75세 인구가 50% 이상 되는 마을도 10개소가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에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의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하며 그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그림 4-1〉 마을의 인구 구성(연령대, 성별)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표 4-9〉 마을 내 취약계층 현황

단위: %, 호

구분	75세이상독거노인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다문화가구	
	있음 (%)	평균 가구수	있음 (%)	평균 가구수	있음 (%)	평균 가구수	있음 (%)	평균 가구수	있음 (%)	평균 가구수
전체	98.0	13.3	24.5	2.6	68.6	2.9	91.2	5.9	48.0	2.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마을 대표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관계인구’를 살펴 보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입농이나 출향민이 있는 마을이 약 30~40% 정도 해당한다. 도농교류 활동은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나타났다.¹³⁾

특히 관계인구는 근교 농산어촌 마을이 타 유형보다 많은 편이며 일반 농산어촌 마을 중 46.3%에 출입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행사 및 농어촌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활동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 농산어촌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표 4-10>.

〈표 4-10〉 관계인구 및 도농교류 활동

단위: %

구분		없음	마을 내 있음			
			전체	근교 농산어촌	일반 농산어촌	원격 농산어촌
관계인구	출입농	60.8	<u>39.2</u>	<u>35.7</u>	<u>46.3</u>	<u>33.3</u>
	출향민(부모 방문 제외)	69.6	<u>30.4</u>	<u>35.7</u>	29.3	27.3
	도시민(정기적 방문)	80.4	19.6	<u>28.6</u>	19.5	12.1
	기타(정기적 교류)	91.2	8.8	7.1	14.6	3.0
도농교류 활동	자매결연	83.3	16.7	10.7	<u>22.0</u>	15.2
	지역행사 및 축제	80.4	<u>19.6</u>	21.4	<u>31.7</u>	3.0
	농어촌 체험관광	75.5	<u>24.5</u>	17.9	<u>34.1</u>	18.2
	주말 농원 임대 및 분양	94.1	5.9	7.1	7.3	3.0
	기타	98.0	2.0	0.0	4.9	0.0

주: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과 지속적 관계를 맺으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농산물 구입-방문-반정주-거주 단계 등으로 발전함.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13) 도농교류 활동의 침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사 연도인 2020년의 특징적 경향일 수 있다.

〈참고〉패널 마을의 관계인구 및 도농교류 사례

- 나주시 남평읍 남석3리는 파평윤씨 집성촌으로 마을 저수지 위쪽에 제각이 있어 매년 후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변영회 중심으로 종종 부지에 출향민들을 위한 40호 규모의 전원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
- 이천시 모가면 서경1리는 1999년 결성한 영농조합법인에서 된장 판매를 시작으로 2010년 체험마을 사업을 시작, 2017년까지 연간 17,000여 명이 방문하는 마을로 성장했다. 초기에는 단체 방문객 위주로 운영하다가 방문객 감소를 겪어오면서 작년부터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패널 마을의 도농교류시설(이천시 서경1리)



자료: 연구진 촬영.



2.2. 패널 마을의 경제활동 특성

102개 패널 마을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패널 마을에 농가가 있으며, 평균 농가 수는 55.8호로 전체 실거주 가구 대비 56.2%에 해당한다. 대부분 노지 밭농업이나 쌀농업에 종사하며, 마을 내 쌀농가는 평균 25호, 밭농가는 36호 정도로 조사되었다. 한편, 102개 마을 중 23개 마을에 어가가 있으며, 해당 마을에는 평균 15호가량의 어가가 있다<표 4-11>.

〈표 4-11〉 농어가 현황

단위: %, 호

구분	마을 내 있음 (%)	평균 농어가 수 (호)			
		근교 농산어촌	일반 농산어촌	원격 농산어촌	전체
농가	100.0	37.2	83.0	37.8	55.8
농가 비율(%)	-	(51.4)	(62.5)	(52.6)	(56.2)
쌀농업	87.3	24.2	27.6	24.3	25.5
밭농업(노지)	97.1	25.1	51.0	24.6	35.7
밭농업(시설)	58.8	5.2	25.6	5.9	13.2
시설원예농업	26.5	2.9	15.1	4.4	9.0
축산업	58.8	3.4	5.5	5.2	4.9
임업	9.8	2.3	5.0	3.4	3.1
어가	22.5	2.3	11.0	20.1	15.8
어로어업	19.6	3.0	20.2	10.4	12.1
양식업	11.8	1.0	5.5	13.4	11.1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농어가 변화를 살펴보면,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과거에 비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보다 농어가가 증가한 마을은 3%가 채 안되며, 일부 마을에 한해 시설농업을 하는 농가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12>. 또한 농어가 감소에 따라 일부 젊은 농가들이 마을 대부분의 경작지를 경영하는 등 농업구조의 변화도 다수의 마을에서 확인되었다.

〈표 4-12〉 최근 10년간 농어가 변화

단위: %

구분	마을 내 있음			모름/ 무응답	마을 내 없음	합계
	과거 대비 감소	과거와 비슷	과거 대비 증가			
농가	51.0	45.1	2.9	1.0	0.0	100.0
쌀농업	46.1	38.2	2.0	1.0	12.7	100.0
밭농업 (노지)	48.0	45.1	2.9	1.0	2.9	100.0
밭농업 (시설)	16.7	34.3	7.8	0.0	41.2	100.0
시설원예농업	3.9	13.7	8.8	0.0	73.5	100.0
축산업	19.6	37.3	2.0	0.0	41.2	100.0
임업	3.9	5.9	0.0	0.0	90.2	100.0
어가	7.8	12.7	1.0	0.0	78.4	100.0
어로어업	6.9	10.8	1.0	0.0	81.4	100.0
양식업	4.9	6.9	0.0	0.0	88.2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참고〉 패널 마을의 농업구조 변화 사례

-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는 70호 중 26호 농가가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대다수 농가들이 농사를 줄이는 상황이다. 마을 농경지가 10만 평 정도이며 소수 농가들이 다른 농지도 임대해서 경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나주시 남평읍 남석3리는 두 농가가 마을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으며 고령 농가들은 농사를 줄이거나 경제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태이다.

마을 내 농림어업 관련 경제다각화활동에 참여하는 가구가 있다는 패널 마을은 45.1%에 해당한다. 해당 경제다각화활동에 참여하는 가구는 평균 16가구로 마을 유형별로는 원격 농산어촌이 22호로 가장 많은 편이다. 경제다각화활동별로는 농어촌민박 등 숙박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며 근교 농산어촌에서는 직판장을 운영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게 특징이다<표 4-13>.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는 과거와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표 4-14>.

〈표 4-13〉 경제다각화활동 참여 가구 현황

단위: %, 호

구분	마을 내 있음 (%)	평균 참여 가구수 (호)			
		근교 농산어촌	일반 농산어촌	원격 농산어촌	전체
농림어업 관련 경제활동 참여(전체)	45.1	17.1	12.0	22.2	16.4
농어촌 민박 등 숙박 운영	38.2	2.8	6.1	8.3	6.5
농림수산물 가공	15.7	5.0	3.9	3.0	3.8
직판장 운영	12.7	18.3	6.3	2.3	9.1
주말농장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13.7	2.0	8.1	15.5	7.9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표 4-14〉 최근 10년간 경제다각화활동 참여 가구 변화

단위: %

구분	마을 내 있음			마을 내 없음	합계
	감소	유지	증가		
농림어업 관련 경제활동 참여(전체)	6.9	29.4	8.8	54.9	100.0
농어촌 민박 등 숙박 운영	7.8	18.6	11.8	61.8	100.0
농림수산물 가공	2.9	9.8	2.9	84.3	100.0
직판장 운영	1.0	8.8	2.9	87.3	100.0
주말농장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1.1	7.8	4.9	86.3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패널 마을에 거주하는 비농가는 주로 농업 임금노동을 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근교 농산어촌에서는 일반 직장에 취업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원격 농산어촌에서는 비농업 부문 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5>.

〈표 4-15〉 비농가 경제활동(복수응답)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전체
		근교 농산어촌	일반 농산어촌	원격 농산어촌	
비농가 경제활동	자영업	35.7	43.9	45.5	42.2
	제조업 공장 취업	7.1	7.3	9.1	7.8
	일반 직장 취업	42.9	31.7	27.3	33.3
	농업 임금노동	53.6	56.1	57.6	55.9
	비농업 부문 일용직	35.7	34.1	48.5	39.2
	모름/ 무응답	10.7	7.3	0	5.9

주: 1, 2순위 복수응답 집계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참고〉 패널 마을의 비농가 경제활동 사례

- 양구군 방산면 송현1리는 군부대 인근에 위치해 마을 앞 도로변을 따라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의 농업 여건이 좋지 않아 다수 기존 주민들이 자영업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군부대 축소 및 재편으로 상권이 쇠퇴함에도 다른 경제활동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 홍천군 서면 팔봉2리는 리조트 인근에 위치해 도로변을 따라 상권이 발달했다. 현재 상인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대부분 상가 건물이나 마을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으며, 마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패널 마을의 상업시설(양구군 송현1리, 홍천군 팔봉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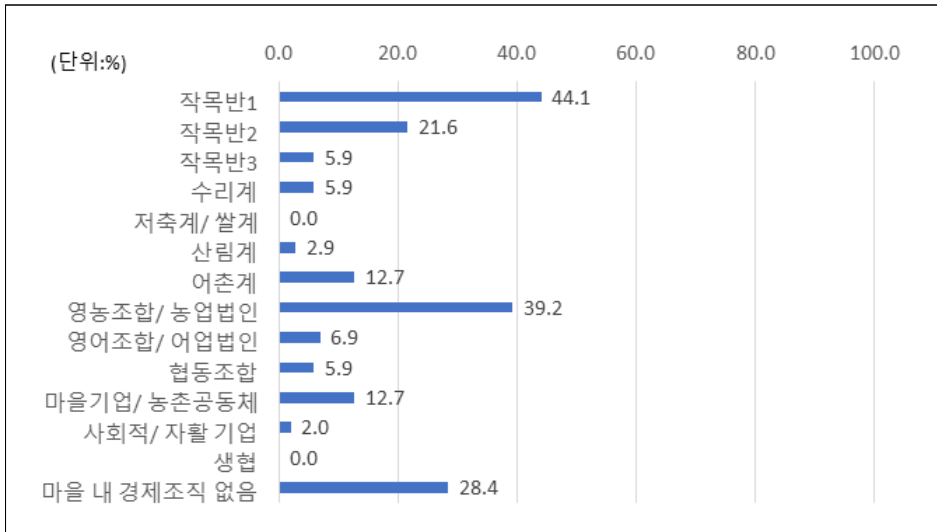
마을 주변 폐상점(송현1리)
자료: 연구진 촬영.



마을 주변 상업시설(팔봉2리)

패널 마을의 경제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작목반(44.1%), 영농조합법인(39.2%)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2>. 102개 마을 중 29개 마을(28.4%)에는 경제조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개 마을(49.0%)에 1~2개의 경제조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작목반은 고추, 쌀 작목반이 가장 많고 딸기, 오이 작목반 등의 순으로 패널 마을에 존재하였다.

〈그림 4-2〉 마을 내 경제조직 보유 비율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마을에 결성되어 있는 경제조직의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면, 마을 내 관련 경제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나 경제조직이 있는 마을의 경우는 해당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즉,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이 농산어촌 마을을 대표하는 경제조직인 셈이다.

한편, 마을 내 공동경제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이 대다수이며, 관련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공동어업활동과 마을 공동시설 운영 정도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행정리를 벗어난 타 마을과 연계한 경제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표 4-16〉 마을 공동경제활동 주민 참여 정도

단위: %

구분	마을 내 있음			마을 내 없음	합계
	일부 주민만 가끔 참여	보통	거의 모든 주민 참여		
공동농업활동	23.5	10.8	4.9	60.8	100.0
공동어업활동	0.0	0.0	3.9	96.1	100.0
마을 공동 식품 가공, 판매	2.9	5.9	2.9	88.2	100.0
마을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7.8	12.7	5.9	73.5	100.0
마을 공동시설 운영	5.9	4.9	9.8	79.4	100.0
마을 공동 농기계 이용	2.9	5.9	5.9	85.3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표 4-17〉 타 마을 연계 공동경제활동 여부

단위: %

구분	다른 마을과 연계활동 '없음'			
	근교 농산어촌	일반 농산어촌	원격 농산어촌	전체
타 마을 연계 활동 여부	92.9	92.7	97.0	94.1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패널 마을의 공동소유 재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2개 패널 마을 중 70~80% 마을이 공동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 임야 등 부동산으로는 평균 약 2만 평, 현금 자산으로는 평균 6,5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농어업이 발달한 일반 농산어촌 마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동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8>.

〈표 4-18〉 마을 공동소유 재산

단위: %, 평,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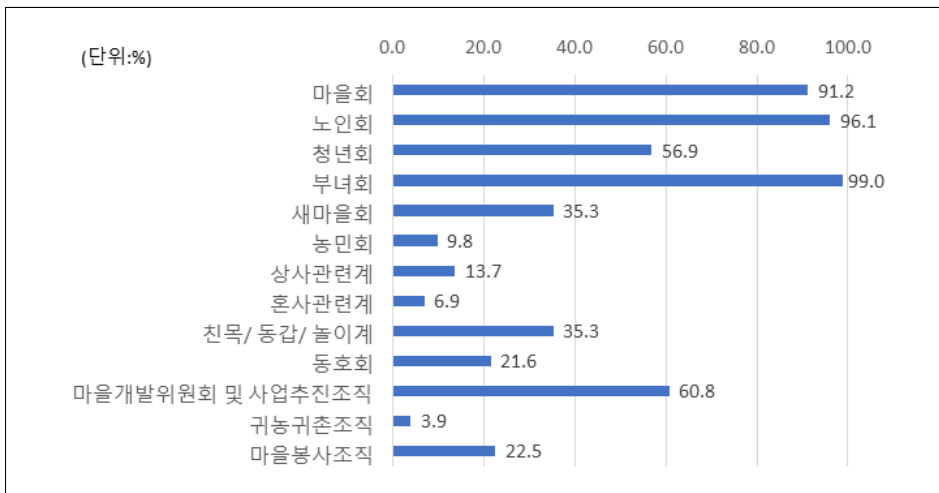
구분	마을 내 있음 (%)	공동재산 규모 (평, 만 원)			
		근교 농산어촌	일반 농산어촌	원격 농산어촌	전체
마을소유 부동산 (토지, 어장, 목장, 임야 등)	71.6	2,730	33,303	13,654	19,185
마을 기금	85.3	6,500	7,999	4,700	6,486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2.3. 패널 마을의 공동체 활동 특성

패널 마을의 공동체 활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을 내 사회조직 현황을 조사하였다. 102개 패널 마을 내 사회조직은 경제조직에 비해 다수 결성되어 있으며,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는 90% 이상 마을에 결성되어 있다. <그림 4-3>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이 5개 이상 결성된 마을이 64개(62.7%)로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 사업추진조직, 봉사조직, 친목조직 등의 사회조직도 여러 마을에 결성되어 있다.

〈그림 4-3〉 마을 내 사회조직 보유 비율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사회조직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다고 응답되었으며, 특히 노인회, 부녀회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회나 상사 및 혼사 관련 계 등 과거 대표적인 사회조직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사라졌다. 귀농·귀촌인들이 별도 마을 내 조직을 만드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9>.¹⁴⁾

14) 귀농·귀촌인의 모임은 마을 단위보다는 시·군 단위로 조직화되는 경우가 많다.

〈표 4-19〉 마을 내 사회조직 활성화 정도

단위: %

구분	마을 내 있음			마을 내 없음	합계
	침체	보통	활성화		
마을회	4.9	41.2	<u>45.1</u>	8.8	100.0
노인회	2.0	36.3	<u>57.8</u>	3.9	100.0
청년회	11.8	24.5	20.6	43.1	100.0
부녀회	3.9	37.3	<u>57.8</u>	1.0	100.0
새마을회	5.9	16.7	12.7	64.7	100.0
농민회	2.9	6.9	0.0	90.2	100.0
상사 관련 계	5.9	3.9	3.9	86.3	100.0
혼사 관련 계	3.9	1.0	2.0	93.1	100.0
친목/ 동갑/ 놀이계	3.9	18.6	12.7	64.8	100.0
동호회	2.9	8.8	9.8	78.5	100.0
마을개발위원회 및 사업추진조직	7.8	27.5	<u>25.5</u>	39.2	100.0
귀농귀촌조직	0.0	2.0	2.0	96.0	100.0
마을봉사조직	2.0	8.8	11.8	77.4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또한 패널 마을 중 60% 이상의 마을에서 공동작업, 공동식사 등 마을 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 참여도도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 4-20>에 해당하는 공동체 활동 중 4개 이상의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마을은 59개(57.8%)로 공동체 활동의 단위로서 마을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을 내 공동체 활동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마을은 4개 마을(3.9%)에 불과했다.

〈표 4-20〉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단위: %

구분	마을 내 있음			마을 내 없음	합계
	일부 주민만 가끔 참여	보통	거의 모든 주민 참여		
마을공동애경사	3.9	29.4	<u>38.2</u>	28.4	100.0
도로 농수로 공동관리	5.9	29.4	<u>23.5</u>	41.2	100.0
마을공동작업	8.8	22.5	<u>50.0</u>	18.6	100.0
마을친목모임	3.9	30.4	<u>37.3</u>	28.4	100.0
마을단위 도농교류활동	1.0	6.9	7.8	84.3	100.0
주민대상축제/ 체육행사	1.0	9.8	17.6	71.6	100.0
상시적인 공동식사	5.9	26.5	<u>29.4</u>	38.2	100.0
여가문화활동	2.0	6.9	12.7	78.4	100.0
기타	0.0	1.0	1.0	98.0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참고〉 패널 마을의 공동체 활동 사례

- 나주시 남평읍 남석3리는 집성촌의 성격이 남아 있어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경관 공동관리 등 여러 공동체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장이 주도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그들이 마을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는 수도작 중심 마을이었으나 2011년 35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현재까지 개별 농가 중심 소사장제 방식으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약 8만여 명의 체험객이 방문했고, 마을 주민 누구나 신규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패널 마을의 공동체 활동 사례(나주시 남석3리, 양평군 봉상2리)



꽃차만들기 활동(남석3리)
자료: 연구진 촬영.



도농교류 체험활동(봉상2리)
자료: 수미마을 영농조합법인.

2.4. 패널 마을의 물리적 특성

마을 대표자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마을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장 조사 결과, 102개 패널 마을에는 평균 115호의 주택이 있으며, 이중 노후주택은 21호, 공·폐가는 4호가량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후주택은 일반 농산어촌에서, 공·폐가는 원격 농산어촌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마을당 평균 1.2호의 농막 및 컨테이너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고 있다<표 4-21>.

〈표 4-21〉 마을 내 주택 현황

단위: 호, %

구분	시군 유형			
	근교	일반	원격	전체
전체 주택 수	113.4 (100.0)	138.9 (100.0)	85.7 (100.0)	114.7 (100.0)
노후주택 수	16.9 (14.9)	32.0 (23.0)	12.1 (14.1)	21.4 (18.7)
공가폐가 수	3.7 (3.3)	3.3 (2.4)	4.5 (5.3)	3.8 (3.3)
(주택 외 거주용)농막/컨테이너 수	1.6	1.2	0.8	1.2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그림 4-4〉 패널 마을의 주택 현황



자료: 연구진 촬영.

지난 5년간 절반 이상의 패널 마을에서 주택 수가 유지되고 있으며, 노후주택과 공·폐가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마을 비율이 1/3 정도 해당한다<표 4-22>. 마을 내 공동시설은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창고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 보유한 공동시설의 관리 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일부 마을에서는 저이용되는 기존 공동시설을 재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제주도 구좌읍 한동리는 귀촌인 및 도시민 방문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

민들의 공동이용시설(어업회관)을 외지인 대상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등 기능 변화를 꾀하고 있다. 홍천군 팔봉2리는 마을회관을 증축하여 인근 상업시설의 임시 근로자들의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그림 4-5>.

〈표 4-22〉 최근 5년간 마을 내 주택 변화

단위: %

구분	최근 5년간 변화			합계
	감소	유지	증가	
전체주택	19.6	<u>58.8</u>	21.6	100.0
노후주택	14.7	52.9	<u>32.4</u>	100.0
공폐가	4.9	61.8	<u>33.3</u>	100.0
(주택 외 거주용)농막/컨테이너 수	1.0	88.2	10.8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그림 4-5〉 패널 마을의 공동시설 활용 사례



자료: 연구진 촬영.

현장조사 및 이장 인터뷰 결과, 귀농·귀촌 가구의 신규 주택은 주로 마을 내부보다는 마을과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거나 기존 주민이 적은 별도 자연마을에 산재하여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나주시 남평읍 남석3리에는 귀촌인들이 마을과 떨어진 전원주택지를 별도 조성하여 입주하였고, 마을 내 빈집은 철거하여 텃밭이나 공터로 바꾸었다. 귀촌인이 많은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는 본마을과 떨어져 있던 과소화되던 자연마을에 다수의 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귀촌인 거주지로 바뀐 상태이다<그림 4-6>.

〈그림 4-6〉 농산어촌 마을의 물리적 변화의 예



자료: 카카오맵 위성사진(<https://map.kakao.com/>), 검색일: 2020. 10. 20.).

한편, 마을 내부 및 인근에 위치한 환경·경관 저해시설을 조사한 결과, 축사(56.9%), 태양광발전시설(39.2%) 등이 마을 내부 또는 인근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근교 농산어촌 지역에 창고나 공장시설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반 및 원격 농산어촌에는 축사,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 특히 해당 시설의 환경저해 정도에 대해서는 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반면, 공장, 창고, 태양광발전시설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그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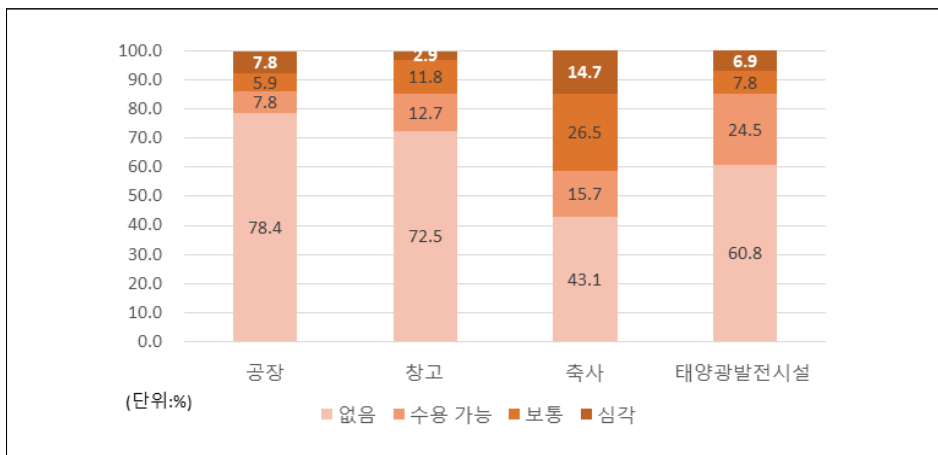
〈표 4-23〉 마을 내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단위: %

구분	해당 시설이 있음			
	근교	일반	원격	전체
공장	<u>25.0</u>	19.5	21.2	21.6
창고	<u>42.9</u>	17.1	27.3	27.5
축사	53.6	<u>63.4</u>	51.5	<u>56.9</u>
태양광발전시설	32.1	<u>43.9</u>	<u>39.4</u>	39.2
기타	25.0	17.1	18.2	19.6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그림 4-7〉 마을 내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수용 가능 여부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참고〉 패널 마을의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사례

-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는 인천-강릉을 잇는 6번 국도변에 인접하여 도로변 소음이 매우 크게 발생하나 기존 주민들은 오랜 시간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 마을 외곽에 축사(젓소 100두)가 있어 악취가 발생하지만 오래전부터 기존 주민이 운영해 오던 축사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홍천군 서면 팔봉2리는 리조트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겪고 있다. 리조트 측에서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연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리조트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마을 도랑살리거나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 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다.

패널 마을의 경관 및 환경저해시설(양평군 봉상2리, 완도군 우두리)



마을 내 폐건물(주유소) 및 축사(봉상2리)
자료: 연구진 촬영.



마을 내 태양광발전시설(우두리)

한편, 102개 패널 마을 중 절반 이상의 마을에서 타 마을과 구별되는 마을 내 보전가치가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 내 보전할 만한 자원이 있다고 응답한 마을은 60개 마을(58.8%)이며 마을 내 자원이 3개 이상 있다고 응답한 마을도 24개(23.5%)에 해당한다<표 4-24>. 자연자원뿐 아니라 문화자원 및 사회자원도 비슷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24〉 마을 내 보전가치가 있는 자원 여부

단위: %

구분		해당 시설이 있음			
		근교	일반	원격	전체
마을 내 자원 여부	없음	35.7	39.0	48.5	41.2
	1개	35.7	17.1	15.2	21.6
	2개	14.3	14.6	12.1	13.7
	3개 이상	14.3	29.3	24.2	2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마을 자원은 자연자원(수자원, 지형자원, 동식물자원), 문화자원(전통자원, 경관자원), 사회자원(공동체자원, 특산자원)의 7개 범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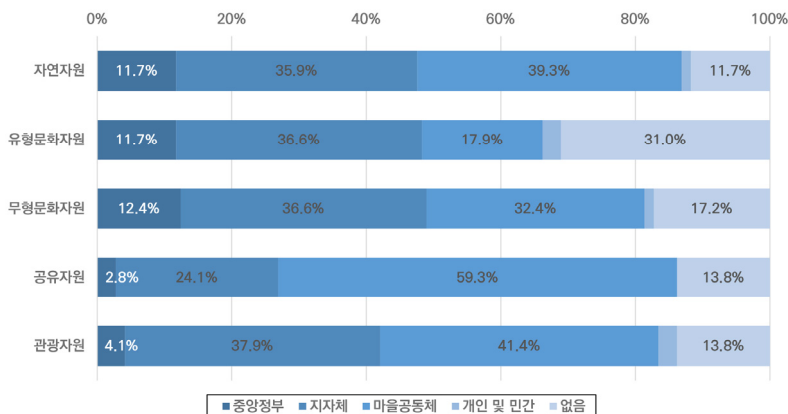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참고〉 패널 마을의 자원 관리 및 이용 실태¹⁵⁾

○ 별도의 위탁 연구를 통해 5개 패널 마을의 자원 관리·이용 실태를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 주민설문조사(n=145) 결과, 해당 패널 마을의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자연자원, 유형문화자원, 무형문화자원, 마을공유자원, 관광자원의 관리 주체는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자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유무형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관리는 지자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 물적자원에 대한 인식 및 관리에 있어서 마을 내 경제다각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주시 한동리나 신안군 둔장리에서 가장 인식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자원의 경제적 활용도와 연관이 크다.

마을 내 물적자원 관리 주체



마을 내 물적자원 관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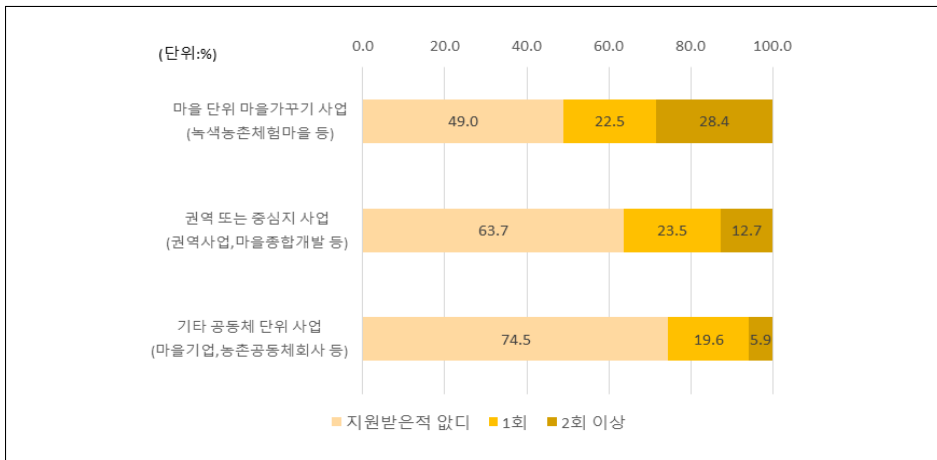
구분	공동관리 (공동기금)	정기관리 (지자체)	예산지원	민간관리 (위탁운영)	기타 (개인 등)	없음	합계
자연자원	39.3	42.8	3.4	0.7	1.4	12.4	100.0
유형문화자원	17.9	46.2	0.7	2.8	0.7	31.7	100.0
무형문화자원	31.0	48.3	1.4	0.7	1.4	17.2	100.0
마을공유자원	57.2	17.2	9.7	0.0	2.1	13.8	100.0
관광자원	41.4	26.2	14.5	2.8	2.1	13.0	100.0

주: 5개 마을(진천군 부창마을, 제주시 한동리, 제주시 저지리, 완도군 내동리, 신안군 둔장리) 주민 14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수행한 위탁연구 결과 재분석.

지난 20년 동안 102개 폐널 마을 중 절반 이상의 마을(51.0%)에서 1회 이상 마을 단위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권역 또는 중심지 사업을 추진한 마을도 36.3%에 해당한다.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등 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지원사업은 마을 단위, 권역 단위 사업에 비해 수행한 마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8>.

〈그림 4-8〉 최근 20년 이내 지원사업 현황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15) 본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국지역개발학회(기정훈·임형백·전해정·성민기). 2020. “농산 여촌 마을의 자원 관리·활용 실태와 과제” 내용 중 발췌하였다.

〈참고〉 패널 마을의 정부지원사업 사례

- 홍천군 서면 팔봉2리는 최근 몇 년간 추진위원장 주도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하면서 마을 공동체 및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체험관, 가공시설 등 현재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
- 화순군 화순읍 벽라1리는 읍소재지에 위치한 마을로 지난 10여 년간 여러 보조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다. 벽화 및 화단 조성, 주차장 조성 등 경관 정비 사업 위주로 진행하였다.

패널 마을의 정부지원 공공시설(홍천군 팔봉2리, 화순군 벽라1리)



판매장 및 가공체험장(팔봉2리)

자료: 연구진 촬영.



마을 주차장 및 휴게시설(벽라1리)

3. 마을 주민조사 결과

3.1. 마을 주민들의 가구 특성

조사 대상인 102개 마을 패널의 주민 2,151명은 시·군을 기준으로 근교 28.5%, 일반 40.4%, 원격 31.1%에 거주하고 있고, 마을 특성을 기준으로 하면 소재지 마을 18.6%, 일반 마을 56.3%, 원격 마을 25.1%에 거주하고 있다<표 4-25>.

〈표 4-25〉 시·군 및 마을 유형별 조사 주민수와 비중

단위: 명, %

구분	계	시·군 유형			마을 유형		
		근교	일반	원격	소재지	일반	원격
응답자수	2,151	612	870	669	400	1,211	540
비율(%)	100.0	28.5	40.4	31.1	18.6	56.3	25.1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 주민 중 71.3%는 동거인이 있고, 본인을 제외하고 평균 1.38명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30대 남성은 본인을 제외하고 평균 2.04명과 거주하고, 이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70대 이상은 1.19명과 거주하고 있다<표 4-26>.

〈표 4-26〉 동거가족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동거가족	없음	28.7	11.5	9.1	13.8	17.1	<u>42.9</u>
	있음	<u>71.3</u>	<u>88.5</u>	<u>90.9</u>	<u>86.2</u>	<u>82.9</u>	57.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동거인원(본인제외)		1.38	2.04	1.97	1.57	1.29	1.19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농촌 마을 주민 중 세 명 중 한 명(33%)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한 기존 주민이고, 7.3명 중 1명(13.7%)은 10년 내에 도시(동 지역)에서 귀농·귀촌하였다. 조사 결과 시·군 및 마을 유형별로 귀농·귀촌자 유입에 차등이 있음이 드러났다. 10년 이내 귀농·귀촌한 주민을 기준으로 원격 농산어촌과 원격 마을에서 마을 인구 대비 귀농·귀촌인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원격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7명 중 1명(14.3%)이, 원격 마을은 5명 중 1명(19.8%)이 최근(10년 이내) 귀농·귀촌한 주민으로 조사되었다<표 4-27>.

〈표 4-27〉 시·군 마을 유형별 귀농·귀촌인 비율

단위: %

구분	계	시·군 유형			마을 유형		
		근교	일반	원격	소재지	일반	원격
최근 귀농·귀촌한 주민 비율(%)	13.7	12.7	13.8	14.3	16.0	10.2	19.8

자료: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중 64.3%는 현재 마을에서 태어나거나 결혼 등의 이유로 현재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마을로 온 주민 중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은 12.1%, 타 지역 출신으로 해당 마을로 이주한 사람은 23.4%이다. 마을에서 태어나거나 결혼하면서 마을에 정착한 주민의 비중이 70대 이상에서는 74.5%, 60대는 60.4%에 달하지만, 30대에서는 40.4%에 그쳤다. 그리고 마을에 거주하는 30대 중 44.2%, 40대 중 39.4%는 타 지역 출신임에도 이 마을로 이주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농산어촌 마을 구성원이 기존 주민에서 소위 외지인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농산어촌 마을의 동질성이 최근 젊은 연령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기존 농산어촌 마을의 문화와 공동체성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표 4-28>.

〈표 4-28〉 거주 이유에 따른 연령별 주민 비율

단위: %

구분	고향이고 계속 거주 하였음	결혼하면서 현재 마을에 정착하였음	고향이지만 타 지역에 살다 돌아옴	타 지역 출신으로 이 마을에 이주	기타	합계
전체	33.4	30.9	12.1	23.4	0.2	100.0
30대	28.8	11.5	15.4	44.2	0.0	100.0
40대	25.0	16.7	18.9	39.4	0.0	100.0
50대	29.9	21.1	17.6	31.4	0.0	100.0
60대	31.3	29.1	14.0	25.4	0.2	100.0
70대 이상	37.0	37.5	8.4	16.8	0.3	100.0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최근 10년 이내 귀농·귀촌자들은 기존 주민에 비해 젊고 고학력이다. 먼저 귀농·귀촌자의 평균 연령은 58.2세로 기존 주민의 평균 연령(69.7세)보다 10년 이상 젊다. 그리고 귀농·귀촌자 중 4년제 대학 중퇴 혹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중이 29.6%로, 기존 주민의 4.7%에 비해 매우 높다<표 4-29>.

〈표 4-29〉 귀농·귀촌자의 학력 및 연령대

단위: %

구분		귀농·귀촌 여부		전체 (n=2,151)
		귀농·귀촌 (n=294)	기존 주민 (n=1,857)	
학력	무학	1.7	15.2	13.4
	초등	7.5	33.3	29.8
	중등	11.9	20.8	19.6
	고등	38.1	22.9	25.0
	전문대	11.2	3.1	4.2
	4년제대학	26.2	4.0	7.0
	대학원 이상	3.4	0.7	1.0
	합계	100.0	100.0	100.0
연령대	30대	8.2	1.5	2.4
	40대	16.0	4.6	6.1
	50대	24.8	13.2	14.8
	60대	35.4	26.2	27.5
	70대 이상	15.6	54.5	49.2
	합계	100.0	100.0	100.0
	평균연령(세)	58.2	69.7	68.2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최근 귀농·귀촌한 주민 1,432명이 이주한 주된 이유는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21.6%), 농림어업에 종사하기 위해(21.4%), 결혼하면서 이주(21.0%)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4-30>. 직업적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는 귀농을 목적으로 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택한 비중이 높고, 농림어업 이외의 직장을 농산어촌에서 찾거나 새로운 사업 시도를 위해 이주한 주민은 주로 30~40대 젊은 연령층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젊은 연령층은 농산어촌에서 민박, 관광, 식품 가공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농산어촌에서 취미와 여가를 보내기 위해 이주하였다고 9.3%가 응답하였는데, 근교와 원격 농산어촌의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표 4-30〉 거주지 유형별 현재 거주지로 이주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시·군 유형			연령대				
		근교	일반	원격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가족(부모)과 거주	21.6	25.2	21.4	19.0	25.0	19.9	19.5	22.3	22.1
결혼하면서 이주	21.0	20.1	22.5	19.9	6.3	9.2	12.8	15.3	30.1
직업(농업/ 어업에 종사)	21.4	21.1	18.8	24.6	2.1	18.4	25.6	21.0	21.8
직업(농어업 외 일자리)	9.3	7.9	10.0	9.6	25.0	21.3	13.8	10.2	4.3
새로운 사업 시도	3.9	0.9	5.6	4.6	16.7	7.1	8.4	4.5	0.8
취미 여가 목적	9.3	10.3	7.4	10.6	2.1	7.8	7.7	11.5	9.1
생활비 절약	5.7	7.7	5.7	4.1	12.5	6.4	5.4	5.7	5.3
건강 회복 또는 질병 치료	3.8	4.3	4.2	2.9	2.1	2.1	3.4	5.0	3.5
자녀 양육 및 교육	1.8	0.8	2.2	2.1	4.2	0.7	1.7	3.1	1.2
예술/창작 활동을 위해	0.4	0.0	0.6	0.5	4.2	7.1	1.0	1.1	1.5
기타	1.8	1.7	1.7	2.1	0.0	0.0	0.7	0.4	0.3

주: 이주 주민 대상 분석(중복응답)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3.2. 마을 주민들의 경제 활동

마을 주민들의 거주 기간별로 종사 직업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농산어촌 마을에 오래 거주한 주민은 농림어업, 생산·기능·노무직에 근무하는 비중이 크고, 최근에 이주한 주민은 전문·기술직, 판매·영업·서비스직,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주민의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젊고 학력이 높으며, 최근 귀농·귀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의 연령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직업이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1>.

〈표 4-31〉 거주 기간별 종사 직업

단위: %

구분	거주 기간별 주민 비율(%)							평균 거주기간 (년)
	10년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년 이상	계	
농업/임업/어업	8.3	5.6	6.0	7.2	15.1	57.9	100.0	49.75
자영업	36.3	15.3	10.7	10.2	10.2	17.2	100.0	23.65
사무/전문직	28.6	16.7	11.9	11.9	11.9	19.0	100.0	25.52
생산/기능/노무직	28.2	10.3	9.0	10.3	10.3	32.1	100.0	33.14
판매/영업/서비스직	35.4	14.6	12.5	6.3	14.6	16.7	100.0	23.90
전문/기술직	40.9	31.8	9.1	4.5	0.0	13.6	100.0	17.45
주부	16.5	11.0	5.9	4.2	6.8	55.5	100.0	43.15
퇴직/무직	15.0	5.7	5.4	3.2	7.0	63.7	100.0	50.11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패널 102개 마을에 거주하는 2,151명 중 절반이 넘는 55.6%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주부(11.0%)와 퇴직/무직(14.6%)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18.8%가 종사하고 있다<표 4-32>. 농림어업은 농산어촌의 주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은 일반 농산어촌의 일반 마을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원격 농산어촌 및 소재지 마을은 자영업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마을에 비해 크다.

〈표 4-32〉 거주지 유형별 주민의 직업

단위: %

구분	전체	시·군 유형			마을 유형		
		근교	일반	원격	소재지	일반	원격
농업/임업/어업	55.6	57.0	58.3	50.8	42.5	60.3	54.8
자영업	10.0	6.2	10.6	12.7	18.0	5.9	13.3
사무/전문직	2.0	1.3	2.8	1.5	1.3	2.0	2.4
생산/기능/노무직	3.6	2.6	4.5	3.4	6.3	4.0	0.7
판매/영업/서비스직	2.2	2.9	1.8	2.1	3.0	2.2	1.7
전문/기술직	1.0	0.5	1.3	1.2	1.3	0.5	2.0
주부	11.0	12.4	9.8	11.2	10.3	10.6	12.4
퇴직/무직	14.6	17.0	11.0	17.0	17.5	14.5	12.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평균 38.6년 동안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종사자 중 54.2%는 쌀농업, 81.6%는 밭농업(노지)에 종사하고 있다. 연령대별 농림어업 종사자를 보면, 쌀농업은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밭농업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시설원예농업과 축산업은 젊은층(30~40대)이 주로 종사하고 있다.

〈표 4-33〉 연령대별 농림어업 종사자 중 작목 비중(중복선택)

단위: %

구분	쌀농업	밭농업 (노지)	밭농업 (시설)	시설 원 예농업	축산업	임업	어로어업 (수산업)	양식업 (수산업)
전체	54.2	81.6	9.4	4.1	4.0	0.7	2.3	0.2
30대	57.1	57.1	0.0	14.3	14.3	0.0	0.0	0.0
40대	42.5	57.5	12.5	15.0	10.0	2.5	5.0	0.0
50대	50.9	80.0	16.4	6.1	6.1	1.8	3.0	0.6
60대	53.2	80.2	12.9	4.1	5.4	0.8	3.1	0.3
70대 이상	56.5	84.9	5.0	2.7	2.0	0.2	1.3	0.0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약 절반 정도(51.3%)가 과거(5년 전)와 비교하여 영농(어장) 면적은 절반 이상이 큰 변화 없다고 응답하였다. 37.9%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8.9%만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영농(어장) 면적의 변화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30대의 영농(어장) 면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40~50대의 면적은 크게 증가하였고, 70대 이상 농림어업인의 영농(어장) 면적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70대 이상의 영농(어장)이 40~50대로 이전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농림어업 종사자 중 96.7%는 다른 경제활동 없이 농림어업에 전업하고 있다. 다른 경제 활동이 있는 3.3%중 중복응답을 허용할 경우 2.1%는 농외 취업, 1.3%는 자영업, 0.5%는 농림수산물 가공, 0.3%는 농어촌 관광에 종사하고 있다.

〈표 4-34〉 연령대별 5년간 영농(어장) 면적 변화

단위: %

구분	크게 감소 하였다	소폭 감소 하였다	큰 변화가 없다	소폭 증가 하였다	크게 증가 하였다	잘 모르겠다	합계
전체	15.2	22.7	51.3	7.6	1.3	1.8	100
30대	0.0	0.0	71.4	0.0	0.0	28.6	100
40대	0.0	10.0	65.0	17.5	2.5	5.0	100
50대	5.5	9.7	65.5	13.9	3.6	1.8	100
60대	9.0	21.9	57.3	9.3	1.8	0.8	100
70대 이상	23.2	27.9	42.4	4.2	0.3	2.0	100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농림어업 종사자의 농경지와 어장은 주로 거주 마을 내에 있지만(90.6%),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표 4-35>. 30대는 거주 마을 내에 농경지/어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7.1%에 불과하고 42.9%는 거주 마을 밖 읍·면 내에 농경지/어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은 90% 이상의 주민이 거주 행정리 내에 농경지/어장을 보유하고 있다.

〈표 4-35〉 연령대별 농경지·어장 위치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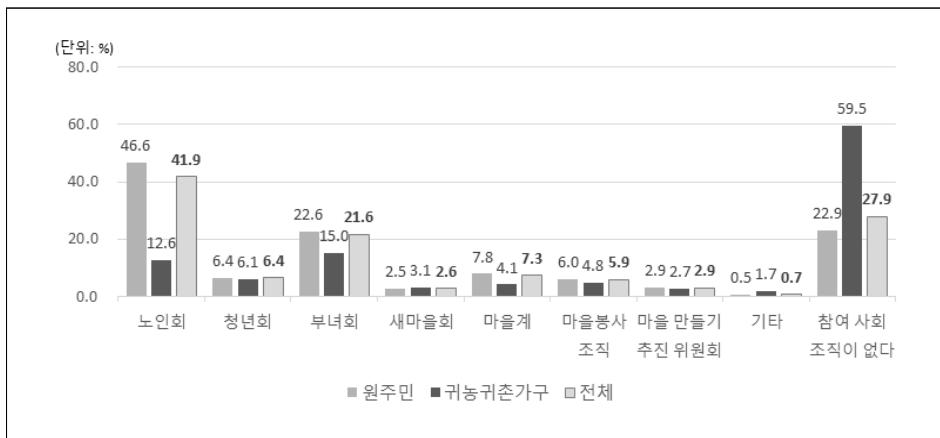
구분	거주 행정리 내	거주하는 읍면 지역	다른 읍면 지역	합계
전체	90.6	9.1	0.3	100.0
30대	57.1	42.9	0.0	100.0
40대	87.5	12.5	0.0	100.0
50대	85.5	13.9	0.6	100.0
60대	90.5	8.7	0.8	100.0
70대 이상	92.6	7.4	0.0	100.0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3.3.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농산어촌 마을 주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조직은 중복 참여를 포함할 경우 노인회와 부녀회이다. 조사 대상 주민 중 약 63.5% 혹은 약 64% 주민들이 노인회 혹은 부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27.9%는 참여하는 조직이 없었다<그림 4-9>. 기존 주민은 노인회와 부녀회의 참여가 활발한 데 반해 최근 귀농·귀촌한 주민은 참여하는 사회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59.5%).

〈그림 4-9〉 주민 유형별 참여 사회조직 현황(중복응답)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마을 주민 중 84%는 현재 경제조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경제조직에 참여하는 16.0%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경제조직은 작목반과 지역 농수협, 조합법인/회사법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마을 대표자 조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기존 주민 중 약 3%는 영농영어 조합/농어업 회사법인, 어촌계/산림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 귀농·귀촌한 주민은 참여가 저조하였다. 대신 최근 귀농·귀촌한 주민은 기존 주민에 비해 작목반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표 4-36〉 주민 유형별 참여 경제조직 현황(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기존 주민	귀농·귀촌 가구
작목반	7.9	7.9	8.2
어촌계/산림계	2.9	3.1	1.7
저축계/쌀계	0.0	0.1	0.0
마을기업 혹은 마을 공동체 회사	1.5	1.5	1.7
협동조합	0.7	0.8	0.0
영농영어 조합법인, 농어업 회사법인	3.0	3.3	0.7
생협	0.0	0.0	0.0
지역 농수협	3.1	3.3	1.7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0.1	0.2	0.0
기타	0.2	0.2	0.3
참여하는 경제 조직이 없다	84.0	83.4	87.4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마을 활동 중 마을친목모임, 마을조직(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마을사업(식품가공, 체험가공), 동아리활동(독서, 풍물, 체육 등)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마을 활동은 기존 주민과 최근 귀농·귀촌인과의 참여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비율 차이가 가장 큰 마을 활동은 마을조직(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과 마을친목모임(마을관광, 애경사)이고, 가장 참여 비율 차이가 작은 마을 활동은 마을사업(식품가공, 체험관광)과 동아리활동(독서, 풍물, 체육)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마을 활동의 참여도가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마을활동 참여도와 만족도는 비례 관계에 있다. 마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의 참여도를 0으로 설정하고, 주민의 참여정도를 0(거의 참여 안 함) ~ 5점(거의 매번 참여함)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 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활동은 마을친목모임이고, 낮은 참여도를 보인 활동은 동아리활동과 마을사업이었다. 기존 마을 주민은 최근 귀농·귀촌한 주민에 비해 전반적으로 마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표 4-37〉 주민 유형별 마을활동 참여 비율과 참여 정도(5점 척도)

단위: %, 점

구분	주민 참여 비율(%)			주민 참여 정도(점)		
	평균	기존 주민	귀농·귀촌	평균	기존 주민	귀농·귀촌
마을친목모임	77.5	81.3	53.7	2.82	2.97	1.85
마을공동작업	57.7	59.6	45.6	2.07	2.15	1.56
시설관리	18.0	19.2	10.5	0.63	0.68	0.31
공동경작활동	14.3	15.0	9.9	0.49	0.52	0.30
마을사업	9.3	9.3	9.5	0.34	0.35	0.30
마을조직	73.3	78.2	42.2	2.69	2.89	1.44
마을회의 참여	56.3	59.6	36.1	2.02	2.14	1.21
동아리활동	10.2	10.2	10.2	0.34	0.35	0.29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3.4.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 이용

주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방문하는 목적지가 뚜렷이 구분된다.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상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군청 소재지를 주로 이용하고, 종합병원 등 전문치료를 받는 경우는 시·군청 소재지나 다른 시·군지역, 혹은 인근 대도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가능한 간단한 진료, 식료품 및 기초생필품 구입, 생활편의시설, 관공서/은행/우체국 등 기초 생활 서비스는 읍·면 소재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읍·면 소재지가 농산어촌 생활권의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문화/여가/취미 활동이나 친목모임 등 개인적인 활동은 마을 내와 읍·면 소재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4-38>.

〈표 4-38〉 생활서비스별 주요 서비스 이용 지역

단위: %

구분	마을	읍면 소재지	다른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다른 시군 지역	인근 대도시	합계
식료품 및 기초생활품 구입	13.5	74.2	4.5	6.6	0.8	0.3	100.0
생활편의시설	7.4	69.8	8.3	11.5	2.1	0.9	100.0
고가상품 구입/상업서비스	2.4	29.3	9.9	34.7	13.3	10.3	100.0
관공서/은행/우체국	7.9	74.4	7.3	9.4	0.7	0.2	100.0
보건소/병의원 등 간단한 진료	8.9	56.8	8.3	22.2	2.4	1.4	100.0
종합병원 등 전문 진료	0.3	4.1	3.3	38.0	27.6	26.7	100.0
문화/여가/취미 활동	29.2	46.9	6.8	12.4	2.7	2.0	100.0
친목 모임	38.0	45.1	3.8	9.1	2.3	1.8	100.0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문화/여가/취미활동과 친목모임 서비스 등 개인적인 활동은 연령이 많을수록 마을 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젊을수록 시·군청 소재지나 다른 시·군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표 4-39>. 70대 이상 주민 중 42.5%는 마을 내에서 문화/여가/취미활동을 즐기고, 51.6%는 마을 내에서 친목모임을 갖고 있다. 즉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인들에게 있어 마을 내 활동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30대는 문화/여가/취미 활동을 마을 내에서 즐기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48.0%는 시·군청 소재지나 다른 시·군지역에서 즐기고 있다. 친목모임의 경우 42.3%가 시·군청 소재지나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동하여 즐기고 있다. 연령 대별로 생활서비스 이용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권과 연령 특성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공급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9〉 연령대별 친목모임과 문화/여가/취미 서비스의 이용 지역

단위: %

구분		마을	읍면 소재지	다른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다른 시군 지역	인근 대도시	합계
문화/여가/취미 활동	30대	1.9	28.8	11.5	28.8	19.2	9.6	100.0
	40대	12.1	35.6	6.1	34.8	5.3	6.1	100.0
	50대	13.8	48.4	10.4	17.9	6.3	3.1	100.0
	60대	19.8	51.6	8.8	14.9	2.5	2.4	100.0
	70대 이상	42.5	46.0	4.5	5.7	0.6	0.7	100.0
친목모임	30대	13.5	28.8	9.6	28.8	13.5	5.8	100.0
	40대	14.4	40.9	2.3	31.1	6.1	5.3	100.0
	50대	20.8	49.7	7.5	13.8	5.3	2.8	100.0
	60대	30.5	49.9	5.6	9.5	2.0	2.5	100.0
	70대 이상	51.6	42.3	1.5	3.7	0.5	0.4	100.0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거주하는 읍·면 소재지는 1년에 평균 56.8회, 시·군청 소재지는 평균 23.6회, 다른 시·군은 평균 12.6회 방문하고 있다. 이는 읍·면 소재지는 매주, 시·군청 소재지는 2주에 1회, 다른 시·군은 1개월에 1회 방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문 횟수는 20년 전과 비교하여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줄었다고 응답한 주민이 늘었다고 응답한 주민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표 4-40>.

〈표 4-40〉 소재지별 방문 횟수

단위: %

구분	연평균 방문 횟수	과거 대비 방문 횟수			
		줄었다	비슷하다	늘었다	합계
마을이 속한 시·군 읍·면소재지	56.8	32.5	57.0	10.4	100.0
마을이 속한 시·군 군청소재지	23.6	34.8	57.0	8.2	100.0
다른 시·군	12.6	36.5	51.7	11.8	100.0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3.5. 마을 주민들의 정주 환경

농산어촌 주민은 대부분 농가주택과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농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일반 마을에서 높으며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원격 마을과 소재지 마을에서 높다. 아파트와 빌라 등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은 소재지 마을이 높았다. 농막/컨테이너 등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은 0.5%인데, 주로 경기도와 강원에 집중되어 있었다<표 4-41>.

〈표 4-41〉 마을 주민들의 주택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시·군 유형			마을 유형		
		근교	일반	원격	소재지	일반	원격
농가주택	76.0	77.3	73.0	78.8	61.8	82.3	72.4
전원주택	18.2	17.6	21.4	14.6	21.8	15.4	22.0
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택 등	4.4	4.1	4.1	5.1	13.0	2.0	3.5
원룸/ 오피스텔	0.1	0.0	0.2	0.0	0.3	0.0	0.2
농막/ 컨테이너 등 임시 거처	0.5	0.7	0.6	0.1	2.3	0.0	0.2
기타	0.8	0.3	0.7	1.3	1.0	0.3	1.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농가주택은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현지 주민의 실거주용 주택을 의미하며, 전원주택은 도시민의 거주용, 은퇴자의 주택 등을 지칭함.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최근 5년 동안 마을의 정주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환경오염의 증가와 자연경관을 해치는 시설 증가로 인식하고 있다. 주민들의 인식으로는 일반 및 원격 농산어촌 시·군에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자연 경관 훼손 시설은 근교 및 일반 농산어촌 시·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표 4-42>. 현장 조사 대상 중 한 마을인 이천시 서경1리의 경우는 2008년에 비해 2018년 마을 주변에 각종 공장 및 창고가 상당한 면적으로 증가하였다. 원격 농산어촌인 홍천군 팔봉2리는 인근 리조트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관광객 및 상업시설이 증가하여 과거와는 다른 마을로 변모하였다<그림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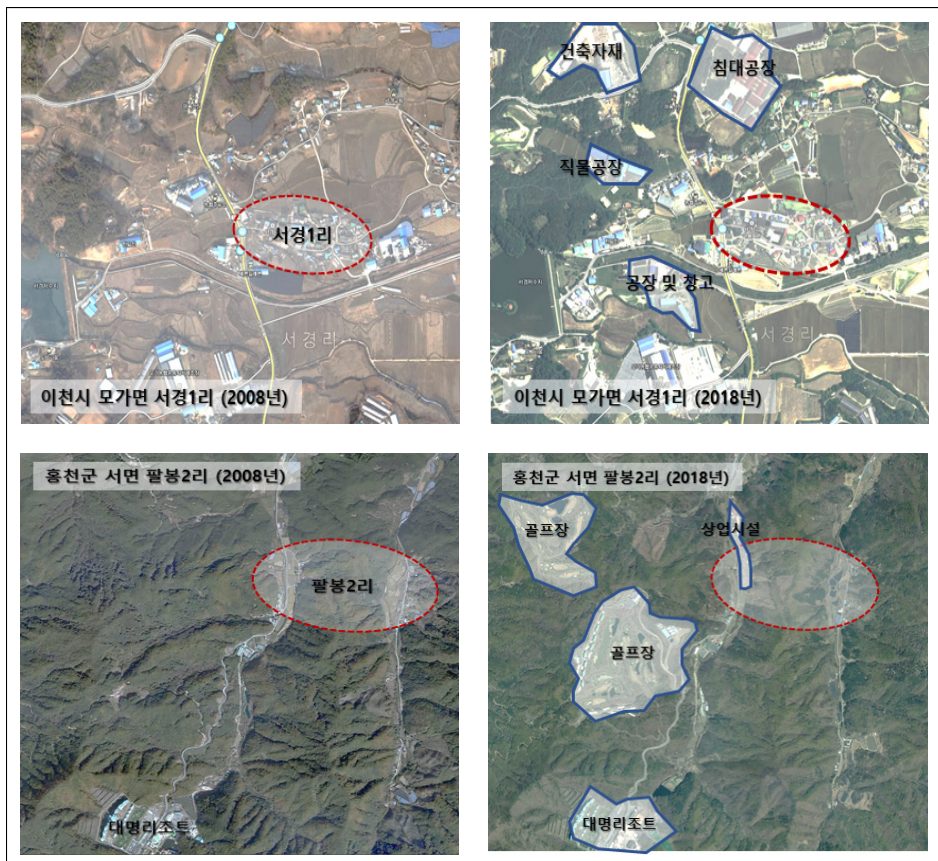
〈표 4-42〉 최근 5년 동안 마을의 정주 환경 변화(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평균	시·군 유형		
		근교 농산어촌	일반 농산어촌	원격 농산어촌
자연 경관을 해치는 시설 증가	<u>2.67</u>	<u>2.77</u>	<u>2.80</u>	2.42
치안 /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증가	2.34	2.37	2.46	2.17
소음, 악취, 쓰레기 등 환경 오염이 증가	<u>2.95</u>	2.81	<u>3.08</u>	<u>2.92</u>
일자리 증가	1.94	1.84	2.10	1.82
귀농·귀촌인 증가	2.48	2.35	2.69	2.34
도시의 관광객 증가	2.54	2.40	2.59	2.61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0〉 농산어촌 마을의 물리적 환경 변화의 예



자료: 카카오맵 위성사진(<https://map.kakao.com/>, 검색일: 2020. 10. 20.).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농산어촌 마을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삶의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7.37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직업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주민 삶의 만족도는 귀농·귀촌 여부와 연령에 따라 만족하는 삶의 유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귀농·귀촌인은 행복감, 정신건강, 직업 등에서 기존 주민보다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마을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기존 주민은 마을생활과 이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젊을수록 평균적인 만족도가 높지만, 생활 항목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젊은층은 행복도, 가치있는 삶, 정신 건강, 삶의 질 수준에 만족도가 높았고, 고령층은 마을생활, 이웃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표 4-43〉 주민 유형별 삶의 만족도(10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전체	귀농·귀촌 여부		연령대				
		기존 주민	귀농 귀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행복 정도	7.45	7.41	<u>7.70</u>	<u>8.12</u>	<u>7.86</u>	7.68	7.60	7.21
가치있는 삶	7.22	7.19	<u>7.40</u>	<u>8.02</u>	<u>7.76</u>	7.42	7.41	6.94
마을 생활	7.47	7.48	7.37	7.60	7.67	7.51	7.61	7.34
삶의 질 수준	7.07	7.04	7.24	7.73	7.50	7.25	7.28	6.80
직업	7.02	6.98	7.27	7.62	7.61	7.36	7.26	6.69
정신 건강	7.45	7.39	<u>7.84</u>	<u>8.25</u>	<u>8.12</u>	7.88	7.70	7.06
이웃	7.89	<u>7.96</u>	7.40	7.35	7.62	<u>8.01</u>	<u>8.01</u>	7.84

자료: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4. 요약 및 소결

102개 패널 마을 대표자 및 마을에 거주하는 2,151명의 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산어촌 마을의 특징을 인구, 사회·경제, 물리적 정주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구 측면에서 농산어촌 마을은 마을간 인구 분화, 귀농·귀촌 증가, 고령화 심화, 취약계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농산어촌 마을은 평균 약 102호, 21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약 1/3 정도가 기존 주민에 해당한다. 최근 귀농·귀촌 유입은 농촌 지역별, 마을별로 차별적인데, 근교와 원격 농산어촌에 귀농·귀촌 유입이 두드러진다.

농산어촌 마을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농산어촌 마을로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는 평균 10호 정도이며, 50세 후반에 별다른 연고 없이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귀농·귀촌 가구는 기존 주민에 비해 젊고 학력이 높아 창조계층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향후 농산어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4도3촌(4都3村), 5촌2도(5村2都) 등 다양한 거주 양식을 보이는 2지역 거주(비상주) 가구도 마을 전체 가구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56.9%로 농산어촌 마을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며 독거노인, 다문화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도 다수 존재한다. 한편 농산어촌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관계인구(출입농, 출향민 등)가 있는 마을도 30~40%에 이른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농림어업 쇠퇴, 경제활동의 개별화, 공동체 기능 변화가 특징적이다. 농산어촌 마을의 가구 중 약 55~6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농가는 주로 자영업이나 농업 임금노동, 비농업 부문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농산어촌 마을의 고령화에 따라 농어가 수가 감소하고, 다수 고령자의 농경지가 40~50대 경영농에게 이전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원격 농산어촌의 젊은 농가를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 농어촌 민박 등 경제다각화활동에 참여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마을의 전통적 경제조직은 대부분 소멸하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일부 영농 관련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주민 또는 마을간 연계 공동경제활동도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사회조직은 기존 노인회, 부녀회 등이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사업추진조직 및 봉사조직, 친목조직 등 목적형 사회조직이 상당히 기능하고 있다. 특히 공동식사와 취약계층 돌봄 등의 공동체 활동은 새롭게 등장한 활동이다. 마을 내에서 공동작업 및 공동관리, 공동식사, 애경사 참여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며 마을 단위 사업 등이 절반 이상의 마을에서 추진되면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 및 정주여건 측면에서 농산어촌 주택의 노후화, 환경 및 경관 저해 시설이 증가되고 있다. 농산어촌 마을 내 평균 115호의 주택이 있으며 이 중 75%는 농가 주택에 해당한다. 전체 주택 중 수리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21호, 공폐가는 4호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마을 내 공동시설은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창고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정부지원 사업으로 체험관, 가공시설 등이 일부 마을에 설치되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마을 내부 또는 인근에 공장, 창고, 축사 등 환경 및 경관 저해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축사의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 주민이 느끼는 심각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식료품 구입 등 기초 생활 서비스를 해당 읍·면 소재지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여가 활동 및 친목 모임은 마을 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에게 마을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활동 무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5장

농산어촌 마을의 기능 변화

농산어촌 마을의 기능 변화

1. 인구 유입에 따른 농산어촌 마을 분화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농산어촌 마을의 분화를 촉진하는 주된 요인이며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구 유입은 마을에 따라 균일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일어난다. 먼저 도시민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을 가르는 요소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1.1. 마을 특성별 인구 변화 추이 비교

가구 규모, 입지 조건 등 농산어촌 마을 특성에 따라 마을 인구 증감 추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표 5-1>은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패널 조사 마을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2000년 이후 마을 인구 변화 추세를 비교한 결과이다(인구 변화 추세는 이장 설문조사 응답을 기준으로 집계). 전체적으로 가구 규모가 큰 마을들에서 인구 증가 추세인 마을 비율이 높은 반면, 소규모 마을은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는 마을이 다수를 차지한다. 마을 규모에 따라 인구 증감 추이에서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가구 규모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마을 유형 구분 (가구 규모 기준)		
		50호 미만	50~100호 미만	100호 이상
마을 인구 변화 추이 (2000년 이후)	지속 증가	3.3	19.6	57.7
	최근 증가	13.3	13.0	7.7
	변화 없음	6.7	10.9	19.2
	최근 감소	30.0	10.9	0.0
	지속 감소	46.7	45.7	15.4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마을 입지 유형별 인구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를 <표 5-2>에 제시하였다. 소재지 마을보다 원격 마을에서 최근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마을 비율이 높다. 반대로 소재지 마을 및 일반 마을의 경우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과거 연구들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일수록 인구 과소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진단한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⁶⁾ 본 조사 결과는 그러한 과거 진단과 대조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 5-2〉 소재지 접근성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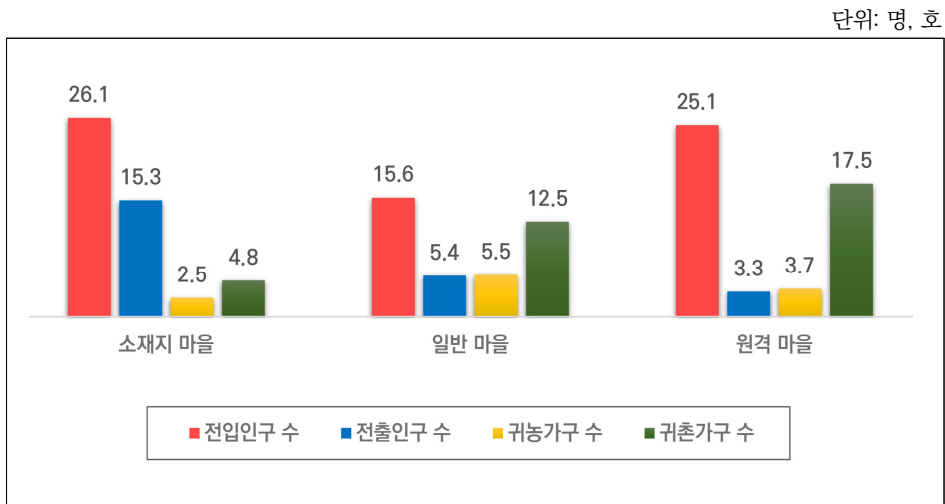
구 분		마을 입지 (읍·면 소재지 접근성)		
		소재지 마을	일반 마을	원격 마을
마을 인구 변화 추이 (2000년 이후)	지속 증가	23.5	19.0	37.0
	최근 증가	5.9	13.8	11.1
	변화 없음	5.9	13.8	11.1
	최근 감소	5.9	15.5	14.8
	지속 감소	58.8	37.9	25.9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16)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의 마을 변화를 고찰한 박시현 외(1995)에서는 산간부이자 원격지에 해당하는 미탄면 지역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극심한 과소화로 정주기반이 무너지며 마을 소멸이 진행된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 통폐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박시현 외(2006)의 연구에서도 원격지역에서는 일부 그린투어리즘 특화 마을을 제외하고 상당수 마을들이 소멸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실제 마을 유형별 인구 변동 특성을 비교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하다. <그림 5-1>은 지난 5년간 마을별 전입 및 전출 인구수, 귀농 및 귀촌 가구수 평균값을 마을 입지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이다. 소재지 마을은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 모두가 장 큰 수치를 기록한 반면, 귀농·귀촌 가구는 다른 마을보다 적은 규모이다. 반면 원격 마을은 전입 인구수가 전출 인구보다 월등히 많으며, 귀촌 가구 역시 다른 유형 마을들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 마을들은 귀농 가구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지만, 전입 인구수는 가장 적다. 인구 유동성이 높고 귀농·귀촌 가구는 적은 소재지 마을들은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상당수 원격 마을들은 전입(특히 귀촌 전입)이 우세하여 마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그림 5-1> 마을 유형별 전출·입 인구(5년) 및 귀농·귀촌 가구수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1.2. 마을 분화 요인(1): 경제 기반 다변화

중심지 접근성 수준과 인구 증감 간 연관성이 과거보다 약화됨에 따라 인구 유입과 관련성이 높은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마을별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5-3>에서는 전체 가구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각 마을들을 구분하여 인구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농가 비율이 30% 미만인 마을에서는 2000년 이후 인구가 지속 증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농가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마을일수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5-2>는 농가 비율을 기준으로 마을을 구분하여 평균 전출입 인구(5년) 및 귀농·귀촌 가구수를 집계한 결과이다. 농가 비율이 적은 마을일수록 전입 및 귀촌 유입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 경제활동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마을일수록 외부 인구 유입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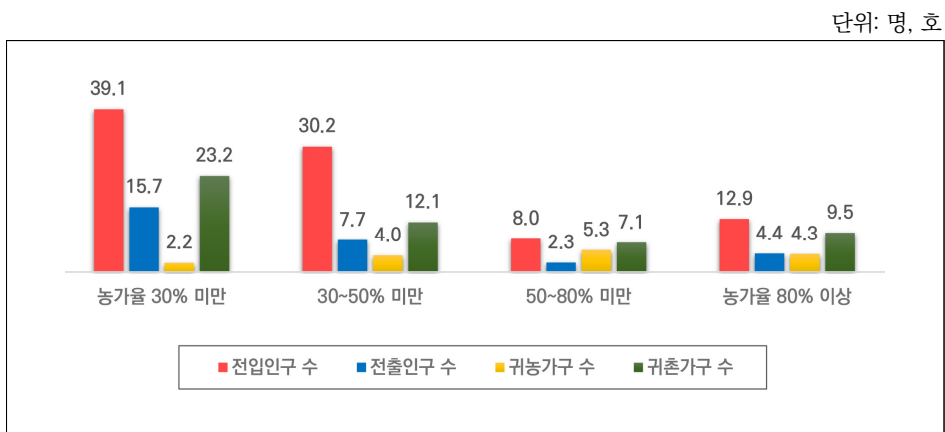
〈표 5-3〉 농가 비율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구 분		마을 구분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 기준)			
		30% 미만	30~50% 미만	50~80% 미만	80% 이상
마을 인구 변화 추이 (2000년 이후)	지속 증가	33.3	30.4	18.8	20.7
	최근 증가	27.8	13.0	9.4	3.4
	변화 없음	5.6	17.4	9.4	13.8
	최근 감소	5.6	8.7	6.3	31.0
	지속 감소	27.8	30.4	56.3	31.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그림 5-2〉 마을 농가 규모별 전출·입 인구 및 귀농·귀촌 가구수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농업 이외 경제기반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 인구 유입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5-4>에서는 패널 마을들을 세 유형(인구 감소/ 변화 없음/인구 증가)으로 구분해서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무엇인지 집계하였다.¹⁷⁾ 인구 감소 마을 또는 변화 없는 마을의 경우 농림어업이 주 소득원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 인구 증가 추세인 마을에서는 임금소득, 농림어업 외 사업소득이 주 소득원인 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5-5>는 마을 유형별로 경제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수 변화 추이를 집계한 결과이다. 인구 감소 및 정체 마을들에서는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 인구 증가 추세 마을은 경제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가 과거보다 늘어났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을에 농업 외 소득기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인구 유입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며, 인구 증가 마을과 감소 마을 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표 5-4〉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1, 2순위) 비교

단위: %

구 분	마을 인구 변화 구분		
	감소 추세	변화 없음	증가 추세
농림어업 소득	<u>57.4</u>	<u>56.9</u>	45.3
겸업 소득	8.3	9.8	6.5
임금 소득	32.4	29.4	<u>40.5</u>
비농림어업 사업소득	25.0	21.6	<u>29.1</u>
연금 및 기초 생활보장 급여	5.4	7.8	3.6
이전소득 및 기타	9.8	7.8	8.9
없음/ 잘 모름	0.0	2.0	0.8

주: 60세 미만인 주민들의 설문조사응답 결과를 집계함(1, 2순위 복수 응답 결과 합산).

17) 소득원 비교를 위해 60세 미만인 주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집계하였다.

〈표 5-5〉 마을 유형별 경제 다각화 활동 참여 가구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마을 인구 변화 구분		
		감소 추세	변화 없음	증가 추세
경제 다각화 활동 참여 가구 변화	과거에 비해 감소	7.5	16.7	2.7
	과거와 비슷	30.2	25.0	29.7
	과거에 비해 증가	0.0	8.3	<u>21.6</u>
	해당 가구 없음	<u>62.3</u>	<u>50.0</u>	45.9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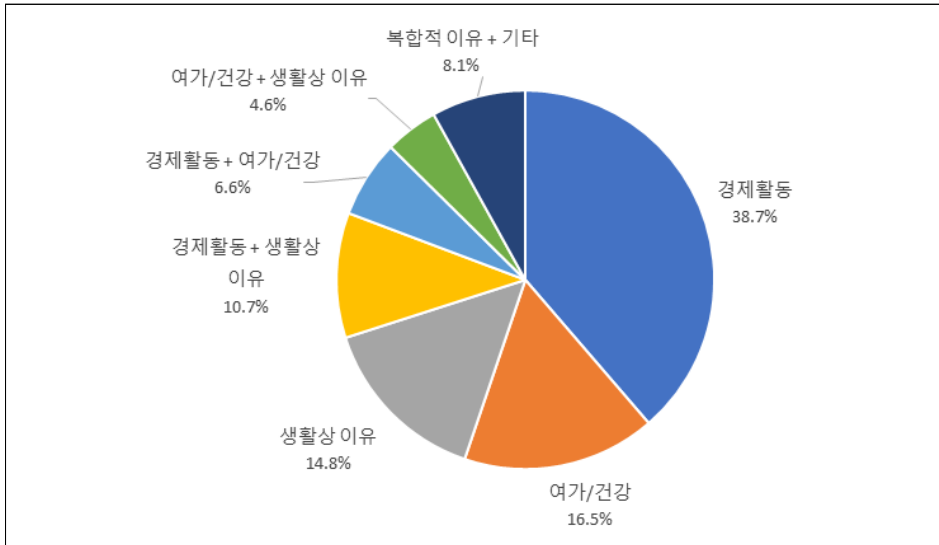
1.3. 마을 분화 요인(2): 농산어촌의 소비공간 기능 부상

1.3.1. 농산어촌 마을 유입 인구 선호 변화

농산어촌 마을 분화를 낳는 유입 인구는 어떠한 특성들을 지니며, 어떤 유형들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마을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더 우세하게 분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3>은 패널 마을들의 유입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준다. 기존 주민을 제외한 이주민들(768명)이 답한 농산어촌 이주 목적(복수 응답)을 기준으로 마을 유입 인구를 성향에 따라 몇 가지 대표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구성 비율이 높은 대표 유형들로는 ① 경제활동 추구형 / ② 여가 및 건강 추구형 / ③ 생활상 이유에 따른 이주형 / ④ 복합형 등을 들 수 있다.¹⁸⁾

18) 이주 응답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첫째, 농어업 또는 농어업 외 경제활동 수행, 직장 등의 이유로 이주한 경우 '경제활동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여가 및 건강 추구형'은 취미·여가활동 및 예술 창작 목적이나 건강 회복 및 질병 치료를 이유로 이주한 경우이다. 셋째, 생활비 절감이나 가족(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려고 이주한 경우는 '생활상 이유에 따른 이주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여러 이유가 복수로 존재하는 응답자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5-3〉 농산어촌 이주 목적에 따른 마을 이주 응답자 분류



주: 농산어촌 마을에 이주해온 주민(768명)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복수응답)를 바탕으로 이주 유형을 구분.

<표 5-6>은 현재 마을에 이주하여 거주해온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자 유형을 구분하여 농산어촌 이주 이유를 집계한 결과이다. 마을 거주 기간이 21년 이상 된 이주민의 경우 경제활동 목적의 이주 비율이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마을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최근 이주 응답자일수록 여가/건강 추구형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농산어촌에서 경제활동 중심의 ‘생산’ 역할은 줄어드는 반면, 여가활동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소비공간’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¹⁹⁾

19) ‘소비공간화’는 ‘농촌관광’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농촌의 경관, 생활양식, 문화유산 등이 체험과 관광 대상으로 변모하여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소비되는 데 주목하는 것이다(Cloke 1992; Woods 2016).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농촌관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Marsden(1999)은 농촌에서 농업 고용과 식량 생산 중요성이 감소하고, 농업 등 생산활동과 유리되는 전반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소비공간으로서 농촌(consumption countryside)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공간화가 농촌 지역 간 공간적 분화로 이어짐을 주장하였다(성주인 외 2019 참고). 도시민 주거 공간 역할, 관광 목적 방문 등이 두루 강조되는 것이 소비공간화의 특징이다.

〈표 5-6〉 이주 응답자 유형별 농산어촌 이주 이유(마을 거주 기간 기준)

단위: %

구 분	농산어촌 이주 후 마을 거주 기간				
	5년 미만	5~10년	11~20년	21~30년	30년 초과
경제활동	38.0	35.4	30.8	44.2	49.0
여가/건강	21.9	21.7	18.3	8.1	6.6
생활상 이유	11.8	9.7	18.9	16.3	19.2
경제활동 + 생활상 이유	10.2	5.1	13.0	17.4	11.3
경제활동 + 여가/건강	6.4	9.1	7.1	5.8	4.0
여가/건강 + 생활상 이유	5.9	7.4	3.6	2.3	2.0
복합적 이유 + 기타	5.9	11.4	8.3	5.8	7.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농산어촌 마을에 이주해온 주민(768명)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 집계.

마을 유형에 따라서는 어떠한 성향의 이주민들이 더 우세하게 분포하는지 살펴 보았다. <표 5-7>은 인구 증감 여부에 따라 마을을 구분하여 이주민 구성 현황을 비교하였다. 인구가 최근에 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마을일수록 여가/건강 추구형 이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8>은 마을의 입지 조건에 따라 이주민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원격 마을에서 여가/건강 목적 또는 경제활동/여가 병행형 이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소재지 마을과 일반 마을은 경제활동 목적 이주 주민이 더욱 우세하다. 소재지 마을은 생활상 이유로 이주한 비율도 다른 마을들보다 높은 편이다.

도시민의 농산어촌 이주 목적지 선택 시 마을 접근성의 영향력 정도가 과거와 비교해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거비 절감 등 생활상 이유나 경제활동 목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일 수 있다. 반면, 여가활동이나 건강 회복을 위해 농산어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핵심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7〉 마을 유형별 농산어촌 이주 이유(마을 인구 변화 추이 기준)

단위: %

구 분	마을 인구 변화 구분				
	지속 증가	최근 증가	변화 없음	최근 감소	지속 감소
경제활동	34.4	35.6	36.8	<u>50.0</u>	<u>42.9</u>
여가/건강	<u>19.9</u>	<u>22.8</u>	14.7	7.1	12.9
생활상 이유	13.0	13.9	21.1	8.9	16.3
경제활동 + 생활상 이유	10.9	8.9	11.6	7.1	11.7
경제활동 + 여가/건강	6.9	5.0	3.2	16.1	6.3
여가/건강 + 생활상 이유	5.1	5.9	4.2	5.4	3.3
복합적 이유 + 기타	9.8	7.9	8.4	5.4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농산어촌 마을에 이주해온 주민(768명)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 집계.

2) 인구 변화에 따른 마을 구분은 이장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함.

〈표 5-8〉 마을 유형별 농산어촌 이주 이유(마을 입지 조건 기준)

단위: %

구 분	마을 입지 유형		
	소재지 마을	일반 마을	원격 마을
경제활동	<u>36.4</u>	<u>41.1</u>	35.7
여가/건강	14.5	15.8	<u>19.6</u>
생활상 이유	<u>20.0</u>	14.1	12.1
경제활동 + 생활상 이유	11.5	11.6	8.0
경제활동 + 여가/건강	1.8	5.9	<u>12.1</u>
여가/건강 + 생활상 이유	6.7	4.7	2.5
복합적 이유 + 기타	9.1	6.7	10.1
합 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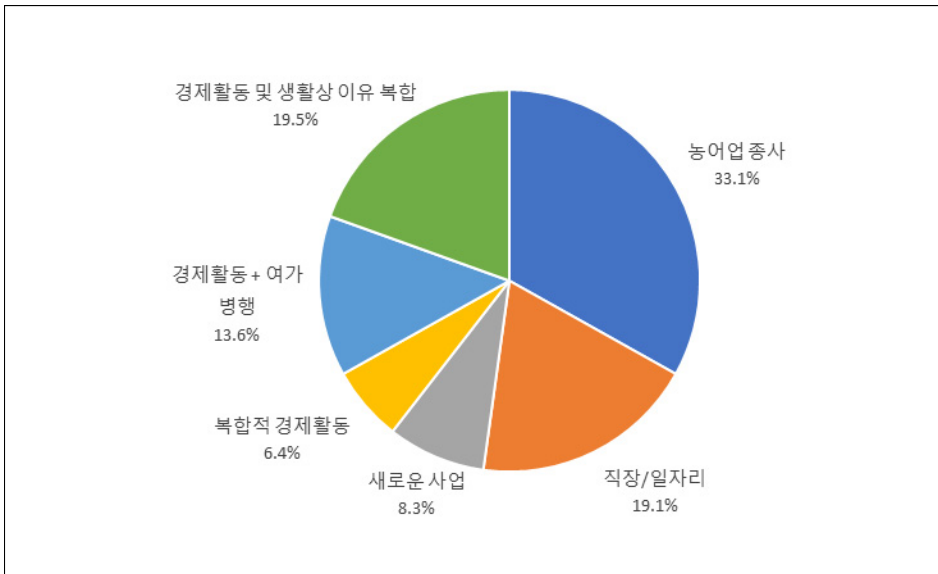
주: 농산어촌 마을에 이주해온 주민(768명)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 집계.

농산어촌 유입 인구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그림 5-4>에서는 경제활동 목적으로 이주한 응답자²⁰⁾(456명)만을 대상으로 하위 유형을 구분한 결과를 보여준다. 경제활동 목적으로 이주한 주민들 중 순수하게 농림어업 종사만을 이주 목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3인 33.1%를 기록하였다. 경제활동과 여가 병행, 새로운 사업 추진, 복합적 경제활동 등의 목적을 응답한 비율은 28.3%로

20) 농산어촌에 이주한 이유로 여가, 생활 등의 이유만을 응답한 경우는 제외한 것이다.

합산된다. <표 5-9>는 해당 이주민들을 마을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하위 유형 구성 비율을 집계하였다. 이주 기간 21년 이상인 응답자들은 농어업 종사 목적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최근에 올수록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0년 이내 이주한 응답자일수록 복합적 경제활동이나 일과 여가를 병행하려는 목적으로 이주했다는 비율이 높다. 일본의 경우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일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추구하는 ‘반농반X형’²¹⁾ 이주 트렌드가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5-4〉 경제활동 목적으로 이주한 응답자 세부 분류



주: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응답자(456명)만 세분하여 집계.

21) 시오미 나오키. 2015. 「반농반X의 삶」(노경아 역). 더숲.

〈표 5-9〉 경제활동 목적 이주 응답자 세부 분류(마을 거주 기간별 비교)

단위: %

구 분	농산어촌 이주 후 마을 거주 기간		
	10년 이하	11~20년	21년 이상
농어업 종사	23.6	31.1	46.0
직장/일자리	22.7	16.7	16.0
새로운 사업	12.8	8.9	2.5
복합적 경제활동	9.4	1.1	5.5
경제활동 + 여가 병행	17.2	14.4	8.6
경제활동 및 생활상 이유	14.3	27.8	21.5
합 계	100.0	100.0	100.0

주: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응답자(456명)만 세분하여 집계(여가, 생활 등의 이유만 응답한 경우는 제외).

<표 5-10>은 이주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마을을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제한 것이다. 연고지, 주거지 확보 용이성, 자연환경 우수 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마을 입지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소재지 마을 주민들은 가족·친지가 사는 연고지이기 때문에 현 거주지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다. 원격 마을 이주 응답자들의 경우는 우수한 자연환경 요소를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공간’으로서 농산어촌 마을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10〉 현재 마을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마을 입지 유형		
	소재지 마을	일반 마을	원격 마을
이전에 살던 곳 근처여서	6.8	8.2	2.8
친척 또는 지인이 살던 연고지여서	42.7	38.8	26.9
자녀 교육 환경이 좋아서	2.6	1.2	4.8
생활 환경이 편리해서	25.6	18.0	24.1
귀농귀촌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4.3	2.9	4.1
주거지 확보가 용이해서	39.3	42.0	38.6
지가가 저렴해서	12.8	20.8	17.9
타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우수해서	28.2	40.8	56.6
지역 내 귀농 귀촌인이 많아서	4.3	0.8	2.1
기타	8.5	2.0	7.6

주: 마을에 이주해온 응답자 중 고향 마을에 돌아온 경우를 제외하고 타 지역에서 이주한 응답자(507명 해당)의 조사 결과를 집계(복수응답 문항).

1.3.2. 마을 간 물리적 환경·경관의 질 차등화

환경, 경관의 질과 같은 물리적 조건은 마을에 따라 차등적이다. 이 역시 마을 분화를 촉발하게 된다. 특히 난개발 확산의 영향을 받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은 거주지로서 주민 선호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표 5-11>은 인구 증감 여부를 기준으로 마을을 구분하여 난개발 행위(자연환경 저해 시설 및 환경오염) 증가 여부를 주민들이 응답한 결과이다. 최근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마을일수록 인구 증가 마을에 비해 난개발 시설이나 환경오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2>에 제시된 마을 이장 설문조사에서도 인구 증가 추세인 마을과 비교해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변화 없는 마을일수록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산어촌 마을의 난개발 요소 증가가 신규 인구 유입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이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대도시 근교지역이라 해도 그에 속한 개별 마을들 중에는 과소화가 심화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성주인 외(2019)는 개별입지 제조업체가 마을 주변에 다수 분포하는 화성시 장안면을 사례로 이를 확인하였다. 장안면에는 인구 증가 마을이 14개로 집계되지만 반대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마을이 21개로 그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5-11〉 마을 유형별 난개발 확산 추이(주민조사)

단위: %

구 분		마을 인구 변화 구분		
		감소 추세 마을	변화 없는 마을	증가 추세 마을
마을에 자연환경 저해 시설 증가	전혀 그렇지 않다	16.5	19.5	18.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9.5	29.5	30.8
	보통이다	23.5	24.1	28.1
	대체로 그렇다	24.5	20.3	19.4
	매우 그렇다	6.1	6.5	3.6
	합 계	100.0	100.0	100.0
환경오염 증가 (소음, 악취, 쓰레기 등)	전혀 그렇지 않다	9.2	16.1	14.9
	대체로 그렇지 않다	25.3	19.9	24.8
	보통이다	28.5	25.7	25.7
	대체로 그렇다	27.6	27.2	28.6
	매우 그렇다	9.3	11.1	6.0
	합 계	100.0	100.0	100.0

주: 난개발 관련 응답은 주민조사(2,151명) 결과를 집계. 마을 인구 변화 구분은 이장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표 5-12〉 마을 유형별 난개발 확산 추이(이장조사)

단위: %

구 분		마을 인구 변화 구분		
		감소 추세	변화 없음	증가 추세
마을의 난개발 시설 입지 여부	없음	26.4	16.7	29.7
	있음 (문제 없음)	47.2	50.0	51.4
	있음 (문제 심각)	26.4	33.3	18.9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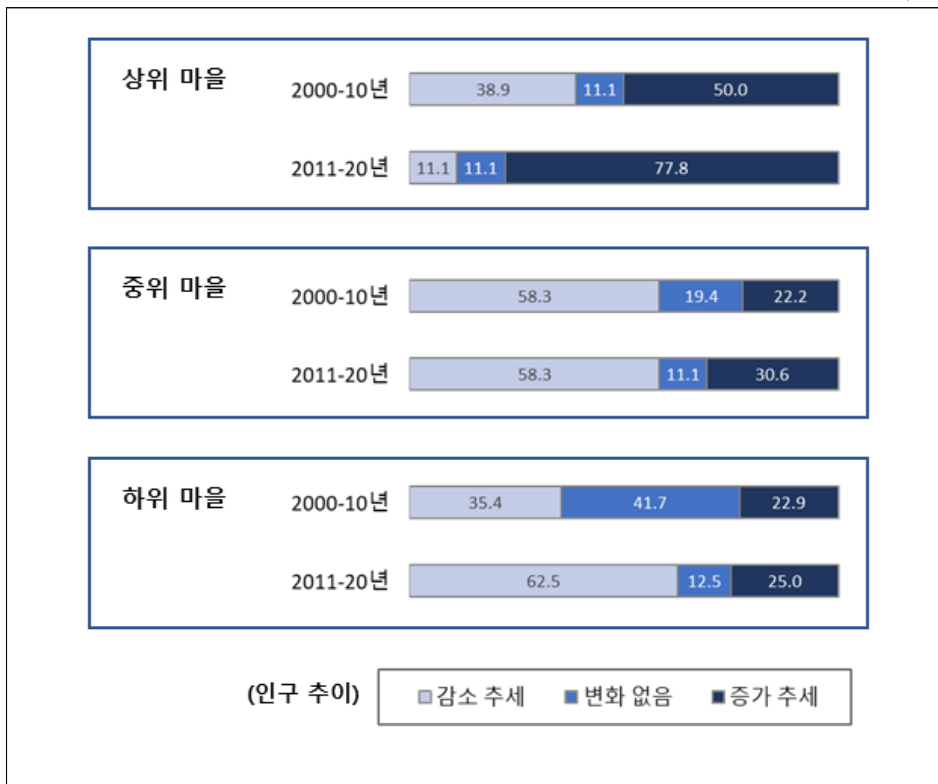
어메니티 자원 분포 정도는 마을 인구 증감에 대해 난개발 요소와는 반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5>는 마을 자원 분포 수준²²⁾에 따라 세 그룹(상/중/하)으로 마을을 구분하여 시기별 인구 변화 추이를 집계한 결과이다. 마을에 자연자원, 전통·경관 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상위 집단에 해당하는 마을들의 경우 인구가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2000~2010년 기간에 50.0%, 2011년 이후에

22) 마을 자원 분포 수준은 이장 설문 응답 내용을 기초로 판정하였다.

77.8%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하위 집단에 속한 마을들의 경우 인구 감소 추세인 경우가 두 시기 각각 35.4% 및 62.5%로 집계되었다. 최근에 읍수록 마을 어메니티 자원과 인구 증감 간 연관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농산어촌 마을의 분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경관 여건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그림 5-5〉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 분포 정도와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2. 마을 공동체 기능 변화

2.1. 전반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 약화

여기서는 인구 유입과 마을 공동체 기능 변화 간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3>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의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주민 유형별로 점수화하여 비교하고 있다(항목별 5점 만점으로 답한 값을 집계). 점수 집계 결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통(3점) 미만 값을 기록하여 공동체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그 중에도 특히 외부 유입 주민일수록 마을에 계속 거주한 기존 주민들에 비해 마을 활동에 대해 특히 낮은 참여도를 보인다. 인구 유입이 반드시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13〉 주민 유형별 마을의 주요 공동체 활동 참여 현황

단위: 점

구 분	계속 거주함	지역 외에서 이주해옴	
		고향 마을로 귀향	연고 없이 이주
친목모임	3.12	2.69	2.05
공동작업	2.23	1.99	1.65
시설관리	0.72	0.70	0.36
공동경작활동	0.56	0.64	0.25
마을사업	0.36	0.51	0.21
마을조직	3.00	2.48	1.93
마을회의	2.25	2.02	1.36
동아리활동	0.35	0.32	0.31
총점	12.59	11.35	8.12

주: 항목별로 0~5점 척도로 답한 값에 대해 주민 유형별 평균값을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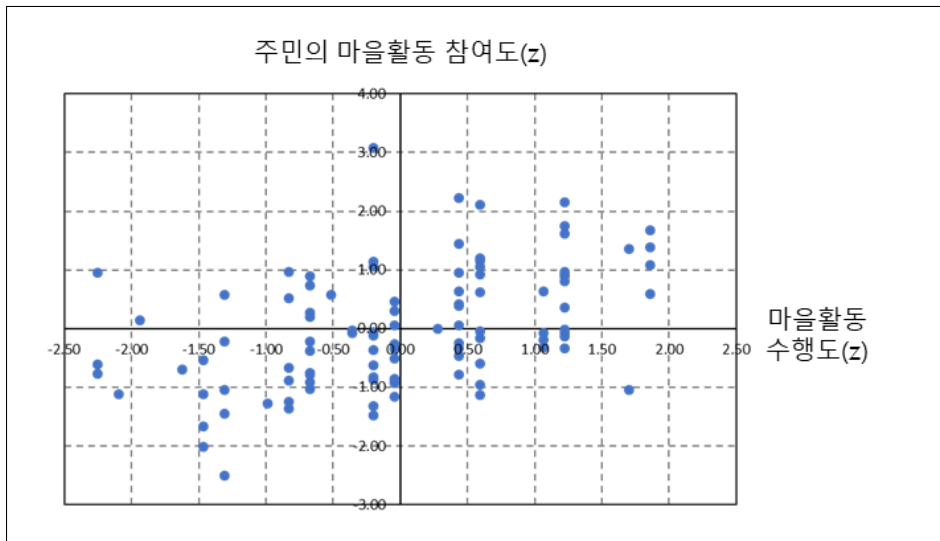
(0점: 참여하지 않음 / 3점: 보통 / 5점: 적극 참여)

자료: 주민 설문조사(2,151명) 결과 집계.

주민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마을별로 측정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각각의 마을에서 수행 중인 공동체 활동 현황(이장조사 집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마

을 주민들의 실제 활동 참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림 5-6>은 이를 집계한 결과로서 마을별 공동체 조직 및 수행 중인 공동 활동 항목을²³⁾ 합산하여 표준점수화(이장 조사 결과에 기초)한 값(X축)과 마을별 주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실제 참여 정도를 점수화하여 표준화(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값(Y축)을 좌표상에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마을활동 수행도(이장 응답)와 주민들의 활동 참여도 간에 상관성이 존재함을 볼 수 있으며, 실제 표준점수로 나타낸 마을 활동 수행도와 마을 활동 참여도 간 상관계수가 0.4655로 집계된다.

〈그림 5-6〉 마을 활동 수준 및 주민참여도에 따른 사례 마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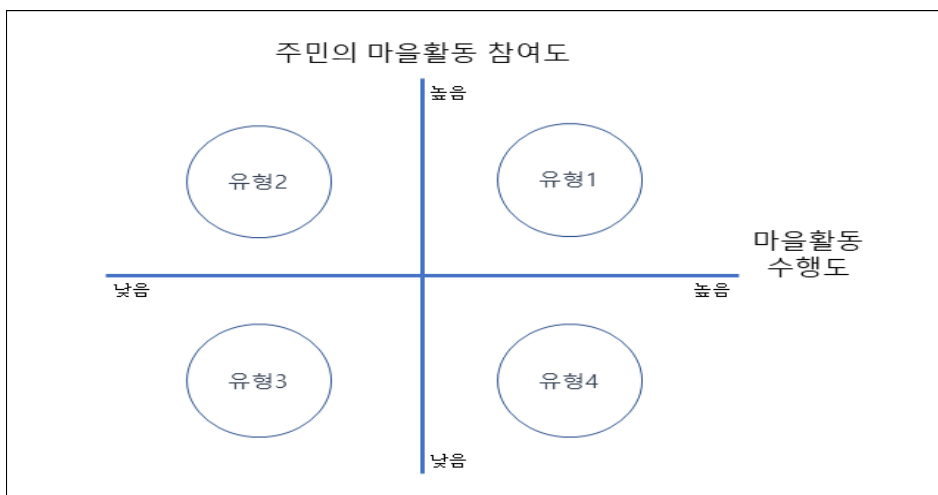
주: 마을 대표 및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 관련 항목 응답 결과를 점수화한 후 Z-score로 표준화하여 좌표상에 표시함. (X축: 마을 활동 수행도 / Y축: 마을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도)

공동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수행되며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은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을 비교하기 위해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마을을

23) 이는 마을 조직(마을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활동 여부 및 수행 중인 공동체 활동 항목을 합산하여 집계하였다. 집계에 포함된 공동체 활동에는 ① 마을 공동 애경사, ② 도로·농수로 공동 관리, ③ 청소·쓰레기 수거 등 공동 작업, ④ 마을 친목 모임, ⑤ 도농교류 활동, ⑥ 주민 축제 및 체육 행사, ⑦ 상시적 공동 식사, ⑧ 여가·문화활동 등이 해당한다.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방법은 <그림 5-7>에 개념화하였다. 마을의 공동체 활동 수행도(이장조사 결과)와 주민 참여도(주민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7〉 공동체 활동 기준 마을 유형화 개념



자료: 저자 작성.

먼저 마을 인구 변화와 공동체 활동 수행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표 5-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 규모가 감소 추세 또는 정체인 마을들의 경우 마을 활동 수행도와 주민 참여도 모두 평균보다 낮은 마을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인구 증가 마을의 경우 공동체 활동 수준 및 참여도 모두 평균보다 높은 마을(유형1)이 37.8%로서 가장 많으며, 활동 수준에 비해 참여도가 낮은 마을(유형4)도 29.7%로서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인구 감소 마을 또는 정체 마을 중에서도 공동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유지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 유입이 없어 마을 과소화가 심화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 기능이 전면적으로 쇠퇴 또는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14〉 마을의 인구 변화 추세와 공동체 활동 특성 비교

단위: %

구 분	마을 인구 변화(2011~2020년)		
	감소 추세	변화 없음	증가 추세
(유형1) 활동 수행도 상 / 참여도 상	18.9	25.0	37.8
(유형2) 활동 수행도 하 / 참여도 상	18.9	16.7	10.8
(유형3) 활동 수행도 하 / 참여도 하	50.9	50.0	21.6
(유형4) 활동 수행도 상 / 참여도 하	11.3	8.3	29.7
합 계	100.0	100.0	100.0

주: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 마을을 유형화한 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마을 대표 및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마을 구성 비율을 집계.

2.2. 마을 공동체의 지속 및 새로운 역할 수행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와 비교해서 전반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는 명맥을 유지하며 새로운 공동체 활동도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여전히 마을의 공동체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고찰하려 한다.

첫째, 공동체 활동과 경제 다각화 수준의 관련성을 파악해보았다. <표 5-15>는 공동체 활동 수행도 점수를 기준으로 세 계층(상/ 중/ 하)으로 마을을 구분한 후,²⁴⁾ 마을별 평균 경제 다각화 활동 참여 가구수를 집계한 결과이다. 공동체 활동 수준이 ‘상’에 해당하는 마을들은 다른 유형의 마을들에 비해 경제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수가 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 주민들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주민의 개별적인 경제활동 변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4) 앞의 〈그림 5-6〉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집계한 마을활동 수행도 표준화값(z)을 의미한다. 102개 마을을 각각의 점수값 순위에 따라 상위와 하위 그룹에 각각 33개 마을이 포함되도록 분류하였다.

〈표 5-15〉 마을 공동체 활동 수준과 경제 다각화 참여도

단위: %

구 분		마을의 공동체 활동 수행도		
		상	중	하
마을별 경제 다각화 활동 참여 가구수	없음	36.4	69.4	57.6
	1~2호	12.1	5.6	6.1
	3~4호	6.1	8.3	12.1
	5~10호	9.1	11.1	6.1
	11~20호	18.2	2.8	6.1
	20호 초과	18.2	2.8	12.1
	합 계	100.0	100.0	100.0

주: 마을에서 수행 중인 공동체 활동 수준에 따라 마을을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둘째, 자조적 공동체로서 마을 기능 수행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5-16>에서는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돌봄 활동(공동급식, 공동돌봄, 가사도움 등)을 수행하는 마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통적 마을 공동체 기능이 다소 약화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돌봄 등 전통적 마을 공동체가 지녔던 자조적 공동체 기능이 일부 마을에서 지속되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조사 대상 마을 중 약 32%에서 수행 중).

여러 항목별로 마을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가구 규모가 큰 마을일수록 그리고 공동체 활동 수준이 높은 마을일수록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원격 농산어촌 및 농업 기반이 강한 마을 등 불리한 여건을 지닌 마을에서도 자조적 돌봄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반드시 인구 유입이 활발하거나 소득 기반이 우세한 마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을 단위의 자조적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6〉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마을 비율(마을 유형 간 비교)

마을 유형 구분		수행 비율(%)
지역 유형	근교 농어촌	24.0
	일반 농어촌	36.8
	원격 농어촌	39.4
마을 가구 규모	50호 미만	27.6
	50~100호 미만	34.9
	100호 이상	41.7
마을의 농가 비율	30% 미만	25.0
	30~50% 미만	38.1
	50~80% 미만	29.0
	80% 이상	42.9
마을 공동체 활동 수행도	상	48.4
	중	33.3
	하	20.7
전 체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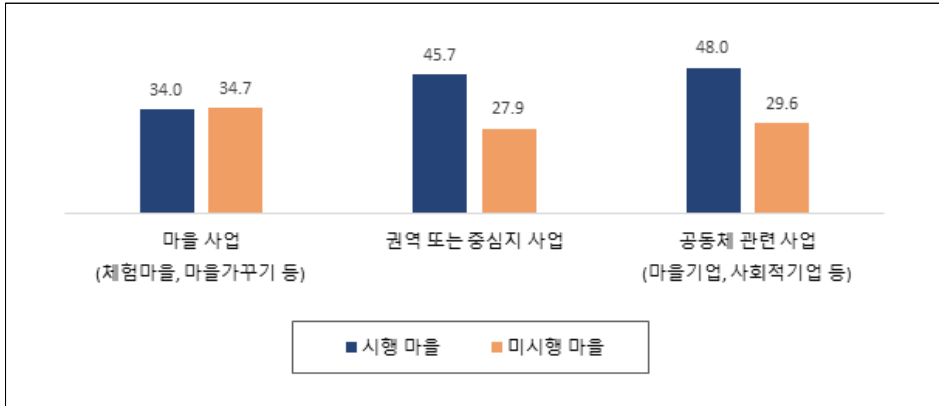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2.3. 마을 공동체 재활성화 요인

이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마을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 지원 마을사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5-8>은 각종 정부 지원 마을사업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비율을 집계한 결과이다. 권역 또는 중심지 사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최근의 공동체 관련 사업 지원 경험이 있는 마을에서 마을 단위 돌봄 활동 수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사업 지원과 마을의 자조적 기능 수행 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8〉 정부 사업 시행 여부와 마을의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비율

단위: %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본 연구의 일환으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 위탁연구²⁵⁾ 결과에 의하면, 주민 소득 창출이나 생활기반 확충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림 5-9>와 같은 취약계층 돌봄, 복지 향상 등의 활동이 연계 추진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들이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정되면서 수익을 마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공동체 활동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글상자 참조).

〈그림 5-9〉 마을 공동생활홈 사례 (충남 보령시 성주4리 사례)



주: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위탁연구 결과 인용.

25) 충남연구원(유학열·김종화·조영재·한승석·이영옥). 2020.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농촌마을에 미치는 영향 실증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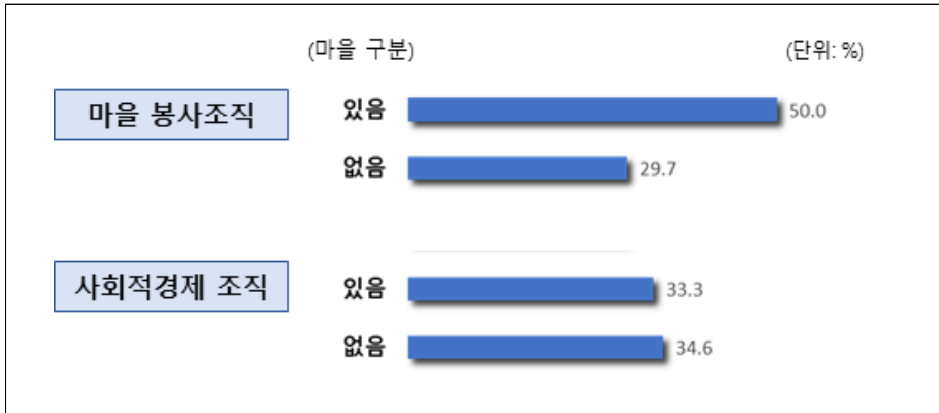
〈참고〉 마을개발사업과 연계한 주민 공동체 육성 사례

-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 (주민 고용 창출) 백석올미영농조합 설립 후 마을기업으로 지정, 주민 20명을 고용하고 일손 부족 시 일용직으로 주민들을 임시 활용
- 충남 공주시 소랭이권역
 - (공동식사 제공) 권역사업 수익으로 권역에 속한 마을들에 기금을 지급하여 고령층 무료식사 제공(급식시설은 권역사업을 통해 조성된 활성화센터 활용)
- 충남 보령시 성주4리
 - (공동홈 운영) 마을기업 운영 수익금을 마을 공동체에 환원하여 취약계층 공동홈 건립 및 마을 자체적 복지활동 인력 운영
 - (문화·여가활동 추진) 문화·여가활동 육성으로 9개 동아리 운영 및 마을축제 개최

자료: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위탁연구 결과 인용.

둘째,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조직 특성에 따라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정도를 고찰하였다. <그림 5-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 봉사조직이 있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자조적 돌봄 활동이 이루어져서 해당 조직이 없는 마을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은 돌봄 활동 수행 비율이 각각 33% 및 35%로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농산어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을 단위의 노인, 취약계층 돌봄 같은 활동들은 새롭게 구성된 공식 조직보다는 비공식적 마을 봉사조직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조적 공동체로서 농산어촌 마을이 과거에 가졌던 전통이 일부 마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구성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우는 마을 단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대된 공간 범위에서 활동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한다.

〈그림 5-10〉 마을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비율(조직 유무에 따른 비교)



주: 사회적경제 조직은 협동조합(농수협 제외), 마을기업 및 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이 해당.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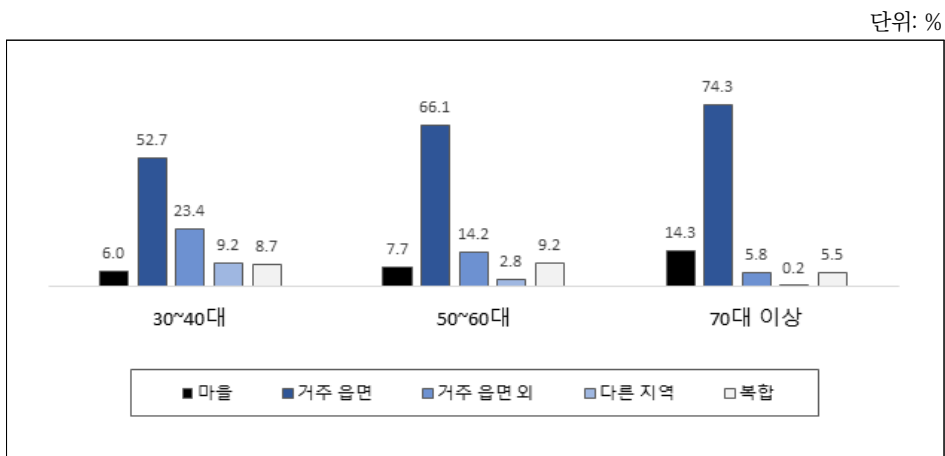
3. 마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요구 대두

국토 정주계층상에서 가장 하위의 단위를 구성하는 농산어촌 마을의 기능 변화는 상위 중심지 기능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그래서 과거 근대화·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농산어촌 마을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마을 기능의 상당 부분이 상위 중심지로 이전된다는 진단이 제시되기도 했다(윤원근·이상문 1997; 이상문 1998). 교통망 확충과 개인 이동성 향상으로 이런 과정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 시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진단과 반대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전적으로 쇠퇴 또는 소멸하지는 않으며, 일부 새로운 기능이 부상하기도 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농산어촌 마을 변화와 상위의 각급 중심지 기능 변화를 함께 연관지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농산어촌 마을의 주민 구성 다변화와 생활양식 변화 등에 따라 주민들의 새로운 서비스 요구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필수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산어촌 마을에 필요한 역할이 무엇일지도 고찰하고자 한다.

3.1. 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 변화

먼저 정주계층별 서비스 이용 성향에 따라 패널 마을 주민들의 유형을 구분해 보았다. 대체로 거주지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용되는 성격의 5대 기초 서비스²⁶⁾를 기준으로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종합하여 서비스 이용 성향을 분류하였다. <그림 5-11>은 연령별에 따라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유형을 구분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접근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주민들은 가급적 주거지와 가까운 읍·면 범위에서 기초 서비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 7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30~40대 젊은층일수록 거주 읍·면 외 또는 시·군 외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등 연령대별로 공간 이용 행태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5-11> 주민 유형별 기초 서비스 이용 성향(연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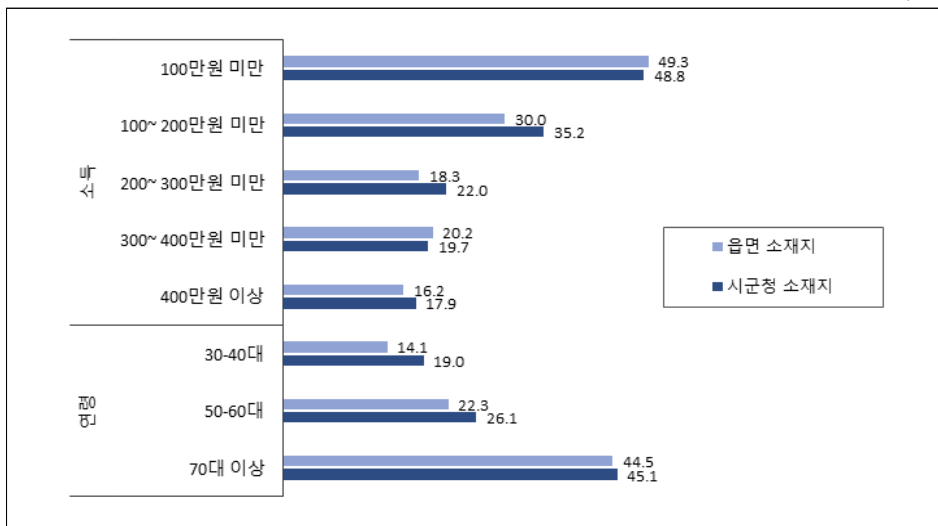
주: 주민(2,151명)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5개 기초서비스 항목의 이용 장소에 따라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성향을 구분함.

26) 주민 설문조사 문항 중 ①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 ② 이·미용실,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 ③ 보건소, 병의원 등의 간단한 진료, ④ 문화·여가·취미 활동, ⑤ 친목 모임 등 다섯 가지 서비스가 해당된다.

농산어촌 주민들 중에는 과거와 비교해서 읍·면 및 시·군청 소재지 등 주요 중심지에 대한 방문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림 5-12>는 소득 수준 및 연령을 기준으로 각급 소재지에 대해 방문 횟수가 줄어든 주민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저소득층, 고령층일수록 과거보다 읍·면 및 시·군청 소재지 등 방문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 배후마을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동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노인층 등의 경우 서비스 전달의 최종 창구로 일선 농산어촌 마을의 기능이 앞으로 요구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그림 5-12〉 과거 대비 중심지 방문 빈도 감소 주민 비율(소득 및 연령 비교)

단위: %



주: 주민(2,151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 및 시·군청 소재지 유형별로 과거보다 방문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집계함.

3.2. 새로운 서비스 요구 대두

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 농산어촌 마을 및 중심지에 서 요구되는 기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7>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거주 지역에서 부족한 서비스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소재지 마을보다는 일반 마을 및 원격 마을 주민일수록 그리고 젊은 연령층보다는 고령층 주민일수록 생필품 구매, 교통서비스 지원 등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중심지와 배후 마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상위 중심지로의 이동에 제약을 받는 계층에게는 농산어촌 마을이 여전히 유효한 서비스 전달의 공간 단위인 것이다.

젊은층 및 소재지 마을 주민들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문화·여가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는 노년층과 달리 일선 마을이 아닌 읍·면 소재지 기능 제고, 매력도 증대를 통해 충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앞으로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및 상위 중심지 단위에서 필요한 생활 서비스 기능을 차별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해법 모색이 요구된다.

〈표 5-17〉 거주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시설

단위: %

구 분	마을 유형			주민 유형			전 체
	소재지 마을	일반 마을	원격 마을	30~40대	50~60대	70대 이상	
마트/슈퍼	9.5	24.1	19.1	10.3	19.4	22.5	20.1
농업 관련 시설	3.3	3.2	3.1	1.6	4.5	2.4	3.2
의료 시설	42.3	36.3	32.4	33.7	32.6	40.2	36.4
문화/여가시설	24.3	14.3	18.9	30.4	22.4	10.6	17.3
교육 시설	1.5	1.2	2.0	7.6	1.1	0.7	1.4
교통 시설	8.0	11.4	16.1	7.6	12.5	12.2	11.9
복지 시설	6.0	8.2	7.6	6.0	5.3	9.9	7.6
기타	5.3	1.4	0.7	2.7	2.2	1.6	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주민(2,151명) 설문조사 결과 집계.

4.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수요를 지닌 인구가 농산어촌 마을에 유입되면서 마을별 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 인구 과소화가 심화되었던 원격 마을에서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근대화 시기 마을 변화 양상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을 분화는 소비공간으로서 농산어촌 기능이 부상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의 마을별 인구 증감 차이도 농산어촌의 소비공간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세이다.

둘째, 여전히 공동체 활동 단위로서 마을 기능이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과소화, 생활양식 변화 등이 중첩되어 전반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이 약화되는 추세이지만, 공동체로서 마을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단위의 취약계층 돌봄, 공동식사 등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하는 마을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단, 신규 유입 주민들의 마을 활동 참여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공동체 육성을 위해 장래 요구되는 공동체 활동 방식, 내용 등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 사업 지원이 마을 공동체의 재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사업 시행 마을에서는 취약계층 돌봄과 같은 자조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하지만 마을 봉사조직과 같은 자율적 조직이 활동하는 마을일수록 공동체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사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통사회에서부터 마을이 가져온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이어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산어촌 배후 마을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취약계층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적 정주 서비스 제공 단위로서 마을을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 선행연구(이상문 1998)를 통해 개별 주거지와 상위 중심지의 직결형 정주체계가 형성된다는 진단이 제기되었으나 그것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는바, 중심지와 배후 마을 연계성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된다. 다만, 젊은층이나 신규 유입 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일선 마을에서 충족할 수 없는 문화·여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성 있는 중심지 기능 확충이 진행될 필요성도 확인된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여 매년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을 중심으로 하지만 농산어촌의 현재 모습의 특징과 변화의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음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마을이 포함되도록 도당 평균 10여 개 마을을 할당하여 102개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였다. 도별 후보 패널 마을 선정은 전문가 협의 및 자문을 거쳐 해당 도의 특성을 대표하는 3~4개 시·군을 선정하고, 해당 시·군 내에서 2~3개 이내 읍·면을 선정한 후, 해당 읍·면별로 특징적인 마을을 2~3개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군은 대도시 및 일정 규모 이상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해 근교, 일반, 원격 농산어촌으로 구분하되, 도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감안하였다. 읍·면 선정은 지역 내의 중심지 계층 구조상의 위치와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되, 산촌과 어촌 읍·면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패널 마을은 행정리를 단위로 하였으며, 마을의 중심성에 따른 정주 계층별 위치, 지리적 특성, 인구 변화, 경제산업적

특성 등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패널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대표자 102명, 마을당 약 20%에 해당하는 주민 2,151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를 하고, 8개 마을은 방문 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주민 표본은 마을당 10명씩 선배분하고 마을 전체 가구 규모 구간별로 5~25명까지 차등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특히 조사 대상 마을 주민의 연령, 성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산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귀농·귀촌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마을의 기능 분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2지역 거주 및 관계인구의 등장은 최근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농산어촌의 뚜렷한 변화이다.

농산어촌에서 농림어업 비중은 과거보다는 축소되었지만, 일반적인 농산어촌 마을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농림어업이 지배적인 경제활동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과거보다는 시설농업이 증가하였으며, 공동 농작업보다는 개별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력 감소와 세대교체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 이외에 경제활동 다각화 경향이 원격 마을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농산어촌 전체에서 보편화된 양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공동체 활동은 과거 전통적인 사회조직에 비해 조직의 수나 참여 정도 측면에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의 사회조직이 작동하고 있다. 대부분 마을이 부동산과 현금 형태의 마을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식사, 취약계층 돌봄 등의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 등장하였다. 다만, 귀농·귀촌한 이들은 연령 및 학력 등 창조계층으로서의 특징이 있음에도 기존 농산어촌 주민에 비해 공동체 활동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바, 이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 촉진은 향후 농산어촌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주택 및 공·폐가가 모든 농산어촌 마을에 존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축사, 태양광발전시설 등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요소들이 증가했다. 다만, 주민들은 축사 이외에 태양광발전시설이나 공장, 창고 등을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요소라고 인식하는 편은 아니다. 농산어촌 마을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

은 있으나 대체로 보전, 관리,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재 농산어촌 마을의 모습과 몇 가지 변화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연속성과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1980·90년대, 2010년대와 비교하여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는 일률적·지속적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마을의 특성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 양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오히려 원격의 농산어촌 마을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둘째, 최근에는 다양한 주민 구성에 따라 2지역 거주 등의 새로운 거주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관계인구’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교류 인구가 상당한 비중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거주 형태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주 수요는 농산어촌에 ‘소비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환경을 보유한 원격지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형태의 인구 유입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1980·90년대, 2010년대와 비교하여 농산어촌 마을의 공동체 활동은 약화되어가는 연속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금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새로운 발견은 공동식사, 취약계층 돌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제법 큰 경향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이 수요 대응형 공동체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사업 지원이 그런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마을은 자체 봉사조직과 같은 자율적 조직이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과거부터 농산어촌 마을이 지녀온 공동체로서의 전통이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공동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마을에서 개별 경제 활동도 활발하고 이는 인구 증가와도 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넷째, 주민들의 이동성 변화도 농산어촌 마을 기능의 재조명을 요구한다. 마을 공동체 약화, 교통망 확충과 기동성 향상으로 마을 기능이 상당 부분 상위 중심지로 이전되리라는 과거의 진단과 달리, 읍·면 및 시·군청 소재지 등 주요 중심지 방문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마을의 서비스 확충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생필품 구매, 교통서비스 지원 등과 같이 기초 중심지와 배후 마을 연

계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결국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요건은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유지임을 알 수 있다. 공동체 활동이 경제활동 다각화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탓이며, 인구 유지·유입 조건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표 6-1〉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요약

1980·90년대 4개 마을 대상의 조사	2010년대 20개 마을 대상의 조사	2020년 현재 102개 마을 대상의 패널조사
인구의 감소 -산간지역일수록 감소	인구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는 마을 -원격지 마을 인구 증가	인구의 정체, 일부 증가 -농업의존도 높은 마을일수록 인구 감소 -규모 크고, 자연여건 양호 마을일수록 인구 증가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
사회집단 수 감소와 활동력 약화	공동체 기능의 쇠퇴	공동체 기능의 쇠퇴 -이주민 공동체 참여 저조 새로운 공동체 활동의 등장 -공동식사, 취약계층 돌봄 등
농업 축소, 농기계화 확대	공동의 경제활동 축소	농업 이외의 직종 다양화 공동의 경제활동과 개별 경제활동의 높은 연관성
마을 공동공간 이용 축소 공폐가 증가	공폐가 증가 -도로 등 농촌의 난개발 문제	마을 공동공간 이용 여전 공폐가 증가 및 축사, 태양광 등 난개발 문제 보전 가치 있는 자원, 체계적 관리는 미비

자료: 저자 작성.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농산어촌 마을의 혼주화는 이제 보편적이고, 마을 기능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산어촌의 마을에는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인구가 최근 10년 이내 귀농·귀촌 인구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소위 관계인구로 볼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농산어촌 마을도 40%에 육박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농산어촌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을 만한 정도의 증거는 없으나 농산어촌 마을의 소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는 더더욱 없다. 오히려 원격지 마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농산어촌 마을은 지역에 따라 저밀도화, 활성화, 정체되는 등 다양성을 보일 것이다.

2. 향후 과제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2020년부터 중앙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마을 대상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따라서 농산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일단, 실증적 통계 자료에 근거한 전국적인 농산어촌 마을 상황 진단 및 표본 마을의 정주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변화의 방향성을 읽고 그에 적합한 정책의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역할과 기능은 대부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고령층, 취약계층에게 있어 마을은 일상생활의 무대로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마을에 효과적인 기초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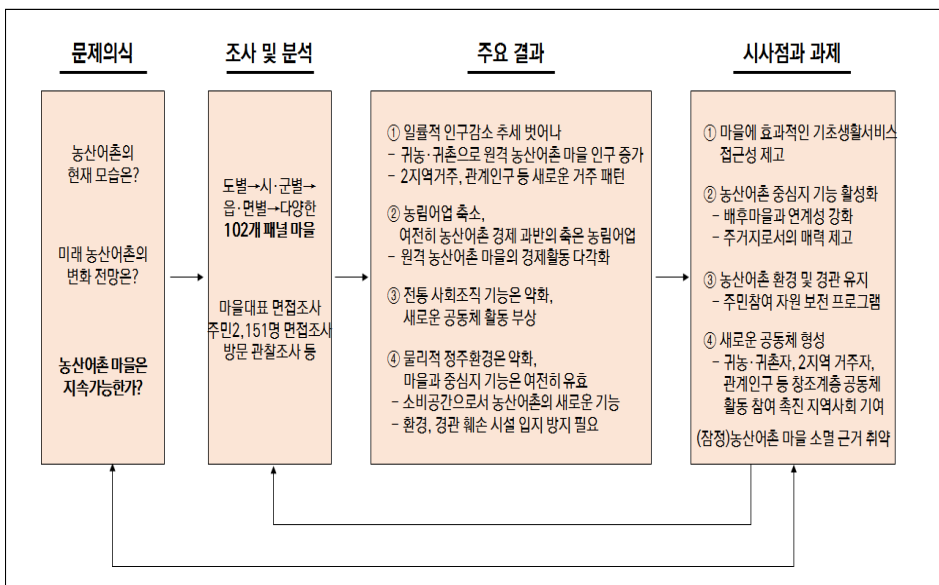
셋째, 농산어촌 마을과 더불어 농산어촌 중심지의 기능 또한 중요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책적으로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중심지 활성화 이외에 농산어촌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심지를 거주지로서도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농산어촌 정주체계 변화의 국면에서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민 구성원 간의 공동체 활성화와 새로운 구성원 확보를 위한 난개발 완화 등이 관건이다. 특히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소규모 농산어촌 정책 사업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난개발 완화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마을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환경·경관 훼손 시설 입지를 막는 방식의 정책 프로그램

램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귀농·귀촌자, 2지역 거주자, 관계인구 등과 같은 거주 패턴 등장이나 인구 유입은 농산어촌에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인구는 기존 주민에 비하여 연령 및 학력 등의 측면에서 이른바 창조계층(creative class)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는바, 이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6-1〉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종합 요약도



자료: 저자 작성.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을 시작하는 즈음에 잠정적인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방법론상 몇 가지 쟁점이 있으며 이는 이후의 연구 과정에서 교정되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우선, 마을 패널 선정이 농산어촌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통계자료와 전문가 등을 통해 패널 후보 검증을 비롯해 도별 특성, 시·군별 특성, 읍·면별 특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

정 유형의 마을이 과대 표집되거나 과소 표집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연구 과정에서 심층조사 주제와 맞물려 과소화마을, 농산어촌 정책 사업 대상 마을 등을 별도 표본으로 보완 반영할 필요가 남아 있다.

또한, 패널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추출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조사 결과의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마을당 최소 10호의 가구주를 기본으로 할당하고 마을당 가구 규모에 따라 약 20%의 대상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물론 가구주의 연령, 성별 등이 고루 반영되도록 하기는 하지만 조사 시기 마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거주자 특성을 고루 반영하는 표본이 추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현재 가구 표본을 지속 유지할 것인가, 매년 가구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무작위 추출은 이론적으로 가장 단순한 표본 추출법이지만 모든 개체가 추출 이전에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규모의 마을 패널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모집단 안에서 집단 간의 이질성이 존재할 경우 층화추출법에 비해 모집단의 속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금번 주민 조사의 대상자를 고정하지는 않더라도 가급적 유지하되 패널 마을의 인구·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후에 그 속성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상주인구, 인구 유출입이 많은 마을에서는 그러한 대상자를 별도로 심층조사를 활용해 추적 조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밖에 농산어촌 마을연구포럼이 구성되어 차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원내·외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현실에 기반한 심화된 논의를 통해 정책적 기여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산어촌 패널 마을 리스트

시도	시군	읍면	행정리	가구수	인구수	지대	접근성	비고
경기	이천시	모가면	진가2리	42	84	중간지	소재지	
			서경1리	213	498	중간지	일반	
	포천시	내촌면 관인면	진목1리	60	342	중간지	일반	접경, 산촌
			중1리	95	286	중간지	일반	접경
			초과2리	189	287	중간지	일반	접경
	연천군	왕징면 신서면	북삼리	130	400	중간지	일반	접경
			대광2리	180	272	중간지	일반	접경, 산촌
			도신2리	400	800	중간지	소재지	접경, 산촌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	130	312	중간지	일반	산촌
			산음1리	50	176	중간지	일반	산촌
		서종면	문호4리	572	1,229	중간지	소재지	산촌
			명달리	150	397	산간지	원격	산촌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2리	50	70	산간지	원격	산촌
			개야리	100	135	중간지	일반	산촌
		내면	창촌3리	75	170	중간지	소재지	산촌
			명개리	72	111	산간지	원격	산촌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85	160	중간지	일반	접경, 산촌
			다목2리	22	44	산간지	일반	접경, 산촌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121	238	산간지	일반	접경, 산촌
			송현1리	47	102	산간지	일반	접경, 산촌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50	125	어촌	일반	산촌, 어촌
			상광정리	89	186	중간지	소재지	산촌
		현남면	하월천리	59	105	산간지	일반	산촌
			강현면	166	380	어촌	소재지권	어촌
충북	청주시	강내면	궁현2리	98	285	평야지	원격	
			학천리	50	81	평야지	일반	
		북이면	추학3리	31	63	중간지	일반	
			옥산면	114	320	평야지	일반	
	진천군	초평면	영주원	87	151	평야지	일반	
			부창	59	104	중간지	일반	
		이월면	중북	45	70	평야지	일반	
			미잠	39	85	평야지	일반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62	100	산간지	일반	산촌
			애곡리	39	143	산간지	원격	산촌
			보발1리	65	156	산간지	원격	산촌
			대대1리	83	187	산간지	일반	산촌

(계속)

시도	시군	읍면	행정리	가구수	인구수	지대	접근성	비고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1리	130	300	평야지	소재지	
			동평1리	191	361	평야지	일반	
		입장면	양대리	90	247	산간지	일반	
			산정1리	47	107	평야지	원격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45	90	평야지	일반	
			화정1리	52	110	평야지	일반	
		상월면	대촌1리	57	106	평야지	일반	
			신충1리	78	134	평야지	소재지	
	태안군	안면읍	중장5리	60	138	어촌	원격	어촌
			신야2리	99	200	어촌	원격	어촌
		고남면	고남7리	51	105	어촌	일반	어촌
			고남2리	65	154	어촌	일반	어촌
전북	완주군	봉동읍	원구만	86	190	평야지	일반	
			치동	29	53	평야지	일반	
		비봉면	원소농	30	95	중간지	소재지	산촌
			천호	37	94	산간지	일반	산촌
	김제시	만경읍	봉회	89	125	평야지	일반	
			내죽	27	50	평야지	일반	
		금구면	양석	29	70	중간지	일반	
			하송	34	56	평야지	일반	
	장수군	장수읍	필덕	51	77	중간지	원격	산촌
			신리	26	86	평야지	일반	산촌
		산서면	봉서리	44	80	평야지	일반	
			사창	30	55	평야지	일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1리	60	163	평야지	일반	
			한계1리	96	183	중간지	소재지	산촌
			동가1리	65	116	산간지	원격	산촌
	나주시	남평읍	남석3리	40	104	중간지	원격	
			죽석4리	28	55	평야지	일반	
	곡성군	곡성읍	대평2리	76	120	평야지	일반	
			목동1리	67	114	평야지	소재지	산촌
			가정리	32	72	산간지	원격	산촌
	완도군	신지면	금곡리	65	105	도서	소재지	어촌
			내동리	45	105	도서	원격	어촌
		약산면	장용리	107	260	도서	소재지	어촌
			우두리	60	140	도서	원격	어촌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3리	70	130	중간지	소재지	산촌
			송정리	107	150	산간지	일반	산촌
			달서리	110	250	산간지	일반	산촌
	의성군	안계면	토매2리	150	320	평야지	일반	
			도덕1리	41	57	중간지	원격	
			양곡1리	40	59	산간지	원격	
		안사면	안사1리	39	60	중간지	소재지	산촌
			중하1리	29	38	산간지	일반	산촌

(계속)

시도	시군	읍면	행정리	가구수	인구수	지대	접근성	비고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3리	88	128	중간지	일반	산촌 산촌
			도촌2리	50	110	중간지	원격	
		소천면	현동1리	100	230	산간지	소재지	
			분천5리	25	40	산간지	원격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170	320	중간지	일반	
			조눌리	60	105	평야지	일반	
			수안리	67	130	중간지	일반	
		생림면	도요리	45	80	중간지	원격	
	남해군	남면	선구리	90	100	어촌	원격	어촌
			석교리	63	106	어촌	일반	어촌
		미조면	조도리	41	111	도서	원격	어촌
			송정리	107	150	도서	원격	어촌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54	87	산간	일반	산촌
			목현리	80	190	중산간	소재지	산촌
		안의면	안심	61	75	산간지	일반	산촌
			삼산	28	49	산간지	일반	산촌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470	1,134	평야지	일반	어촌
			송당리	380	1,060	중간지	원격	
		한경면	고산2리	266	817	평야지	원격	
			저지리	580	1,243	중간지	원격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30	480	중간지	일반	
			서광서리	600	1,235	중간지	원격	

마을 대표자(이장)조사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산어촌 마을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기 위한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마을을 대표하여 행정리의 현황에 대한 아래의 질문에 답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장님께서 답해주신 조사 결과는 **농산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셔서 얻은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파기됩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8~9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응답자 주소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				
면접 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SQ1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행정리의 이장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조사 중단
SQ2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행정리는 어느 도에 속해 있습니까?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9) 제주도
SQ3	마을 지대 구분 (면접원이 체크)	1) 평야 2) 산간지 3) 중간지 (평야/산간 중간) 4) 어촌 5) 도서(섬)
SQ4	마을 접근성 구분 (면접원이 체크)	1) 소재지 2) 일반 3) 원격

PART B. 마을의 경제활동

- ※ 법정리란? 법률로 정해진 리(里)로서, 지번의 기준이 됨. 예) 진가리, 서경리, 진목리
 ※ 행정리란?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해서, 1개 또는 여러 개의 리를 설치한 행정구역 예) 진가2리, 서경1리

Q01. 지난 20년간(2000년-2020년) 귀하의 행정리 인구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장님께서 2000년부터 거주하시지 않으셨더라도, 마을 인구 변화를 들으셨거나, 체감하시는 점을 응답해주시오.

구분	감소 추세	변화 없음	증가 추세
1. 2000년~2010년	1	2	3
2. 2011년~2020년	1	2	3

Q02. 현재 귀하의 행정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가구수를 자연마을별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 ※ 연령별 인구 응답이 어려운 경우 비율(%)로 응답해주세요.
 ※ 자연마을은 행정리 안에 있고, 고유의 마을 이름이 있으며 다른 마을과의 경계가 구분되는 마을을 의미
 ※ 전체 가구수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며, 폐가에 거주하시지 않으면, 주택이 있어도 가구수로 간주 안함
 ※ 상주 가구는 실제 마을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
 ※ 비상주 가구는 주말 또는 계절에 따라 가끔씩 방문하여 비정기적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

구분		합계 (마을 총합)	(1)	(2)	(3)	(4)	(5)	(6)	(7)
			자연 마을1 (본마을)	자연 마을2	자연 마을3	자연 마을4	자연 마을5	자연 마을6	자연 마을7
마을명									
전체 가구수									
가구수	상주(실제 거주)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비상주 (일시 거주)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인구수 (실거주 기준)	남자	명							
	여자	명							
연령별 인구 (실거주 기준)	15세 미만 (중학생 이하)	명							
	15~40세 (고등학생 이상)	명							
	41~65세	명							
	65~75세 미만	명							
	75세 이상	명							

Q03. 최근 5년 동안(2015~2020년) 귀하의 행정리 인구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래의 표를 작성해 주세요.

구분	출생	사망	전입	전출	증감 합계
증감 현황	명	명	명	명	명

Q04. 귀하의 행정리에 최근 10년 이내 이주한 귀농어·귀촌 가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가구 구성 및 주거지 위치에 따라 해당 호 수를 아래 표에 기입해 주세요.

구분	귀농어/귀촌 가구 여부		(있는 경우만) 가구 구성				(있는 경우만) 주거지 위치	
	없다	있다	총 가구	(합이 총가구수와 동일)			(합이 총가구수와 동일)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마을 내부	마을 외곽 또는 마을과 떨어진 곳
1. 귀농가구	1	2	호	호	호	호	호	호
2. 귀어가구	1	2	호	호	호	호	호	호
3. 귀촌가구	1	2	호	호	호	호	호	호

※ 귀농어 : 최근 10년 이내 동 지역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들어옴

※ 귀촌 : 최근 10년 이내 동 지역에서 농산어촌에 살기 위해 들어옴

※ 마을 외곽/떨어진 곳 :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는 곳

Q05. 귀하의 행정리에 다문화가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다문화 가구 중 자녀를 보유한 가구 수, 의사소통 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호 수를 아래 표에 기입해 주세요.

구분	다문화 가구 여부		(있는 경우만) 가구 구성			(있는 경우만) 의사소통 가능 여부	
	없다	있다	총 가구	(총가구보다 작거나 같음)		(합이 총가구수와 동일)	
				자녀 보유 가구		의사소통 가능	의사소통 어려움
1. 다문화 가구	1	2	호	≥	호	호	호

Q06. 귀하의 행정리에 아래와 같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호 수를 아래 표에 기입해주세요.

구분	사회적 돌봄 가구 여부		(있는 경우만)
	없다	있다	가구수
1. 75세 이상 독거노인	1	2	호
2. 조손가구	1	2	호
3. 장애인가구	1	2	호
4. 기초생활수급가구	1	2	호

1) 없다 2) 있다

관계인구	여부		(있는 경우만) 방문 인원
	없다	있다	총 인원
1. 출입농	1	2	명
2. 출향민(부모 방문 제외)	1	2	명
3. 도시민(정기적 방문)	1	2	명
4. 기타(정기적 교류 인사, 연구자 등)	1	2	명

※ 도시민 : 주말 농장 등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사회복지기관 방문자/관광객은 제외

구분	도시민 방문 여부		(있는 경우만) 연간 방문객 수
	없다	있다	
1. 자매결연(정기적 교류)	1	2	명
2. 도시민 대상 지역(마을) 행사 및 축제	1	2	명
3. 농어촌 체험 관광	1	2	명
4. 주말 농원 임대 및 분양	1	2	명
5. 기타(무엇:)	1	2	명

부록 | 139

PART B. 마을의 경제활동

Q09. 귀하의 행정리 내 농업에 참여하시는 가구수는 총 몇 호 입니까? 각 활동 유형 및 작목별로 참여 가구수와, 과거 10년 전(2010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 주세요. 한 가구가 여러 작목을 재배할 시 중복해서 기입 가능합니다.

예) 전체 농가 20가구, 쌀농업 15가구, 밭농업 10가구라면, 합산할 때 20가구를 초과해도 쌀농업 15가구, 밭농업 10가구로 각각 입력

구분		해당 농어가 여부		(있는 경우만) 실거주 기준 가구수 (중복 가능)	(있는 경우만) 최근 10년 동안 참여 가구 변화		
		없다	있다		과거에 비해 감소	과거와 비슷	과거에 비해 증가
1. 농가		1	2	호	1	2	3
중 복 가 능	1-1. 쌀농업	1	2	호	1	2	3
	1-2. 밭농업(노지)	1	2	호	1	2	3
	1-3. 밭농업(시설)	1	2	호	1	2	3
	1-4. 시설원예농업	1	2	호	1	2	3
	1-5. 축산업	1	2	호	1	2	3
	1-6. 임업	1	2	호	1	2	3

Q10. 귀하의 행정리 내 어업에 참여하시는 가구수는 총 몇 호 입니까? 각 활동 유형별로 참여 가구수와, 과거 10년 전(2010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 주세요. 한 가구가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해서 기입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 농어가 여부		(있는 경우만) 실거주 기준 가구수 (중복 가능)	(있는 경우만) 최근 10년 동안 참여 가구 변화		
		없다	있다		과거에 비해 감소	과거와 비슷	과거에 비해 증가
1. 어가		1	2	호	1	2	3
중 복 가 능	1-1. 어로어업 (연근해, 내수면)	1	2	호	1	2	3
	1-2. 양식업	1	2	호	1	2	3

Q11. 귀하의 행정리 내 아래와 같은 농림어업 관련 활동에 참여하시는 가구수는 총 몇 호 입니까? 각 활동 유형별로 참여 가구수와, 과거 10년 전(2010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 주세요. 한 가구가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해서 기입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 농어가 여부		(있는 경우만) 실거주 기준 가구수 (중복 가능)	(있는 경우만) 최근 10년 동안 참여 가구 변화		
		없다	있다		과거에 비해 감소	과거와 비슷	과거에 비해 증가
1. 농림어업 관련 경제활동 참여 가구		1	2	호	1	2	3
중 복 가 능	1-1. 농어촌 민박 등 숙박 운영	1	2	호	1	2	3
	1-2. 농림수산물 가공	1	2	호	1	2	3
	1-3. 직판장 운영	1	2	호	1	2	3
	1-4. 주말농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	2	호	1	2	3

Q12. 귀하의 행정리 내 상기 농어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비농어가)들은 주로 어떤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순위 () 2순위 ()

- 1) 자영업(장사,가게 운영 등) 2) 제조업 공장 취업 3) 일반 직장취업(정규직)
4) 농업임금노동(품앗이 노동) 5) 비농업 부문 일용직(건설노동, 공공근로 등)

Q13. 귀하의 행정리 내 농어가들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일손을 구하고 있습니까? (중복 응답)

- 1)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결 2) 인력회사 등의 외부 인력 고용
3) 주민 간 협력으로 해결 (품앗이, 두레 등) 4) 주민 간에 인력을 서로 소개시켜 줌
5) 기타(무엇:) 6) 일손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
7) 잘 모르겠다

Q14. 귀하의 행정리 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1) 있다 (명) 2) 없다

Q15. 귀하의 행정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농어업 법인,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직별로 최근 10년 동안(2010~2020년) 활성화 정도를 기입해 주세요.

구분	해당 조직 여부		(있는 경우만) 최근 10년 동안 활성화 정도		
	없다	있다	침체	보통	활성화
1. 작목반 1 ()	1	2	1	2	3
2. 작목반 2 ()	1	2	1	2	3
3. 작목반 3 ()	1	2	1	2	3
4. 수리계	1	2	1	2	3
5. 저축계 / 쌀계	1	2	1	2	3
6. 산림계	1	2	1	2	3
7. 어촌계	1	2	1	2	3
8.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1	2	1	2	3
9.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1	2	1	2	3
10. 협동조합(농축수협 제외)	1	2	1	2	3
11.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1	2	1	2	3
12.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1	2	1	2	3
13. 생협(아이쿱, 한살림 등)	1	2	1	2	3

Q16. 귀하의 마을에서 다음과 같은 공동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상시 주민들의 참여 또는 이용 정도는 어떻습니까?

구분	활동 여부		(있는 경우만) 주민 참여(이용) 정도		
	아니오	예	일부 주민 가끔 참여	보통	거의 모든 주민 참여
1. 공동농업활동(두레, 품앗이 등)	1	2	1	2	3
2. 공동어업활동	1	2	1	2	3
3. 마을 공동 식품 가공, 판매	1	2	1	2	3
4. 마을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1	2	1	2	3
5. 마을공동시설(육묘장, 창고) 운영	1	2	1	2	3
6. 마을 공동 농기계 이용	1	2	1	2	3
7. 기타(무엇:)	1	2	1	2	3

Q17. 공동농어업 활동, 마을 공동 식품 가공/판매 등과 같은 공동경제활동 중에 귀하의 행정을 벗어나서

다른 마을(타 행정리, 타 읍면)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 1) 없다 2) 있다

Q18. 귀하의 행정리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나 임야, 기금 등의 공동재산이 있습니까?

구분	공동 재산 여부				(있는 경우만) 면적 및 규모	
	없다	있다				
1. 마을 소유 부동산 (토지, 어장, 목장, 임야, 공장 등)	1	2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평
2. 마을 기금	1	2	백 십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PART C. 마을의 공동체 활동

Q19. 귀하의 행정리 내 아래와 같은 사회조직이 있습니까? 있다면 과거 10여 년 전(2010년 경)에 비해 현재의 활성화 정도를 기입해 주세요. 활성화 정도란 모임의 횟수가 많은지, 정기적으로 모이는지, 회원수가 증가하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구분		해당 조직 여부		(있는 경우만) 최근 10년 동안 활성화 정도		
		없다	있다	침체되어 있다	보통	활성화되어 있다
마을 내부	1. 마을회	1	2	1	2	3
	2. 노인회	1	2	1	2	3
	3. 청년회	1	2	1	2	3
	4. 부녀회	1	2	1	2	3
다른 마을까지 포함	5. 새마을회	1	2	1	2	3
	6. 농민회	1	2	1	2	3
	7. 상사(喪事)관련 계	1	2	1	2	3
	8. 혼사(婚事)관련 계	1	2	1	2	3
	9. 친목계/동갑계/놀이계	1	2	1	2	3
	10. 동호회(취미여가활동 모임)	1	2	1	2	3
	11. 마을개발위원회 및 사업추진조직	1	2	1	2	3
	12. 귀농귀촌인 조직	1	2	1	2	3
	13. 마을봉사조직(자원봉사회, 자율방범대, 산불감시 등)	1	2	1	2	3
	14. 기타(무엇:)	1	2	1	2	3

Q20. 귀하의 행정리에서 정기적으로 주민 화합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이 있습니까?

공동체 활동에 대한 평상시 주민들의 참여 정도는 어떻습니까?

구분	활동 여부		(있는 경우만) 주민 참여(이용) 정도		
	아니오	예	일부 주민만 가끔 참여	보통	거의 모든 주민이 참여
1. 마을 공동 애경사	1	2	1	2	3
2. 도로, 농수로 등의 공동 관리	1	2	1	2	3
3. 청소, 쓰레기 수거 등 마을 공동 작업	1	2	1	2	3
4. 단체 관광 등 마을 친목 모임	1	2	1	2	3
5. 마을 단위 도농교류 활동	1	2	1	2	3
6. 주민 대상 축제 및 체육행사	1	2	1	2	3
7. 상시적인 공동 식사 (예 : 복날 등에 같이 식사, 농번기 공동식사는 아님)	1	2	1	2	3
8. 풍물, 스포츠 등 여가문화활동	1	2	1	2	3
9. 기타(무엇:)	1	2	1	2	3

PART D. 마을의 물리적 환경

Q21. 귀하의 행정리 내 주택 수를 아래 표에 맞게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또한 최근 5년 동안(2015~2020년) 해당 주택의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입해 주세요.

※ 노후주택 : 보수가 필요한 주택

※ 공가는 사람이 살 수 있으나 관리가 안 되는 비어 있는 집을 의미

※ 폐가는 훼손 정도가 심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의미

구분	현재 주택 수	최근 5년 간 변화 추세		
		감소	유지	증가
1. 전체 주택 수	호	1	2	3
1-1. 노후주택 수(사람이 거주하고 있음)	호	1	2	3
1-2. 공개-폐가 수(사람이 거주하지 않음)	호	1	2	3
2. (주택 외 거주용으로 쓰이는) 농막, 컨테이너 등	호	1	2	3

※ 전체 주택수는 1-1번 노후주택과 1-2번의 공폐가를 포함하며, 2번 거주용 농막, 컨테이너는 제외합니다.

※ 전체 주택수는 1가구에 여러 채의 건물이 있더라도(예: 거주주택 + 창고 건물 등)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Q22. 귀하의 행정리에 해당 공동시설의 유무와 시설 상태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

※ 노후시설은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하여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의미

구분	시설 여부		(있는 경우만) 관리 상태		
	없다	있다	노후	보통	양호
1. 마을회관	1	2	1	2	3
2. 경로당	1	2	1	2	3
3. 공동 창고	1	2	1	2	3
4. 공동 육묘장·퇴비장·작업장	1	2	1	2	3
5. 정미소	1	2	1	2	3
6. 구판장	1	2	1	2	3
7. 농축산물·수산물 가공시설 (소규모 농가단위 가공시설, 방앗간 포함)	1	2	1	2	3
8. 농축산물·수산물 직판장	1	2	1	2	3
9. 마을 소유 숙박·체험시설	1	2	1	2	3
10.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1	2	1	2	3
11. 기타(무엇:)	1	2	1	2	3

Q23. 귀하의 행정리 내부나 인근에 환경이나 경관을 저해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축사, 공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까?

구분	시설 여부		(있는 경우만) 환경 저해 정도		
	없다	있다	수용 가능	보통	심각
1. 공장	1	2	1	2	3
2. 창고	1	2	1	2	3
3. 축사	1	2	1	2	3
4. 태양광 발전시설	1	2	1	2	3
5. 기타 (송전탑 및 전기선, 대형간판 및 각종 광고물, 고물상, 풍력발전 등)	1	2	1	2	3

PART E. 마을의 일반현황

Q24. 마을 내 다른 마을과는 구별되는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구분		자원 여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
		없다	있다	
1. 자연 자원	수자원(하천, 저수지, 호수, 공동우물, 댐 등)	1	2	
	지형자원(습지, 바위, 절벽, 봉우리, 폭포, 특이토양, 계곡, 동굴, 초원 등)	1	2	
	동식물 자원(보호수, 마을숲, 군락, 노거수, 희귀 동식물)	1	2	
2. 문화 자원	전통자원(전통주택, 돌담, 마을상징물, 유명인물, 전설, 유적지나 터)	1	2	
	경관자원(주거지경관, 농업경관,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1	2	
3. 사회 자원	공동체자원(세시풍속, 전통놀이, 마을문화활동, 마을 축제, 도농교류활동 등)	1	2	
	특산자원(특산품, 특용작물, 수공업품, 도자기, 친환경농법, 농어업유산 및 전통농어업 방식 등)	1	2	

Q25. 귀하의 행정리는 최근 20년 이내(2000년 이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마을사업이 있습니까?

구분	지원받은 적 있다		지원받은 적 없다
	1회	2회 이상	
1. 마을 단위 마을가꾸기 관련 사업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산촌종합개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전통테마마을 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1	2	3
2. 권역 또는 중심지 관련 사업 (권역사업, 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어촌뉴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등)	1	2	3
3. 기타 공동체 단위 사업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관광두레사업, 사회적기업 등)	1	2	3

Q26. 귀하의 행정리는 2000년 이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을 주민조사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은 **농산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우리나라 **농촌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가구에 1명만 응답을 해주시면 되고, 가급적 가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께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하셔서 얻은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파기됩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8~9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응답자 주소	() 시/군 () 읍/면 () 리 () 마을 ※ 법정리가 아닌 행정리명으로 기입해주세요 ※ 혹시 자연마을 이름을 알고 계시면 적어주세요			
면접 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는 올해 나이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만 29세 이하 면접 중단 1) 30세~39세 2) 40세~49세 3) 50세~59세 4) 60세~69세 5) 70세 이상
SQ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행정리는 어느 도에 속해 있습니까?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9) 제주도
SQ4	귀하께서는 10년 내 귀농귀촌을 하겠습니까? (동→읍면)	1) 아니다 2) 그렇다
SQ5	귀하의 가구는 다문화 가구입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PART A. 가구 구성

- ※ 법정리란? 법률로 정해진 리(里)로서, 지번의 기준이 됨. 예) 진가리, 서경리, 진목리
- ※ 행정리란?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해서, 1개 또는 여러 개의 리를 설치한 행정구역 예) 진가2리, 서경1리
- ※ 본 조사의 '마을'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응답 부탁드립니다.

Q01. 귀하께서는 이 마을(행정리)에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만 ()년

Q02. 귀하께서는 이 마을(행정리)에 어떻게 살게 되셨습니까?

- | | |
|--------------------------|--|
| 1) 고향이고 계속 거주하였음 |  Q05번으로 이동 |
| 2) 결혼하면서 현재 마을에 정착하였음 |  Q03번으로 이동 |
| 3) 고향이지만 타 지역에 살다 돌아옴 |  Q03번으로 이동 |
| 4) 타 지역 출신으로 이 마을에 이주해 옴 |  Q03번으로 이동 |
| 5) 기타 () | |

Q03. 귀하께서 현재 마을로 오기 전에 어느 지역에 사셨습니까?

- | | |
|------------------------------|------------------|
| 1) 서울 및 7대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등) | 2) 다른 중소도시 지역 |
| 3) 다른 시·군의 농촌 지역(읍면 지역) | 4) 거주하는 시군의 읍소재지 |
| 5) 거주하는 시군의 다른 마을 | |

Q04. 귀하께서 현재 거주지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 | |
|-------------------------|-------------------------------|
| 1) 직업적으로 농업/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 2) 농어업 외 직장 혹은 일자리를 찾아서 |
| 3) 농어촌에서 취미와 여가를 보내기 위해 | 4) 민박, 관광, 식품 등 새로운 사업 시도를 위해 |
| 5) 생활과 주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 6) 건강 회복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
| 7) 농어촌에서 예술·창작활동을 위해 | 8) 농어촌에서 자녀를 양육, 교육하기 위해 |
| 9) 가족(부모)과 같이 살기 위해 | 10) 기타 () |

Q04-1. 귀하께서 현재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이전에 살던 곳 근처여서 | 2) 친척 또는 지인이 살던 연고지여서 |
| 3) 자녀 교육환경이 좋아서 | 4) 생활환경이 편리해서 |
| 5) 귀농귀촌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 6) 주거지 확보가 용이해서 |
| 7) 지가가 저렴해서 | 8) 타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우수해서 |
| 9) 지역 내 귀농귀촌인이 많아서 | 10) 기타 () |

Q05. 귀하께서는 현재 동거 가족이 있습니까? 있으신 경우 현재 같이 사시는 분 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본인 제외)

- | | |
|--------------|------------------|
| 1) 없음(본인 혼자) | 2) 있음(본인 제외하고)명 |
|--------------|------------------|

Q05-1. 만일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배우자 | 2) 자녀 | 3) 손자·손녀 |
| 4) 본인의 형제·자매 | 5) 배우자의 형제·자매 | 6) 본인의 부모님 |
| 7)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님 혹은 장인·장모님) | 8) 기타 | |

Q06. 귀하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0점, 매우 동의하시면 10점을 응답해주시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1. 나는 현재 행복하다	0 ----- 10	()점
2.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0 ----- 10	()점
3.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0 ----- 10	()점
4. 나와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만족한다	0 ----- 10	()점
5.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직업)에 만족한다	0 ----- 10	()점
6.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0 ----- 10	()점
7. 나는 주변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0 ----- 10	()점

Q06-1. (귀농/귀촌 가구만) 귀하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0점, 매우 동의하시면 10점을 응답해주시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1. 도시보다 농촌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0 ----- 10	()점
2. 도시를 떠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	0 ----- 10	()점
3.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0 ----- 10	()점
4. 귀농/귀촌 처음보다 현재가 더 행복하다	0 ----- 10	()점
5. 귀농/귀촌 후 더 건강해졌다	0 ----- 10	()점
6. (귀농 가구만)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0 ----- 10	()점
7. 귀농/귀촌 후 심리적으로 더욱 여유롭다	0 ----- 10	()점
8. 귀농/귀촌에 대해 가족들도 만족한다	0 ----- 10	()점
9. 농촌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	0 ----- 10	()점
10. 농촌만의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다	0 ----- 10	()점
11. 농촌에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다	0 ----- 10	()점

Q06-2. (다문화 가구만) 귀하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0점, 매우 동의하시면 10점을 응답해주시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1. 다문화 이주민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0 ----- 10	()점
2. 다문화 이주민은 지역주민들과 활발히 교류한다	0 ----- 10	()점
3. 다문화 이주민은 충분히 자신만의 취미활동을 즐길 기회가 있다	0 ----- 10	()점
4. 다문화 이주민은 외롭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	0 ----- 10	()점

PART B. 경제 활동

Q07. 귀하의 현재 직업이 무엇입니까? 겸업을 하시는 경우 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응답)

- 1) 농업/임업/어업 **☞ Q07-1~5번 응답 후 Q08번으로**
 2) 자영업 3) 사무/전문직(관공서/회사)
 4) 생산/기능/노무직 5) 판매/영업/서비스직 6) 전문/기술직
 7) 주부 8) 퇴직/무직 9) 기타()
- ☞ 농림어업 외 종사자는 Q07-6번로 이동**

Q07-1. (농림어업종사자만) 귀하께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Q07-2. (농림어업종사자만) 귀하는 어떤 농림어업에 해당하십니까? 해당하는 작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1) 쌀농업 2) 밭농업(노지) 3) 밭농업(시설)
 4) 시설원예농업 5) 축산업 6) 임업
 7) 어로어업(수산업) 8) 양식업(수산업) 9) 기타

Q07-3. (농림어업종사자만) 귀하의 농경지, 어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1) 거주 행정리 내 2) 거주하는 읍면 지역 3) 다른 읍면 지역
 4) 인근 시/군 지역 5) 기타(구체적 :)

Q07-4. (농림어업종사자만) 과거(5년 전)와 비교했을 때 귀하의 영농(어장)면적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 1) 크게 감소하였다 2) 소폭 감소하였다 3) 큰 변화가 없다
 4) 소폭 증가하였다 5) 크게 증가하였다 6) 잘 모르겠다

Q07-5. (농림어업종사자만) 귀하는 농림어업 외에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하십니까? 해당하는 경우 모두 선택해주세요. **☞ 응답 후 Q08번으로**

- 1) 농림어업만 수행 2) 농림수산물 가공
 3) 주말농장, 체험활동 등 농촌관광 4) 농외 취업/부업
 5) 식당, 상점, 숙박업 등 자영업 6) 기타

Q07-6. (비농업 종사자만) 귀하의 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1) 재택 근무 2) 거주 행정리 내
 3) 거주하는 읍면 지역(읍면소재지 포함) 4) 군청 소재지
 5) 거주하는 시군의 타 읍면(군청 소재지 제외)
 6) 인근 시군 지역 7) 대도시 혹은 서울, 부산 등 광역도시

Q08. 아래 항목 중 귀하의 총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농림어업 소득(농어업 생산소득) 2) 겸업 소득(농림어업 관련 경제활동 소득)
 3) 임금 소득 4) 비농림어업 사업소득(자영업, 기타 사업체 등)
 5)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6) 이전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소득 등)
 7) 없음 8) 잘 모르겠음

Q09. 현재 같이 사시는 가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번호를 골라주시거나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업	직장위치
배우자	(,)	(,)
본인 부모	(,)	(,)
배우자 부모	(,)	(,)
자녀1	(,)	(,)
자녀2	(,)	(,)
기타1()	(,)	(,)
기타2()	(,)	(,)
보기	1) 농업/임업/어업 2) 자영업 3) 사무직(관공서/회사) 4) 생산/기능/노무직 5) 판매/영업/서비스직 6) 전문/기술직 7) 주부 8) 학생 9) 퇴직/무직 10) 기타()	1) 해당 마을 2) 거주 읍면 지역 3) 시군 군청 소재지 4) 해당 시군의 다른 읍면 지역 (군청소재지 제외) 5) 다른 시·군 6) 인근 대도시 7) 원격 및 재택근무 8) 기타 ()

PART C. 공동체 활동

Q10. 귀하께서 참여하시는 마을의 사회조직을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 (다른 마을과 공동으로 있는 조직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 | | |
|---------------------------|--------------------|--------|
| 1) 노인회 | 2) 청년회 | 3) 부녀회 |
| 4) 새마을회 | 5) 마을계(대동계, 상사계 등) | |
| 6) 마을봉사조직(자원봉사회, 자율방범대 등) | | |
| 7) 마을만들기 혹은 마을사업 추진위원회 | | |
| 8) 기타 | 9) 참여하는 사회조직이 없다 | |

Q11. 귀하께서 참여하시는 마을의 경제조직을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 (다른 마을과 공동으로 있는 조직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 | | |
|----------------------|-----------------|-------------------|
| 1) 작목반 | 2) 어촌계, 산림계 | 3) 저축계/쌀계 |
| 4) 마을기업 혹은 마을공동체회사 | | 5) 협동조합(농수협 이외) |
| 6) 영농영여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 7) 생협(아이쿱, 한살림 등) |
| 8) 지역농수협 | 9)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 10) 기타 () |
| 11) 참여하는 경제조직이 없다 | | |

Q12. 귀하께서는 상기 마을조직에서 회장, 총무 등 직책을 경험하거나 현재 수행 중이십니까?

- | | | | |
|-------|-------------|-------|-----------|
| 1) 있다 | Q12-1번으로 이동 | 2) 없다 | Q13번으로 이동 |
|-------|-------------|-------|-----------|

Q12-1. 만일 있다면 다음 중에 해당 사항을 골라 직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마을이장 2) 새마을회 3) 작목반
4) 부녀회 5) 청년회 6) 마을사업추진위원회
7) 기타 (조직명: 직책명:)

Q13. 귀하께서는 마을조직 외에 읍면 또는 시군 단위의 별도 지역사회조직이나 단체에서 활동하십니까?

- ※ 예) 로타리클럽, 4-H협회, 전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1) 예 2) 아니오

Q14. 다음 마을활동들에 대해, 귀하께서 얼마나 참여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참여 여부		(참여한 활동만)				
	아니오	예	거의 참여안함	<--- 보통 --->	거의 매번참여		
1. 마을친목모임: 마을관광, 애경사	1	2	1 ----- 2 ----- 3 ----- 4 ----- 5				
2. 마을공동작업: 청소·쓰레기수거	1	2	1 ----- 2 ----- 3 ----- 4 ----- 5				
3. 시설관리: 도로·농수로 등	1	2	1 ----- 2 ----- 3 ----- 4 ----- 5				
4. 공동경작활동: 두레, 품앗이 등	1	2	1 ----- 2 ----- 3 ----- 4 ----- 5				
5. 마을사업: 식품가공·체험관광	1	2	1 ----- 2 ----- 3 ----- 4 ----- 5				
6. 마을조직: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1	2	1 ----- 2 ----- 3 ----- 4 ----- 5				
7. 마을회의 참여: 마을총회 등	1	2	1 ----- 2 ----- 3 ----- 4 ----- 5				
8. 동아리활동: 독서, 풍물, 체육	1	2	1 ----- 2 ----- 3 ----- 4 ----- 5				

PART D. 생활권 이용 및 정주 환경

Q15. 귀하께서 다음의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로 방문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생활서비스	마을	읍면 소재지	다른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다른 시/군 지역	인근 대도시
1. 식료품 및 기초 생필품 구입	1	2	3	4	5	6
2. 이·미용실,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	1	2	3	4	5	6
3. 가전, 가구 등 고가상품 구입 혹은 상업서비스 이용	1	2	3	4	5	6
4. 관공서와 은행, 우체국 이용	1	2	3	4	5	6
5. 보건소, 병원 등 간단한 진료	1	2	3	4	5	6
6. 종합병원 등 전문 진료	1	2	3	4	5	6
7. 문화·여가·취미 활동	1	2	3	4	5	6
8. 친목 모임	1	2	3	4	5	6

**Q15-1. 귀하께서는 마을이 속한 시군에 가장 부족한 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마트/슈퍼 2) 농업 관련 시설 (가공 시설, 저장 시설) 3) 의료 시설
4) 문화여가 시설 5) 안전 관련 시설(경찰서, 소방서) 6) 교육 시설
7) 교통 시설 8) 복지 시설 9) 기타 ()

1) 없다 2) 있다 (구체적으로 :)

1) 없다 2) 있다 (구체적으로 :)

구 분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자연 경관을 해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1 ----- 2 ----- 3 ----- 4 ----- 5		
2. 치안 /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1 ----- 2 ----- 3 ----- 4 ----- 5		
3. 소음, 악취, 쓰레기 등 환경 오염이 늘어나고 있다	1 ----- 2 ----- 3 ----- 4 ----- 5		
4. 일자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 ----- 2 ----- 3 ----- 4 ----- 5		
5. 귀농·귀촌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 ----- 2 ----- 3 ----- 4 ----- 5		
6. 도시의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 ----- 2 ----- 3 ----- 4 ----- 5		

부록 | 153

-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일철 편저. 1999.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편). 2004. 『농촌생활 장기변화 연구: 대구·낙동강권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1993~2003』.
- 박시현·김정연·이상문. 1995.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송미령·황의식·성주인·정승신. 2002. 『소래지구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개발 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박대식·송미령·김정섭·박주영. 2006. 『농촌의 미래 모습, 농촌공간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정문수·민경찬. 2017.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3/5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박시현·김용렬·윤병석·남기찬. 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1/2 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박대식·정은미·민경찬. 201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송미령·정문수·민경찬. 2016.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박시현·정문수·민경찬. 2018.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4/5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박시현·정문수·민경찬. 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정기환·박준기·성주인·정승신. 2002. 『구병리 아름마을 가꾸기 개발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시오미 나오키. 노경아 역. 2015. 『반농반X의 삶』. 더숲.
- 오내원·정기환·최경환·박대식·허장. 2001. 『한국농촌경제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영희·정경희·박종서·김경래·오신휘·임지영. 2015.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 정릉3동·영동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병찬. 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충남 홍동 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 윤원근·이상문. 1995. “정주계층간 사회경제 및 공간관계 변화에 대응한 농촌공간정책의 방향모색.” 『농촌사회』 5: 319-354.
- 윤원근·이상문. 1997. “정주공동성의 공간적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1).” 『농촌계획』 3(2): 36-49.
- 이상문. 1998. “20세기 후반 한국 농촌 마을의 정주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승현·황영모·이중섭·김수용. 2019. 『전라북도 농촌마을 기본통계 작성 및 마을소멸 취약성 분석 연구』. 전북연구원. 미발간.
- 조영재·김두환·조은정. 2015. “농촌마을의 공동화와 과소·고령화 현상의 관련성 연구-충남 금산군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1(4): 85-94. 한국농촌계획학회
- 조영재·윤정미. 2018.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정책사례 및 주민의식 조사 연구』. 충남연구원.
- 조영재·사카시타 아키히코·신동철. 2018. “한계마을정책 개발을 위한 최근 일본의 한계 집락 관련 논의 및 정책 동향 연구.” 『농촌계획』 24(1): 21-32.
- 정기석. 2017. “마을 만들기 방법론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방안: 농촌공동체 재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개발·활용 전략 중심.” 한국농촌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 정명채·오내원·최경환·박대식·이상문. 1995.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16. 제10년차 조사결과 종합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차미숙. 2020.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 자리 창생정책(2020~2040).” 『국토이슈리포트』 제22호. 국토연구원.
- 최양부. 1985.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전통농촌의 해체: 한국농촌에 대한 인식의 틀을 위한 하나의 시론.” 『한국사회학』 19.

- 최양부·오내원. 1986.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1. 조사연구 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겨레신문. 2020.10.17. “나도 모르게 귀촌인? 농촌 인구 감소 외면한 귀촌 통계.”
- Cloke. 1992. The countryside: development, conservation and an increasingly marketable commodity, in P. Cloke (ed.). *Policy and Change in Thatcher's Britain*. Oxford. UK: Pergamon Press.
- Marsden, T. 1999. “Rural Futures: The Consumption Countryside and its Regulation.” *Sociologia Ruralis* 39(4): 501-526.
- Woods, M. 2016. 박경철·허남혁 외 역. 『농촌: 지리학의 눈으로 보는 농촌의 삶, 장소, 그리고 지속가능성』. 파비.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t.naver.com/>>. 검색일: 2020. 2. 24.
- 카카오맵 위성사진. <<https://map.kakao.com/>>. 검색일: 2020. 10. 20.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 10. 20.
- 통계청. 2016.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부문 집계 결과.

KREI

www.krei.re.kr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1/10차년도)

A Panel Survey for Rural Villages (Year 1 of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9 791161 494449
ISBN 979-11-6149-444-9